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국민 우수·희망 아이디어 사례집

2021.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센터장

박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안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 발간사 •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른 대응과 협업을 통한 극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들 간의 활발한 소통(Communication)을 통하여 우수한 정책을 국민의 기대에 맞게 발굴하고 공유하며, 중앙-지방간, 공공-민간간의 협업과 협력(Cooperation)을 통한 창의와 적극행정(Creativity)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창의적인 국민들의 정책아이디어를 행정현장에 반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하에 2020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공모결과와 관련하여 두 개의 보고서(2020년 12월 분석보고서, 2021년 1월 사례집)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발간한 분석보고서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분석보고서: 현명한 국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코로나19 진행과정에서 수렴된 약 1천 건의 국민아이디어를 시기별, 정책수단별 등으로 구분해 시사점을 분석한 것이며, 이번에 발간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국민 우수·희망 아이디어 사례집」은 약 1천 건의 국민 아이디어 중 130건의 우수·희망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정책유형별로 분류해 시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수렴된 우수·희망 아이디어가 코로나19 극복 시책개발에 도움이 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정책으로 입안되는데 소중하게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례집이 나오기까지 노력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전성만 센터장님을 비롯해 참여해주신 연구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을 위해 큰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윤태범 전 원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 공모 과정에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제언 하나하나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과 정성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제안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 1. 3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 일 재

목차

Ⅰ.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1
	1. 공모전 의의	2
	2. 공모전 수행과정	5
	3. 공모전 주요 결과	7
	4. 공모전 인포그래픽스	16
	5. 우수희망 아이디어 내용 분석	19
Ⅱ.	우수 및 희망 아이디어 사례	23
	1. 공공행정	25
	2. 안전	28
	3. 교육	48
	4. 문화·관광·체육	66
	5. 환경	91
	6. 보건복지	94
	7. 농림수산	122
	8. 산업경제	130
	9. 고용노동	188
	10. 재정	208

Ⅰ.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1. 공모전 의의
2. 공모전 수행과정
3. 공모전 주요 결과
4. 공모전 인포그래픽스
5. 우수희망 아이디어 내용 분석

1 공모전 의의

목표

- 국민-정부 간 소통기반의 국정운영의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의견을 국정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참여형 국정운영"의 실천적 활동의 수행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포용국가의 국정방향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지방-주민들의 협력형 정책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자율·창의적 정책의견 수렴활동의 확대
-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투명하고 공감가는 정책 의견수렴, 합리적 정책결정,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정책집행의 정책 선순환 체계를 구축

의의 및 차별성

- 연구원에서 수행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최초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이후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확산에 기여
- 사회 및 지역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실현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이슈 메이커의 역할을 강화
- 정책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개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안한 공모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공모자들의 평가(좋아요, 추천)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반영 및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필요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정책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집행 순응 제고 필요
-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 빠른 국가정책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1)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2) 각 지역 및 성별·세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3)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정책 반영의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표 1] 코로나19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내용
개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후 코로나19)는 SARS-CoV-2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함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음 - 1~14일(평균 4~7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음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다양한 호흡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명률	-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기준)임 -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단, 국가별·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힘내자대한민국! 지키자지역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2020. 3.30.(월)~
2020. 6.7.(일) 매주 접수 및 시상

회차	접수기간	우수제안 발표
1회차	3.30 ~ 4.05	4.13 이후
2회차	4.06 ~ 4.12	4.20 이후
3회차	4.13 ~ 4.19	4.27 이후
4회차	4.20 ~ 4.26	5.04 이후
5회차	4.27 ~ 5.03	5.11 이후
6회차	5.04 ~ 5.10	5.18 이후
7회차	5.11 ~ 5.17	5.25 이후
8회차	5.18 ~ 5.24	6.01 이후
9회차	5.25 ~ 5.31	6.08 이후
10회차	6.01 ~ 6.07	6.15 이후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현가능한 제안은 무엇이든

※ 주차 달리하여 복수 응모 가능

공모방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접수처
(https://www.krila.re.kr/customer/request/covid)

※ A4 2p 분량의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시상내역 매주 선정하여 시상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우수제안	2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3명이내
희망제안	5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10명이내

기타사항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③ 제안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지원과
(☎033-769-9904,9826)

공동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APA 한국행정학회 KAPS 한국지방자치학회 희망제작소

2 공모전 수행과정

공모전 수행 설계

-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모전의 설계를 일회성의 공모를 벗어나 다수, 회차의 공모를 통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 수렴 필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사회적 파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따라 10주간의 기간 설정
  - 매주 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을 통한 참여 지속화
- 국민 아이디어 공모의 궁극적 목적은 의견을 수렴하여 참신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된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시켜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기획
  - 10주차 기간에 공모된 아이디어를 공모사이트에 공개하여, 본인과 중복된 아이디어 확인 및 타 아이디어를 보고 발전되고 정교한 아이디어 제공의 기회를 제공
- 아이디어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 내부, 외부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매주 평가를 수행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희망제작소의 외부 위원을 섭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각 실별 실장(자치행정혁신실, 자치분권제도실, 지방재정경제실, 지역포용발전실)을 내부 위원으로 섭외
  - 각 위원들의 우수 및 희망제안의 우선순위를 받아 시상 순위를 선정

-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홍보 채널 다양화
  - 지역언론 및 학회를 활용
  - 온라인 공모사이트에 게시
- 빠른 정책반영을 위해 매주 국민 아이디어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정책소통을 강화

[표 2] 공모 개요

No.	구분		주요 내용
1	공모기간		- 2020. 3. 30.(월) ~ 6. 7.(일), 총 10주
2	공모분야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현가능한 제안은 무엇이든
3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시상	횟수	- 시상횟수 : 총 10회 (매주 시상) - 시상편수 : 총 130편 - 시상금액 : 총 1,100만원 시상
		편수	
		금액	
		내역	- 매주 우수제안 3편, 희망제안 10편 시상 * 우수제안(3편) : 각 2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희망제안(10편) : 각 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5	공모방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접수처 - 공모전 서식(A4 2p 분량)
6	기타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으로 제외 - 단,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3 공모전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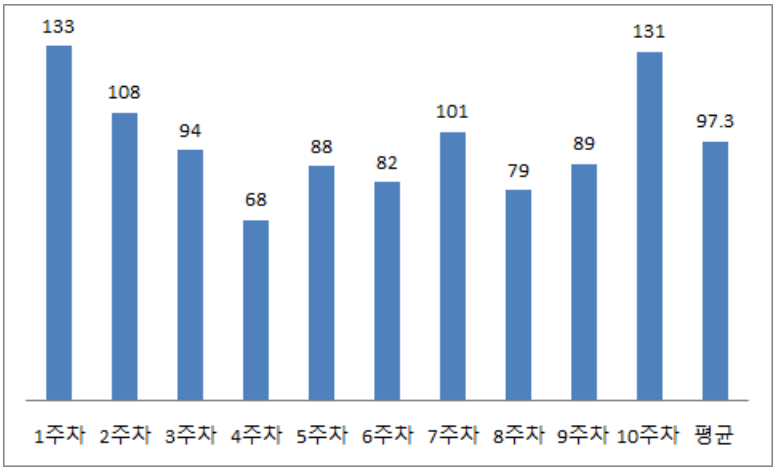
아이디어 등록건수

- 총계 : 973건(순계 : 980건)
  * 단, 중복 및 내용 없음, 기한 넘김 등 제외
  * 향후 보고서 분석은 총계를 기준으로 함

주차별 아이디어 등록건수

- 아이디어 등록은 1주차(133건), 10주차(131건)에 가장 많이 등록됨
- 반면, 아이디어 등록은 4주차(68건)에 가장 적게 등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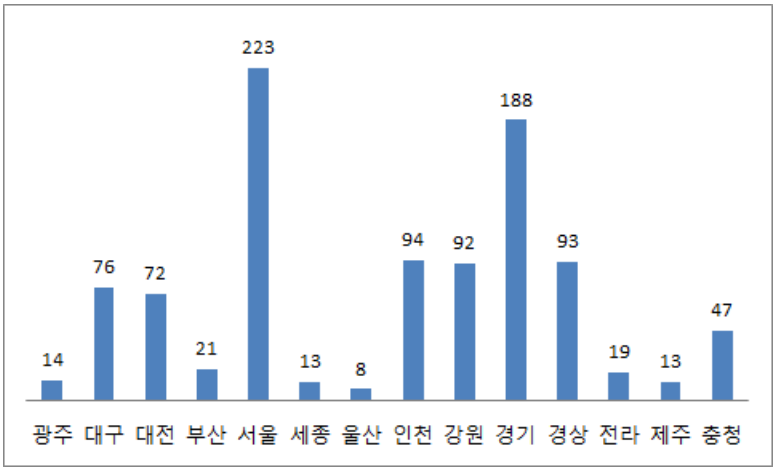
[그림 1] 주차별 아이디어 등록건수



지역별 아이디어 등록건수

- 아이디어 등록은 서울(223건), 경기(188건)에서 가장 많이 등록됨
- 반면, 아이디어 등록은 울산(8건), 전북(8건)에서 가장 적게 등록됨

[그림 2] 지역별 아이디어 등록건수



공모전 결과

- 우수제안 30건, 희망제안 100건 선정
  * 순위무관, 홈페이지 등록 순

우수제안 수상작 소개

1 우수제안 : 30건

No.	구분	주요 내용	분야	쪽수
1	1주차	- 데이터 트래픽 분석을 통한 밀집 지역 경고	안전	28
		- 화훼농가를 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국민들의 마음을 꽃으로 살리자!	농림수산	122
		- 지역화폐와 연계된 지역 배달앱을 만들어 주세요	산업경제	130
2	2주차	- 청년층과 연계한 지역상권/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산업경제	137
		- 지역특산물 판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국적 지역별 특산품 통합시스템	산업경제	139
		- 지역 주도의 공공배달서비스정책	산업경제	140
3	3주차	- [돌봄 공백 해소] 은퇴 교사의 원격수업 및 방문 지원 자원봉사	교육	50
		- 급식용 식자재 구매를 통한 기부 및 소외계층 도시락 제공	보건복지	97
		- 빅데이터로 최적경로를 구성한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 전용 실시간 무(無)노선 택배 차량 운영	산업경제	143
4	4주차	- 코로나 기간 중 소비활동 적극 참여시 연말정산 시 혜택 적용	산업경제	149
		- 굿굿즈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활성화 제안	재정	209
		- 마켓컬리의 로컬화(더 구체적인 '동네 속 가게' 딜리버리 계획안)	산업경제	150
5	5주차	- 긴급재난지원금 내고향 기부	재정	211
		- 지역 우수/신생기업 공공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산업경제	157
		- 주요 대도시권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확대 시행(방역 강화/비용경감)	산업경제	159
6	6주차	- 휴직 항공 승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문화관광 체육	74
		- 지역 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의 한시적 사용처 확대 방안	산업경제	164
		- 교육업계 비정규직과 학생을 소통의 창(재능기부 마일리지)을 만들어주세요	교육	55

No.	구분	주요 내용	분야	쪽수
7	7주차	-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커뮤니티	보건복지	111
		- 마스크에 마스크 착용 동참 문구나 응원메시지를 새겨주세요^^	보건복지	112
		- 결혼식 식권 대신 농산물 꾸러미 캠페인	농림수산	128
8	8주차	- 지자체 코로나 우수 대응 사례 모집 및 화상 시상식 개최	안전	40
		- 코로나 Option(니캉 내캉 한 배를 탔다 아이가?)	산업경제	173
		-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를 동원한 취약계층 긴급재난 물자 공급	보건복지	115
9	9주차	- 언택트 산업(쿠팡, 마켓컬리 등) 종사자 코로나 안전 어플	안전	-
		- 체온에 반응하여 색상이 변하는 마스크 코 지지대	안전	41
		-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을 위한 지역 숙박시설 대여 서비스	공공행정	26
10	10주차	- 인력 공유(재능 공유)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클래스	교육	60
		- 생활밀착형 공공 심부름 어플 '코로나 지킴이 Cozy'	보건복지	118
		-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후 케어 시스템 구축	안전	46

2 희망제안 : 100건

No.	구분	주요 내용	분야	쪽수
1	1주차	- 출퇴근 의무적 시차제의 한시적 운용	안전	29
		- 행복채움냉장고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분들께 행복집밥을 선물합시다.	보건복지	94
		- 분납 이자 감면 요청	재정	208
		- 소상공인 알림 어플 및 드라이브 스루	산업경제	131
		- 학교 급식 시스템을 이용한 경제위기 극복 및 복지실현	보건복지	95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 배달료 및 포장자재 지원	산업경제	132
		- [지역경제골목상권] 드론 활용 우리나라 골목길 가상여행	문화관광 체육	66
		- 전염병 확산 방지 및 보완을 위한 출입문 및 승강기 QR코드 도입	안전	30
		- 『코로나19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와 기업경쟁력 제고	산업경제	133
		- 시장 딜리버리 오더 어플리케이션	산업경제	135
2	2주차	- 영화산업(공연계) 살리기	문화관광 체육	68
		- 개학연기에 따른 농민 급식업체 활성화	농림수산	124
		- 군 정기공수를 활용한 저비용 항공사 생존 지원 방안	산업경제	141
		- 군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조기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산업경제	142
		- 제안합니다.	교육	48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사업 종합 안내 접수 플랫폼 필요	보건복지	96
		- 사용한 마스크 버리기 개선 방안	공공행정	25
		- '코로나 탈출 글로벌 채널 만들기'	문화관광 체육	69
		-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가격리자의 효율적인 격리 및 관리 방안(전자팔찌 대안)	안전	31
		- 방과후수업 활용해주세요. 방과후 지원받는 아이들은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49

No.	구분	주요 내용	분야	쪽수
3	3주차	- 기부물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방안	보건복지	98
		- 소비심리 증가를 위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산업경제	146
		- 건강한 공원 나들이	문화관광 체육	71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대학생 ⇔ 초·중·고등학생 1:1 학습멘토링 제도 추진	교육	51
		- 코로나 진정세이후 학생들의 개학 등교시 코로나 접촉위험의 최소화와 학교생활 내에서의 예방습관	안전	-
		-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보건복지	102
		- 각 지역별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용한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 방안	산업경제	147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대학생 취업	고용노동	188
		- 대학생 긴급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아르바이트 제도 마련	고용노동	189
		- 독거노인문제 –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자	보건복지	103
4	4주차	-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및 금융지원 원스톱서비스!	산업경제	152
		- 마스크 및 미니 손 소독제 자판기 아이디어 제안	보건복지	104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지역 농수산품 긴급 판매 장터 개설 제안	농림수산	125
		- 마스크 은행	보건복지	105
		- 떴다, 셀럽! 우리 동네 상권을 유명인이 추천합니다	산업경제	154
		- Covid-19에 대응해 음식점 메뉴판/각종 지도 등을 Hologram으로	환경	91
		- 코로나19 청년정책 지원확대 방안	고용노동	191
		- 이장, 통장 수당 일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산업경제	155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료 한시적 인하 정책 추진	산업경제	156
		- 자동 소독시스템 탑재 무인주문기계	안전	32
5	5주차	- 온라인 개학 시 한시적 공부도우미 유급봉사자 배치	교육	53
		- 전통시장, 공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배달시스템 도입)	산업경제	161
		- 초, 중, 고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금 활용방법	교육	54
		- 장난감 대여 배달서비스	보건복지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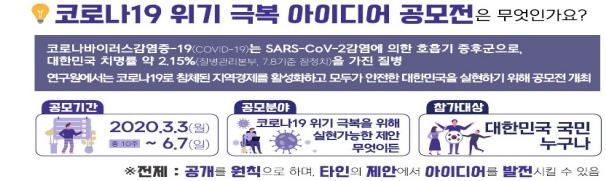
No.	구분	주요 내용	분야	쪽수
		- 우리 동네 상권지원 방안	산업경제	162
		- 식당 마스크 걸이	보건복지	106
		- 지병이 있는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 중 진료와 약 처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	107
		- 관광안내소에서 각 지역화폐 선불카드 대여(관광용)	문화관광 체육	72
		- 긴급재난지원금 조기사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이벤트 실시	산업경제	163
		- 전염병에 대한 바른 예방 방법과 증후군에 대한 빅데이터화	안전	34
6	6주차	- 학교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	56
		- 농업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방안	농림수산	127
		- 식당을 빌려주세요. 도시락을 만들겠습니다.	산업경제	166
		-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물품 빅데이터 수요자 연결 시스템으로 필요한 물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방안	보건복지	108
		- 지역 전통시장 중앙부분 고객 공용 카페 설치	산업경제	167
		-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교육업계 종사자들의 코로나19로 생긴 돌봄 공백 해소	고용노동	194
		- 코로나로 인한 직업 박람회 취소를 청년 주말 직업 상담 제도로 해결	고용노동	196
		- 클럽 등 유흥시설 체크인/체크아웃 관리 및 위치기반 contact-tracing 어플	안전	36
		- 이번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더 힘들어진 분들에게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제안합니다.	고용노동	199
		-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 근로 지원 사업	고용노동	200
7	7주차	- 스포츠 리그 무관중 경기 제도 완화	문화관광 체육	-
		- 나의 코로나19 대응 점수는?	문화관광 체육	76
		- 이모티콘 공모전 = 사회적 거리 유지 + 희망찬 안부 + 예술인 활동 격려	산업경제	170
		- 도서대여 예약제 실시 & 중, 고등, 대학생 봉사시간 제공	교육	57

No.	구분	주요 내용	분야	쪽수
		- 가족 간의 마스크 구별(표식)	안전	38
		-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 치료 프로그램	보건복지	113
		- 일자리 개선 아이디어, 지하철 노인 택배 시스템 이용 개선 아이디어	고용노동	201
		- 식당 마스크 사용 규정 및 상시착용마스크 안전업소 스티커 배부	안전	39
		- 온라인 지역 축제, 장터 개최	산업경제	171
		- 영화관을 활용한 대학 강의, 학술/민간행사의 안전한 개최 장려로 극장업계의 자율적 민간회생지원	문화관광 체육	78
8	8주차	- 코로나 위기에 따른 빈병보조금 등 자원순환 장려금 한시적 인상	환경	92
		- VR 네트워크 강화 및 체계적 드론 운영 시스템 확대	산업경제	175
		- '이래도 운동 안 할 거야?' 생활 속 운동하기 프로젝트	문화관광 체육	80
		-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학생 연계 프로그램	교육	58
		- SNS D.I.Y 경진대회	문화관광 체육	81
		- '골목시장' 어플	산업경제	177
		- 국가차원의 온라인 자기계발 지원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프로젝트	문화관광 체육	82
		- 코로나19 특별 소통 사이트	보건복지	116
		- 코로나19 실업 및 자영업자 지원	고용노동	204
		- 아무나 하는 팜 플렉서!!	농림수산	129
9	9주차	- 아파트 건설시 집콕 생활자들을 위한 홈 가드닝 설치하기(더불어 미세먼지 방지 효과)	환경	93
		- 정부차원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관광업계 활성화	문화관광 체육	84
		- 코로나로 맞은 도시패션제조업의 위기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제품 생산 일감의 제공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고용노동	206
		-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제안	교육	59
		- '발'로 실천하는 생활방역 - '손' 대신 '발'로 해주세요	안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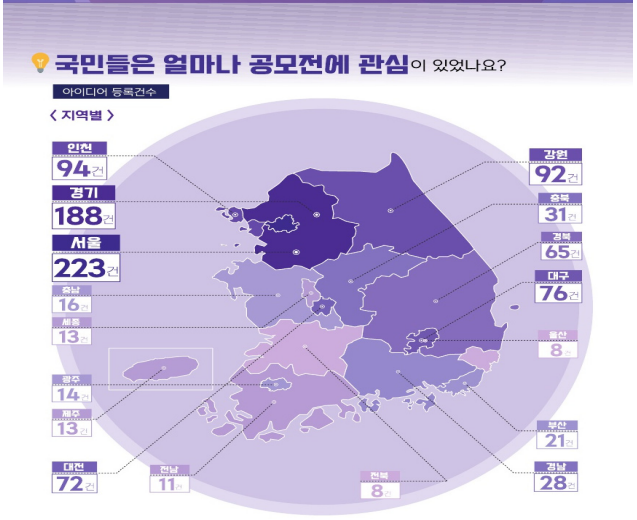
No.	구분	주요 내용	분야	쪽수
		- 키덜트 문화를 노인들에게도 알려서 새로운 취미활동을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키덜트 관련 사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을 노인복지사업과 연계시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립시다	문화관광 체육	86
		-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바우처' 서비스 시행	보건복지	117
		-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나 완치자를 인터뷰하고 증상 경험을 담은 영상을 배포합시다.	안전	43
		- 드라이브 스루 장례	안전	44
		- 실내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대여 체계	문화관광 체육	87
10	10주차	- 쿠팡, 마켓컬리 물류업계의 코로나19 확산 해결 방안	산업경제	178
		- '안녕, 두려움' TV 프로그램 기획서	문화관광 체육	88
		- 랜선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산업경제	180
		- 코로나19 속 교육혁신 : 성인학습 혁신을 위한 온라인 경력개발 학습 플랫폼 구축	교육	62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점 밀키트(meal kit)	산업경제	182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산업경제	184
		- 코로나 블루 극복을 도와주는 챗봇 만들기	보건복지	120
		- 교통운수업계 코로나 대응 아이디어	산업경제	186
		- 전국 코로나 지원 정책 및 사업 원스탑 확인/신청 플랫폼 개설 운영	공공행정	27
		- 전국 예술문화업계의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문화관광 체육	90

4 공모전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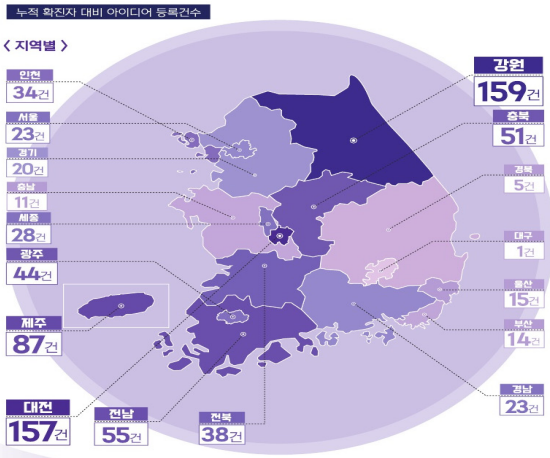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국민들의 생각을 묻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은 무엇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대한민국 치명률 약 2.15%(질병관리본부, 7.8기준 잠정치)을 가진 질병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공모전 개최
공모기간
2020.3.3(월) ~ 6.7(일)
총 10주
공모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현가능한 제안 무엇이든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제 :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의 제안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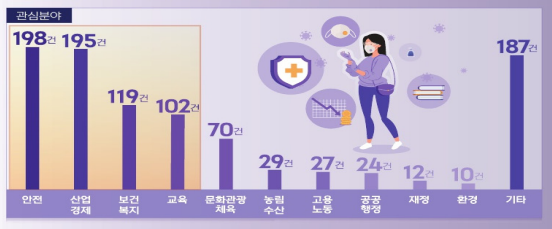
공모전 결과 및 분석
총 10주간
대한민국 국민
약 973건 등록
(중복 및 기간 미준수 제외)
매주
우수제안 3편
희망제안 10편 선정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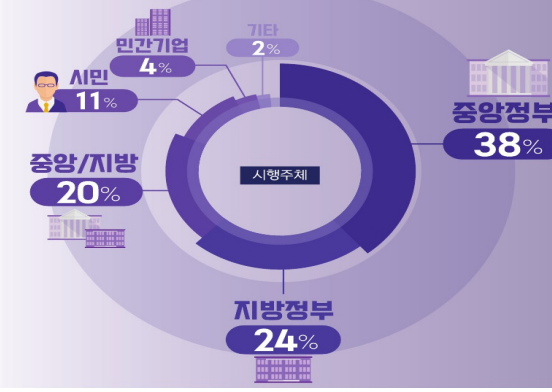

국민들은 얼마나 공모전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이디어 등록건수
〈 지역별 〉
인천 94건
경기 188건
서울 223건
강원 92건
충북 31건
경북 65건
대구 76건
울산 8건
부산 21건
경남 28건
대전 72건
전남 11건
전북 8건
광주 14건
제주 13건
세종 13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명 당 국민들은 공모전에 얼마나 참여하였나요? (2020.6.7. 00시 기준)



국민들은 어떤 분야, 무엇에 관심이 많았나요?





Top 5

총 10주간 **언급률** ·마스크, 지역, 사람, 생각, 사회

우수제안 ·각 주차별 우수제안 중 랜덤 추출

1주차 · 데이터 트래픽 분석을 통한 밀집 지역 경고

2주차 · 지역 주도의 공공배달서비스정책

3주차 · 급식용 식자재 구매를 통한 기부 및 소외 계층 도시락 제공

4주차 · 굿굿즈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활성화 제안

5주차 · 긴급재난지원금 내고향 기부

6주차 · 지역 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의 한시적 사용처 확대방안

7주차 · 결혼식 식권 대신 농산물 꾸러미 캠페인

8주차 · 코로나 Option (니캉 내캉 한 배를 탔다 아이가?)

9주차 · 체온에 반응하여 색상이 변하는 마스크 코 지지대

10주차 ·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후 케어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적거리두기
#공적마스크 #질병관리본부 #위기극복 #제안

국민들의 구체적인 제안 및 공모전의 결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rila.re.kr/customer/request/people/suggest)

[내용문의]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센터장, 033-769-9879, sungmanjun@krila.re.kr)
안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033-769-9837, clematis15@krila.re.kr)
박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033-769-9836, pjh0703@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우수희망 아이디어 내용 분석

☐ 수단 및 공급방식 내용 분석

- 아이디어 등록건수 : 130건

정책수단		정책수단(소)		분야		시행주체		공급전달주체		수혜대상	
구분	등록건수(건)	구분	등록건수(건)	구분	등록건수(건)	구분	등록건수(건)	구분	등록건수(건)	구분	등록건수(건)
간접수단	83	계약	25	산업경제	37	지방정부	44	공공기관	62	국민	72
직접수단	47	서비스	23	보건복지	21	중앙정부	41	일반국민	25	소상공인	23
		보조금	18	문화관광체육	17	중앙/지방	35	분야종사자	24	취약계층	16
		캠페인	18	안전	17	민간	5	앱	13	학생	13
		사회적규제	14	교육	13	국민	3	학생	6	농축산업종사자	3
		정보제공	7	고용노동	10	중앙/민간	1			민간기업	2
		조직구축	7	농림수산	6	중앙/시민	1			청년	1
		규제완화	5	공공행정	3						
		조세지출	5	재정	3						
		규제강화	4	환경	3						
		바우처	4								

☐ 키워드 분석 내용

• TOP5 언급률 : 지역, 사람, 필요, 지원, 제공

No.	키워드	빈도
1	지역	202
2	사람	195
3	필요	180
4	지원	167
5	제공	149
6	기부	139
7	사회	138
8	가능	137
9	마스크	136
10	교육	128
11	물품	123
12	택배	120
13	시간	118
14	공인	116
15	소상	115
16	사용	114
17	상황	108
18	생각	108
19	경제	106
20	시장	106

동사 및 형용사 분석

동사 및 형용사 분석

긍정

부정

II.

우수 및 희망 아이디어 사례

1. 공공행정
2. 안전
3. 교육
4. 문화·관광·체육
5. 환경
6. 보건복지
7. 농림수산
8. 산업경제
9. 고용노동
10. 재정

분야	우수 아이디어	희망 아이디어	합계
공공행정	1	2	3
안전	4	11	15
교육	3	10	13
문화·관광·체육	1	15	16
환경	-	3	3
보건복지	5	16	21
농림수산	2	4	6
산업경제	11	26	37
고용노동	-	10	10
재정	2	1	3
합계	29	98	127

※ 일부 우수 및 희망제안은 '공모전 수상작 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비동의하여 제외하였음.

1 공공행정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사용한 마스크 버리기 개선 방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매일 매일 엄청난 수량의 마스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로, 사용이 끝난 마스크가 일부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서 환경오염 및 2차 감염의 우려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길에 버려진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감염의 위험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쉽게 손대기 어려워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했을 때, 사고자 하는 마스크 수량만큼 사용이 끝난 마스크를 제출해야 한다면, 함부로 버려지는 마스크 양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분리수거 또한 용이할 것입니다.
물론, 수거를 담당하는 곳에 혜택 또는 일부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분류	9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취약계층
제목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을 위한 지역 숙박시설 대여 서비스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들과 국내 코로나19 의심 대상자들은 대부분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당함.
- 자가격리 시에는 타인과 접촉이 제한되며, 이 때문에 보통 격리자의 가족들은 2주 동안 안심숙소에 머물거나 다른 집에서 생활을 함.
- 국가에서 호텔과 협약해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가 많지 않고, 직장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가 더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숙박업소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제안내용]

- 지역의 숙박업소는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숙박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 제공된 숙박시설은 지역의 안심숙소로써 작용함.
-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숙박업소는 세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조직구축-국민
제목	전국 코로나 지원 정책 및 사업 원스탑 확인/신청 플랫폼 개설 운영		

1. 제안배경

-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정책 난립
- 정보의 부재 및 접속 과다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 어르신 등의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한 문제의 지속적 발생
- 지원 주체 및 대상, 정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신청방식 등으로 인한 혼란과 번거로움 및 시간 등 사회적 비용 증가

2. 제안내용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코로나 지원 사업 주체들의 사업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함(실직, 무급휴직, 프리랜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가격리 등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른 지원신청 및 2차 재난소득 지급 시행 시 대비).
- 사는 지역, 직업, 현 상황, 연령대 등에 따른 기초적인 정보 입력으로 해당되는 지원사업을 모두 확인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공적기관뿐 아니라 민간재단, 기금, 은행 등의 다양한 민간주체의 지원 사업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및 신청 증가가 가능하도록 함.

3. 기대효과

-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적절한 때에 빠르게 인지하고, 확인 및 접수하여 빠른 수혜가 가능하도록 함(빠른 신청과 빠른 수혜로 사업들의 사회적 목표 효과 증대).
- 다양한 지원 주체와 사업 방식, 신청방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과 번거로움 해소
- 코로나 지원 사업 및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전 국민이 접속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적 편차를 경감하는 데에 도움
- 사업 주체 및 기관 등의 상황에 의해 오프라인 및 불안정한 접수서버 등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공공플랫폼으로 이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신청 폭주로 인한 다운 방지,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접수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서 정책 주체들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

2 안전

분류	1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정보제공-국민
제목	데이터 트래픽 분석을 통한 밀집 지역 경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외출 시에 무조건 휴대폰을 챙기기 때문에 통신사 차원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조회하여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상주 지역이 아닌 유동 지역으로서 종교 활동, 집회, 모임 활동) 발생 시 문자 발송과 함께 유사시 피드백 제공 가능. 통계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방역 물품을 공급하거나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

ex) 공시되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외출 시에 무조건 휴대폰을 챙기기 때문에 통신사 차원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조회하여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상주지역이 아닌 유동 지역으로서 종교 활동, 집회, 모임 활동) 발생 시 문자 발송과 함께 유사시 피드백 제공 가능.

ex) 공시되지 아니한 집회, 종교 활동 시 빠른 대처 혹은 경고 가능, 출퇴근 혹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밀집 발생 시 경고를 통한 경각심 고취.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벚꽃 놀이 등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경고 혹은 물자/인력 파견으로 혼란을 막을 수 있음(해산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직접 구두 경고를 하거나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의 빠른 소진을 대비해 추가 보급).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출퇴근 의무적 시차제의 한시적 운용		

현재 재택근무, 유연근무 다 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회사원을 포함하여 직장인 출근 의무 시차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 전철, 버스 등의 혼잡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은 09:00~18:00을 정상적 출근으로 보았을 때 회사원을 4개조로 나누어,
1조: 07:00 출근, 16:00 퇴근
2조: 08:00 출근, 17:00 퇴근
3조: 09:00 출근, 18:00 퇴근
4조: 10:00 출근, 20:00 퇴근

장점은
1. 공공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소수의 아이들이 맡겨져 있으므로 어린이 집에서 귀가시킬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집이 가까운 사람은 출근을 일찍 하고, 먼 사람은 출근을 늦게 하여 퇴근의 편의성을 기할 수 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것이 버스와 전철의 혼잡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적은 인원이 있는 곳은 시차 3부제, 많은 인원은 시차 5부제 등 각각의 회사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다.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규제강화-국민
제목	전염병 확산 방지 및 보완을 위한 출입문 및 승강기 QR코드 도입		

최근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접촉 및 위생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외식업체, 건물 등 많은 곳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독 시간 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모든 곳을 소독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범죄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신림동 원룸 침입사건 등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가 멀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처럼 1인 가구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거나 또는 목격자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과 사는 가구보다 불안함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현관 출입문에 QR코드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혹은 다가구 출입 시 키패드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는 거주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QR코드를 발급하여 직접 손으로 입력 하는 키패드 대신 1층 현관 출입문에 QR코드 리더기를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을 뿐 아니라 보완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현관문의 비밀번호 형식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들도 출입이 쉽습니다.
만약 QR코드를 대입을 한다면 1층에서 건물에 들어갈 때 1차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에서입니다.
승강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눌러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층을 입력하여 QR코드 리더기가 읽어 원하는 층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는 위생적인 부분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적 측면에서는 만일 1층에서 문이 닫히기 전에 범죄자가 피해자의 뒤를 밟는다면, 아무나 엘리베이터 층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미리 감지하여 빨리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가격리자의 효율적인 격리 및 관리 방안 (전자팔찌 대안)		

현재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이 이슈화되면서 전자팔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힘을 얻을 정도로 완전한 격리와 실시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관리책이 될 수 있지만, 성범죄자가 착용하는 것이었다는 인식과 개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식사를 하다가, tv를 보다가 무의식중에 쳐다본 손목에 감시용 팔찌가 채워져 있다면, 신체적 불편함을 떠나 심리적인 제약과 압박을 상당이 느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관리와 심리적 스트레스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떠올린 아이디어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되, 신체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목 대신 현관문에 기기를 부착하자는 점입니다. 모든 집은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다른 넓이와 물건들이 있겠지만, 현관문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경고를 부여해주는 방식(문이 열린다 = 외출, 혹은 배달 두 가지 경우이므로)으로 개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랜덤하게 연락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문이 열릴 때마다 연락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간접 접촉이 일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린다 = 외부와의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이 배달원으로부터 간접 감염이 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민간기업-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자동 소독시스템 탑재 무인주문기계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예방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커진 실정임. 비말 혹은 에어로졸 감염 이외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으로 다양한 집기를 통한 감염이 제시되고 있음.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주문기 사용이 현저히 늘어난 요즘, 식당가와 카페 등에서 이용되는 무인주문시스템 기계를 통한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식당가에서 사용하는 만큼 위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무인주문기에서 사람의 대변균 등 각종 균이 검출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로 미루어 볼 때, 집기를 통해 감염이 가능한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 예방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제안내용

위와 같은 무인주문기의 위생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주문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무인주문기계를 고안해 보았음.
쉽게 말해서, 손 소독을 해야만 무인주문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손 소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바 있음.
따라서 주문 시작 버튼 대신 손 소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메뉴 주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프로그래밍하여 기존의 무인주문기계에 손 소독기를 연결하거나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
간단히 좀 더 설명하자면, 자동 손 소독기계의 센서와 무인주문시스템을 연결한 후 소독이 완료되면 1을, 완료되지 않으면 0이라는 정보를 주문기계에 전송하여 1이란 정보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구현하는 이진법 형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기대효과

손 소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 있음.
따라서 앞서 고안한 무인주문시스템은 집기로 인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기대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 예방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위생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이전부터 여러 가지 균 검출로 문제가 있었던 무인주문기계의 위생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요즘 손 소독제를 가게 입구에 비치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적인 사항이기에 손 소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음.
실제로 가게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손 소독제 사용 비율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이러한 손 소독을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의 집기를 통한 감염예방 및 위생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정보제공-국민
제목	전염병에 대한 바른 예방 방법과 증후군에 대한 빅데이터화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번 코로나에 대해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마스크 쓰기 및 거리두기에 대한 동참으로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전염병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안전 불감증 같은 사람들에겐 더욱 더 체계화된 수치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담배가 폐암이나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전염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계화된 데이터를 누적하여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체계화된 질병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증상이 진짜 코로나인지 좀 더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내용]

현재 전염병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에는 쉽게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막상 사람들은 누군가와 만나거나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음식점에서의 집단 감염과 같은 큰 문제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가 위험한지에 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힘들 수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가장 의심되는 곳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서 나온 예상 데이터 값이

예상하는 데이터 값

- 카페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걸리는 경우 : ××%
- 직장에서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 ××%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전염되는 경우 : ××%

등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에 대한 경로를 상기시켜 준다. 현재에도 카페에서나 음식점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공간에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 모두 평소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바른 예방법과는 다르게 전염병에 대한 증상이 다양할 경우 이 경우에 대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 무증상 및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코로나 진단 테스트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확진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며 그중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를 중복으로 계산하여 데이터화한다면 혹시나 나도(?)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무증상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되는지도 자세히 찾아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일반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데이터 값(가상)
- 기침 ××%
- 발열 ××%(몇 도 이상)
- 복통 ××%
- 가려움증 ××%
- 무증상 ××%

1) 전염병에 대한 접근경로를 알려주면서 이러한 행동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2) 전염병 증상에 대한 데이터화로 '난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줄여줄 수 있는 수치화한 데이터 값

[기대효과]

이번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민성을 볼 수 있었다. 단합된 시민의식과 발 빠른 대처능력으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합된 시민의식으로 항상 예방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생각치도 못하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며(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말라가 아닌, 이러한 위험도 존재) 더욱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이런 전염병이 큰 증상만 쉽게 기억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전염병 환자들에게 더욱 체계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혹시 나도 전염병일 수 있나?"에 대한 의문에 대한 간편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클럽 등 유흥시설 체크인/체크아웃 관리 및 위치기반 contact-tracing 어플		

1. 제안배경 및 현황

- 생활방역 전환 후 2차 감염 속출. 최근 이태원 클럽들을 방문한 용인 확진자로 인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접촉자 추적에 어려움 예상됨.
- 클럽과 유흥업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이는 방문자들(대학생, 직장인, 의료진 등)의 급증
- 클럽 다중 집합 업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유흥시설 특성상 다른 방문자들이 개인 신분 노출을 꺼려해 허위로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접촉자 파악 곤란
- 한편, 클럽 등 유흥업소들도 영업 자체에 대한 전면금지 등의 강력조치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와 직결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블루 등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기능도 일부 있어 장기적으로는 영업의 전면금지보다는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2. 제안내용

-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다수가 모이는 실내 공공장소에 입장하기 전 출입 여부를 체크하는 어플 개발 및 업장 영업 시 의무화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앱 개발 및 관리하여 개인 정보 보호 기능 강화
- 개인 정보는 앱 설치 시 한 번만 등록하고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앱으로 출입 요청을 하면 시설 측에서 앱이나 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수락을 하는 방식(퇴장 시에도 동일)
- 어플을 통해 위치추적과 동선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클럽 등 유흥업소는 밤늦은 시간 음주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진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위치추적 가능한 어플이 효과적으로 동선 파악을 함.
- 클럽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을 초단위로 추적할 수 있고, 당일 재방문 등 여러 차례 출입/퇴장이 있는 경우도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방문업소 방문자를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동선 파악 및 접촉추적 가능

3. 기대효과

- 앱에 출입/퇴장 기록이 남아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 파악 용이
- 개인 정보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만 제공되므로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우려 감소
- 출입자 확인 여부가 용이하므로 시설 폐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계속 운영 가능
- 이태원 클럽과 같이 외국인들 또는 관광객들의 방문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국내 전화 연락처가 없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방식처럼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접촉자 추적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휴대폰 자체 어플로 추적하는 경우 국내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휴대폰은 모든

사람이 소지하므로 추적 데이터 상 missing observation이 생기지 않음.
- 코로나블루나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 등 젊은 세대들의 불만족과 욕구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면서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가능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앱 구축 개발에 전문 인력 필요
- 앱 개발 관련 기업이나 개인의 재능 기부를 받거나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여 개발에 참여 유도
- 개인 및 업소 측의 참여를 대대적으로 장려 및 권고 필요
- 어플 설치를 꺼려하거나 클럽 퇴실 이후 어플 삭제하는 경우 위치추적이 어려울 수 있음. 해결방안으로 어플 설치가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개인정보 관리하므로 더 안전하고 악용 가능성 적다는 것을 홍보. 어플 삭제 시 우선 추적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클럽 퇴장 후에도 어플 삭제 안 하도록 유도 가능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캠페인-국민
제목	가족 간의 마스크 구별(표식)		

한동안 마스크가 부족하고, 구하기 어려웠던 만큼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 마스크에 표시 가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마스크가 섞이는 경우도 생겨서 곤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본인마스크에 표시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 마스크 매듭/마스크 길이를 조절하는 마스크 매듭에 모양을 주어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매듭 모양, 매듭의 길이 등을 활용하여 구별하는 방법

2) 마스크 컬러/전체적인 마스크 컬러를 바꾸는 것이 아닌 마스크의 정해진 위치에 컬러를 각자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족끼리의 컬러만 다르더라도 마스크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스크 포장지 겉면에 서로 다른 마스크 컬러를 표기하여 가정에서 가족끼리 다른 마스크 컬러를 이용한다면 서로 마스크를 공유하는 등의 문제가 적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3) 마스크 보관/마스크를 이용한 뒤에 보관할 때, 보관되는 모습을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접어서 보관할 때, 간단한 종이접기처럼 여러 모양으로 접혀 구별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4) 마스크 사인/마스크에 여러 모양의 마크 등을 찍어 구별합니다.
   눌러진 마크, 표시를 이용하여 구별한다면 쉽게 자신의 마스크를 찾고, 알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수로 인해 가족끼리의 전파 방지 등을 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한 접촉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단한 구별 방식을 통하여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식당 마스크 사용 규정 및 상시착용마스크 안전업소 스티커 배부		

제안배경

코로나19는 비말 및 공기 중 전파감염이다 보니 모든 생활에서 마스크는 필수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곳이 식사하는 식당입니다.
식당은 식사를 하기 위해선 불가역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종업원과 요리하는 주방장들의 마스크 사용이 요즘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불편함과 마스크 구매 비용의 부담으로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내용

- 위생관련법적으로 요리를 담당하는 주방장의 마스크 사용을 규정하고, 비말법정전염병 유행 시 종업원들의 마스크 사용을 규정한다.
-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마스크 상시착용으로 구매하는 지출비용은 부담되기에 소상공인 마스크 지원책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달에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인원 1인당 기준 20장을 지원한다(주5일 근무 가정 하 5일×4주).
- 마스크 상시착용 스티커 배부로 식당의 불안감이 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게 한다.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서 마스크는 동반자처럼 뗄 수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식당의 마스크 사용이 위생법으로 규정하여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마스크 상시착용 스티커를 보며 안심하고 방문하게 되어 불안감을 떨치다보면 자연스레 식당 자영업들의 위생도 올라가고 고객들의 접근 방문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분류	8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지자체 코로나 우수 대응 사례 모집 및 화상 시상식 개최		

[제안배경]

-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전염병에 대한 지자체 등 대응 사례 공유 시급
- 추후 또 다른 전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다양한 대응 사례 및 지자체 정보 공유 요구

[내용]

- 지자체에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 우수 대응 사례 모집/선별 및 화상 시상식 개최
- 정부의 화상 시상식을 통해 실제 사례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 공유 가능

[기대효과]

- 추가 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 및 국민들의 신속한 대응 및 대처 가능
- 추가 전염병이 발생해도 지자체의 노력과 올바른 대처 사례를 보며, 국민들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음.

분류	9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민간기업-서비스-국민
제목	체온에 반응하여 색상이 변하는 마스크 코 지지대		

1. 제안배경

무증상 확진자의 증가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확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검사를 받고, 타인들은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제안내용 및 기대효과

-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반지가 있음. 이 원리를 적용하여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마스크 코 지지대를 사용
- 마스크 착용자와 타인들이 고체온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는 체온이 높은 것 외의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검사를 받아봄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확산자가 되는 것을 방지
- 타인들은 무증상 확진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둠으로써 감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서비스-국민
제목	'발'로 실천하는 생활방역 - '손' 대신 '발'로 해주세요		

[제안배경]

-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접촉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아무리 접촉을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
- 손잡이, 자동문 버튼, 엘리베이터 버튼 등 아무리 매일 소독을 하고 항균패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 얼마나 소독이 되는지의 여부나 항균패드의 경우 얼마나 자주 교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음
-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 접촉 노출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내용]

- 손으로 누르는 버튼 대신 발로 누르는 버튼으로 대체
- 손을 사용해야 하는 버튼을 바닥 쪽으로 옮겨 발로 누를 수 있도록 함.
- 층수가 많은 건물의 엘리베이터인 경우 층수 선택을 위/아래 스위치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함.

[기대효과]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접촉 위험도가 낮아짐 -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예방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서비스-국민
제목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나 완치자를 인터뷰하고 증상 경험을 담은 영상을 배포합시다.		

[주장]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염병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위해 코로나를 겪었던 확진자 혹은 완치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합시다.

[이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를 낳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확진자도 점차 줄어드는 바람에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이 마스크나 위생에 대한 태도가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답답한 마스크를 직장, 학교에서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착용하지 않고, 손소독제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코로나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마련입니다. 많은 알람과 방송으로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증상에 따른 통증, 위험성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를 직접 겪었던 사람을 인터뷰하고 증상에 대한 이야기,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촬영하여 배포하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이 병이 얼마나 아프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고 그 통증을 겪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한 영상에서 코로나 완치자가 겪었던 통증을 다룬 영상을 봤었고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된 후 마스크와 위생을 더욱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저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결과]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위생과 마스크를 더욱 챙기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을 대처하기도 쉬워질 것입니다.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드라이브 스루 장례		

아이디어 제안 동기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례식은 감염 위험으로 치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조문을 받지 못하는 추세이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일본에서 먼저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을 참고하여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을 만들어 2차 감염의 위험은 줄이고, 고인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인을 추모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이러스의 유행은 불가피하며 현대사회의 변화에 앞장서 한국에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세부 설명

- 드라이브 스루 기술을 도입하여 장례식을 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을 도입하여 고인을 보내는 길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고 슬픔을 나눈다는 기존 장례식의 의미를 따라 충분히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기술 현황 및 조사내용) 일본의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의 경우 조문객은 태블릿 PC에 성명을 기입하고 장례식장 안에서 상주는 모니터로 방문한 조문객 얼굴을 확인한다. 조문객은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보인 창문에 정차한 후 조의금을 내고 향을 피운다. 다음은 각자의 종교, 관습대로 애도를 표한 후 장례식장을 떠난다.
- 적용 방안 및 활용방안: 일본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조문객들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진행 접수대에 비치된 태블릿 pc의 터치스크린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고 유가족들은 모니터로 조문객을 확인한다. 조문객은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보인 창문에 정차한 후 조의금을 내고 향을 피운다. 다음은 각자의 종교, 관습대로 애도를 표한 후 장례식장을 떠난다. 벤치마킹한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은 일본의 절차를 따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된 후에도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장례업체를 지원하여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이 지속되게 하고 기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기일을 유가족들이 잊지 않고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 구체적 활용
  - 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 장소 지원(아이디어 지역은 서울시, 대구시, 부산광역시)
  - 약 5층 정도의 건물을 세워 1층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 장소, 2층 유족들 공간, 3층~5층 납골당 장소로 활용
  - 정부와 민간장례업체의 협업으로 일반 장례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장례비용을 70% 지원
  - 간편한 장례 절차로 복잡한 장례 절차를 원하지 않는 상주들이 활용

- 예상 비용: 음식은 필요하지 않고, 조문객 수는 비용이 들지 않아 약 300만원~500만원으로 예상
- 결론: 단기적으로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바쁜 현대사회에 맞게 이용한다.

기대효과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기대효과는 첫 번째로 바이러스감염이 방지된다. 차안에서 조문하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2차 감염 방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령자,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드라이브 스루방식이면 빈소에 가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세 번째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조문을 할 수 있다. 장례식은 점심이나 이른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바쁜 사람들은 오기 힘들어 상복을 갈아입는 시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로 기존 장례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코로나19 이후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큰 규모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식을 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상객 간 종교적 갈등이 완화된다. 서로 다른 종교 신념으로 조의 방법이 달라 겪는 종교적 갈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류	10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서비스-취약계층
제목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후 케어 시스템 구축		

문제점 1) 완치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문제점 2) 완치 후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사회복귀에 지장이 따름.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우수하게 통제해 왔으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 공개로 인해 완치자의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부 완치자는 낙인효과로 인해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생존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생존자의 54%는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겪은 걸로 나타났으며,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27.0%는 우울증이 있었다. 또한 22.2%는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28%는 불면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생존자들은 감염자에 대한 사회의 낙인을 높게 인지할수록, 그리고 감염 당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도가 높아졌다. 감염의 심각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연구진은 감염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감염병 사태에서 불안감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정신적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정환 기자, 「메르스 생존자 절반 이상 1년 후에도 정신건강에 문제」, 『의협신문』, 2020.6.1, http://www.doctorsnews.co.kr)

제안내용

1) 확진자의 완치가 확정되면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인터넷 방역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 거주민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전국의 완치자에 대한 낙인효과 및 개인 정보 침해를 예방한다.
2) 완치자에 대한 기사 및 SNS 게시글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제정한다. 인터넷 방역단을 통해 개인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완치자 관련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등록된다면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
3) 완치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 완치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치료 실시
   - 완치자를 감염병 확진의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할 경우,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 완치자가 확진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사회 복귀 지원금을 지원한다.
4) 확진자의 치료 시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심리적으로 지지한다. 감염병 사태에서 불안감을 해소하여 완치 후 정신적인 후유증을 해소한다.

기대효과

1) 완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낙인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
2)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다.

3) 완치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규제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4) 완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완치자들의 소비활동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3 교육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학생
제목	제안합니다.		

제안배경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초중고 개학 지연과 대학생 개강 지연 및 일부 대학에서 전면 비대면 강의 실시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초중고생에겐 교육공백, 대학생에겐 학업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여러 상황이 닥친 시국에 서로 간의 교육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생각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저는 학부생 1학년~4학년을 거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봉사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펼쳐왔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봉사를 다 나가보았으며 야자시간을 활용하여 고등 교과지도, 진로상담, 중등 자유학기제 지도, 초등 한글 및 다문화 교육을 했습니다. 이 중 몇몇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접 컨텍하여 20명 이상의 멘토 선생님들을 대표해 협의 및 진행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팀을 구성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진행했고 초중고 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 사업의 일부로 참여하였습니다. 장학재단과 과학창의재단은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지원 사업, 탈북 멘토링, 창의활동,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등 대학생과 초충고생을 직접 연계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길어지는 초등학생, 교육공백이 길어지는 중고등학생과 비대면 강의의 장기화로 대학 소재지로 떠나지 못하고 고향집에 머물러있는 대학생들을 연계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교육사업의 명목으로, 초중고생에게는 돌봄과 교육공백 해소의 명목으로 충분히 진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등은 여러 대학과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며, 그 외에도 지자체 교육청에서 개별 교육 봉사자를 매 방학마다 모집합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현재 겪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교생 실습을 위해 중학교에 나가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으로 잠깐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놀고 있는 대학생 인력들의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청년들에게 마스크 판매 자리를 제공한 것처럼 유아교육, 교육학 전공자들 위주로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심 있고 뜻있는 학생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계약-학생
제목	방과후수업 활용해주세요. 방과후 지원받는 아이들은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인 방과 후 교사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봄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신청 받아 방과 후 교사들의 수업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방과 후 교사들은 교육을 하니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돌봄 공백인 아이들은 수업시간을 받으며 돌봄 공백이 없어지니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교과목 수업인 방과 후 과목들은 인터넷강의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활동하는 방과 후 교사들은 택배 패키지로,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가정 아이들은 방과후비를 연간 60만원 지원을 받는데, 현재 코로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쌓이면 연말에 사용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지원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놀기만 하고 있으니, 인터넷 영상으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시면 교사들도 놀지 않고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도 집에서 택배를 받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과후 교사들이 개인별로 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지역별로 팀을 꾸려 영상+수업+택배+과제 확인 등 팀으로 운영한다면, 그들이 수익을 비록 n/1로 나누겠으나, 시간절약 및 많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콘텐츠 또한 빠르게 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개학을 해서 등교를 하게 되더라고, 방과후수업까지 다 듣는 아이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방과후 교사들이 실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얼른 영상 쪽으로 돌려 임금을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들도 교사이고, 충분히 콘텐츠 제작하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인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부에서 촬영/어플/등 조금의 지원만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류	3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보조금-학생
제목	[돌봄 공백 해소] 은퇴 교사의 원격수업 및 방문 지원 자원봉사		

1. 제안배경 및 현황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게 되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장기간 IT 기기 노출 위험, 부모 도움 없이 수업 참여가 어렵고 한글을 모르는 다문화 가정 등도 있기에 온라인 수업이 부적격한 경우가 많음.
- 교사의 세심한 보조가 특히 더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생을 위해 은퇴 교사들의 원격 수업 보조 및 방문 수업 자원봉사를 제안함.
- 은퇴 교사 등 오랜 직장생활을 했다가 고령에 정년퇴임하는 경우 사회적 관계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인해 상실감과 우울증 등의 웰빙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많아(2019년 퇴직자 설문조사 결과 30.6%가 상실감 경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부모와 자원봉사 교수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음.

2. 제안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은퇴한 교사들이 원격 수업 지도나 방문 지도를 통해 1:1로 온라인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주는 자원봉사 실시
- 매칭 어플이나 잡코리아 등 취업 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 도입

3. 기대효과

-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일방적인 강의 청강이나 학습지 풀이만으로는 습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
- 1:1 맞춤형으로 세심한 학생 개별 지도가 가능
- 은퇴 교사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학습 지도가 가능
-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전문직 퇴직자를 사회복지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하며, 방문교육 수요를 충당하면서도 고령자인 은퇴 교사의 퇴직 후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원격 지원 시 안정적인 화상 대화를 위한 장비와 여건 마련이 요구됨.
- 방문 지원 시 교통비 등 교사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여 소정의 비용 발생
- 교사에 따라 원격 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
- 상기의 문제점들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기존의 시행 정책을 다양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학생
제목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대학생 ⇔ 초·중·고등학생 1:1 학습멘토링 제도 추진		

□ 목표

대학생 학습 멘토와 초·중·고등학생을 1:1로 매칭시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최소화 및 학교수업 원활화·정상화 추진

□ 추진배경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초중고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 조손가정 등에서 어려움 토로
4. 1. 기준 중3, 고3부터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출석, 숙제, 평가 등 원격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학생 홀로 소화하기는 힘든 실정

〈참고〉 전국 개학예정 현황
- 4. 1. 고3, 중3
- 4. 16. 고등 1~2, 중학 1~2, 초등 4~6
- 4. 20. 초등 1~3

⇒ 대학생 또는 휴학생(사범대, 교육대생 우선선발)을 초, 중, 고등학생과 1:1 학습 멘토로 매칭시켜 학생에게는 학습 멘토를 통한 학교수업 정상화 도움 제공 및 대학생 멘토에게는 건전한 사회 체험, 경험 및 학자금 마련의 기회 제공

□ 추진개요기간

개학 및 학교수업 정상화시까지
- 가능할 시, 학교수업 정상화 이후에도 운영 가능하도록 추진 장소: 초, 중, 고등학생의 집 또는 도서관, 공부방 등
- 대면 시 코로나19 검진서 제출 등으로 관리 철저 ⇒ 학부모, 학생이 대면 멘토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대면(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1:1 학습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내용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대학생(사범대, 교육대 우선선발)들과 초, 중, 고등학생들을 지역별로 1:1로 매칭

⇒ 출결, 수업, 숙제, 테스트 등 학습도움 제공(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우선 지도), 대학생 멘토 혜택 제공
  - 멘토링 활동비 지원(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 실비 지급(교육부 내부방침에 의함))
  - 한국행정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 또는 활동확인서 발급

□ **세부 추진계획(추진방법)**

각 지자체에서 대학생 1:1 멘토링 원하는 가정
- 수요조사: ~4월 30일까지. 대학생 멘토 지원: ~5월 1일까지
- 사범대, 교육대생 우선 선발
- 2주간 해외 방문이력 및 의심 증상 없어야 함(검체 결과 제출). 대학생 ↔ 학부모 우선 연결
- 학부모 입회하에 대학생과 상견례, 동일성별 매칭 원칙 학부모가 최종 동의서 제출 시, 1:1 학습 멘토링 시작 온라인 원격수업 참석 보조, 숙제 도움 등

□ **기타**

세부 추진내용은 제도가 채택되면 추후 세부 논의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보조금-학생
제목	온라인 개학 시 한시적 공부도우미 유급봉사자 배치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로 늦게 개학할 뿐 아니라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수업방식은 소통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이해도에 따라 속도를 느리게 혹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학생 수가 많은 온라인 수업 상으로는 어렵다.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숙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해력이 더뎌지기 때문에 개학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가 있다.
지금은 긴급자금을 받았지만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하다.

개선방안

코로나19 온라인 개학에 한시적으로 아이들에게 국, 영, 수 등 공부 및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의 유급봉사자로 배치해 준다면 좋을 것이다.

기대효과

- 아이들에게 도우미가 붙기 때문에 부모와 선생님의 부담이 줄어들을 수 있음.
- 유급봉사이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이해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규제완화-취약계층
제목	초, 중, 고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금 활용방법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자유수강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역시 60만원~90만원까지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만큼은 차별 없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같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현재는 연60만원 책정된 곳이 많은데, 그 기준으로 볼 때 한 과목 신청하면 지원금이 남게 되고, 두 과목 신청하기는 애매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과목도 감사하지만요.... 살짝 아쉬운 점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한 학기 방과후가 개강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자유수강권 해당 학생 대부분이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능한 가구들이 많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능 대상자 학생에게는 한 학기분을 문화카드로 지원하고 문화카드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는 전자화폐로 지원하되, 문화카드와 같은 사용처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지원해주면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가 완화된 후에라도 영화, 책, 문화체험, 놀이동산 등...에 아이들을 위해 알차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면 코로나로 답답했던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분류	6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보조금-취약계층
제목	교육업계 비정규직과 학생을 소통의 창(재능기부 마일리지)을 만들어주세요.		

1.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업계 종사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있고,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유치원 등 교육업계 비정규직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으며, 언제 다시 복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이들은 수입이 0원이고, 무조건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며 앞으로의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2. 내용

학교, 유치원 등 교육업계 비정규직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의 열의와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재능기부 마일리지를 제안합니다. 학생 수와 시수를 이용하여 재능기부 마일리지를 쌓게 하여 열심히 한 강사에게는 물질적인 보상(교육재난금)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적인 세금으로 긴급재난금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유치원, 학교가 개학하면 화상 재능기부는 자동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재능기부 강사를 뽑아서(온라인 서류 및 화상면접) 줌 수업을 이용하여 1:1이나 1:N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의 정규수업이 아니라 동아리의 개념입니다. 지자체에서 동아리 온라인 접수를 받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수강을 신청하여 시간에 맞추어 들어와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깥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경우엔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관심사에 대해 화상수업으로나마 배울 수 있고, 무급휴직이나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교육종사자들에겐 활기를 찾아주고,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교육 동아리 화상 활동: 예)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과후수업 내용 연계 – 일러스트 그리기, 오카리나,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특기적성활동

3. 효과

전 국민 긴급재난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줄어들고 특수 교육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긴급재난금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못가는 경우나 모든 힘든 교육업계 비정규직이 받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또한 특수고용지원금은 한계가 있고 다른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업계 비정규직(특수고용직)들이 스스로 노력한 만큼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타인들이 불만의 요소가 줄어들 것이고, 학생들도 원하는 교육에 대한 갈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학생들과 교육업계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서로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화상 동아리 수업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규제강화-학생
제목	학교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은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학교가 개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학을 했다가 확진자가 더 나오면 어떡하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규칙"이죠.
그런데 학교는 어린이, 청소년이 다니는데 왜 규칙은 "어른"들이 정하나요?
물론 "어른들이 더 자기주장을 잘 말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이 생각이 더 넓으니까!"라고 말하시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른들보다 더 어른 같은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생각이 넓고 지혜롭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규칙이 머리에서 막 샘솟는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 말은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학교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뽑힌 규칙들을 각 학교에 각 반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도 어디 상관없이 대문짝만하게 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서비스-학생
제목	도서대여 예약제 실시 & 중, 고등, 대학생 봉사시간 제공		

우리나라에 많은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책을 구매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한 번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구입하는 경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만 있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의 이용이 많아졌는데 스마트폰 이용 대신 도서를 예약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1. 인터넷 또는 전화로 책으로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 예약
2. 도서관에서는 책을 미리 찾아놓음.
3. 직접 방문하여 바로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3-1. 주말에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여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3-2. 택배를 이용할 경우에는 착불로 대여를 진행한다.
4. 무인반납기에 책을 반납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1. 많은 초, 중, 고등, 대학교, 공공기관의 도서관에 있는 책을 활용하여 독서를 장려할 수 있다.

단점 및 대처방안

1. 도서관에서 예약된 도서를 찾을 때 사서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때, 중, 고등, 대학생의 사전 신청을 받아 봉사시간을 제공하고 사서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한다.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바우처-국민
제목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학생 연계 프로그램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연구위원이 지난달 15일 육아정책 브리프에 발간한 “코로나19 육아 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 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6.2%가 어린이집 등 휴원 기간에 낮 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 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 ‘돌봄 공백’을 겪었다고 답함.
- 단순히 학습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성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 유아교육과,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교육실습기간이 밀리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음. 이 학생들에게 화상 돌봄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사전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 자원봉사형식으로 방문 또는 화상 돌봄을 진행하고 봉사시간을 부여함.
- 기존에 존재하는 화상채팅 어플로 수업을 진행하며,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녹화하여 부적절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평가 후 봉사시간을 부여함.
-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오랜 시간 혼자 집에 있는 아동들의 활동량을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감을 덜어줌.
- 직접 실습을 하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에게는 경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실습 경험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며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약이 가능함.
- 교육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음.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계약-취약계층
제목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제안		

〈제안배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공교육의 연장선인 방과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면 강의가 불가능한 현 방과후 교육을 해결할 방안으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제안합니다.

〈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방과후 교육 강사들의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방과후 교육 강사들은 자신이 가진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영상)로 제작합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교육 소외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촬영장비 및 미디어 교육을 지원받고, 봉사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극복이 가능합니다. 방과후 강사들과 대학생들이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로 집에서도 정규 수업 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잃은 방과후 교육 강사들의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 전처럼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학 및 온라인 강의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대학생들에게 서포터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장비 및 미디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봉사시간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류	10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부처-조직구축-국민
제목	인력 공유(재능 공유)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클래스		

◆ 제안배경 및 문제점

① 실업자 및 무급휴가로 인한 유휴인력 증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와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교육, 문화, 자영업, 관광 등 사회 전반에서 실업자가 늘었으며, 무급휴가가 장기화되어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상황상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유휴인력이 증가했다.

② 이전까지는 오프라인 수업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권, 학습기회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의 장 필요: 유아, 초·중·고부터 성인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습자들이 방과후 교실의 폐쇄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수업의 미실시, 축소 실시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관이 폐쇄되거나 실습을 중단하고 있어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자격 관련 학과들은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격 취득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

◆ 제안내용: 인력 공유 온라인 플랫폼

①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업종의 유휴인력들이 자신의 전공, 업종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국 각지의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클래스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공연계에 종사하는 스태프가 강사(튜터)로서 '조명 스태프의 업무, 조명 장비 다루는 법, 현장 스태프의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플랫폼에 올리면, 그 수업을 듣고 싶은 학습자는 수강신청을 하여 듣는다.

② 인력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한다(인력 공유 플랫폼).

(1) 실업상태의 보육교사를 어린이집 폐원과 맞벌이하는 상황이 맞물려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가정과 연결해 준다.

(2) 오프라인 수업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 소규모 수업을 가능케 한다(그룹과외 형식으로 튜터와 튜티를 매칭 시켜줌).

③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 차원에서 플랫폼과 지원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한다(협력기관인증이 되어 있으면 수강료 몇 퍼센트 할인/무료).

학생들은 싼 가격에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분야의 수업을 전·현직 종사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강료가 100,000원이라고 했을 때 50,000원은 국가 지원이고 개인부담금은 50,000원이 된다.

그런데 개인이 제휴 및 협약을 맺은 어떤 기관에 속해 있다면(**학교, **시 평생학습관, **기업 등) 그 중 20,000원은 기관에서 부담하고, 정말 개인이 내야 할 부담금은 30,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④ 구체적인 실현방안 → 강사(튜터) 모집 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신청을 통해 통과한 누구나 어느 분야에 대해서든 강의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일정(몇 차시 프로그램인지, 각 차시 별로 무슨 내용을 알려줄 것인지 강의계획서)과 1차시의 영상을 미리 첨부해 심사한다.

→ 수당 지급 방식: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수에 비례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수강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플랫폼과 개인이 속해있는 교육기관(유, 초, 중, 고, 대학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이 지원협약을 맺어 개인부담금 50%도 일정비율 지원을 해서 개인학습자가 부담하는 수강료를 낮출 수 있다.

◆ 기대효과

① 학습자 차원에선 원래 쉽게 듣기 어려웠던 종류의 수업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으며, 유휴인력 차원에선 부수입 혹은 수입 창출원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② 인력 공유 온라인 플랫폼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설계의 주체를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모두, 누구나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교수와 학습자 간의 경계를 무너뜨려 평생학습 개념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시장화로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활성화를 이끈다.

③ 기존 평생 교육사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개설 신청서와 1차시 온라인 강의 영상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이후 예비강사(예비 튜터)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의 개설을 위한 설명과 조언을 제공하게 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④ 코로나 사태의 종식 이후에도 인력들의 부수입원으로, 학습자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이 다양화, 활성화되고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코로나19로 텅 빈 교실 … 방과후 강사 12만 명 월급 못 받는다, 머니투데이, 2020. 03. 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6461119614, 접속일자 2020. 05. 29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부처-조직구축-국민
제목	코로나19 속 교육혁신: 성인학습 혁신을 위한 온라인 경력개발 학습 플랫폼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고용 감소와 학습단절

1) 고용 감소에 대한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원인으로 퇴직, 실직, 휴직자의 증가는 고용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와 더불어 고령사회의 진입,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시대는 퇴직, 은퇴, 실직, 휴직 등의 문제를 우리가 당면한 이슈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했다. 퇴직과 함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직업 활동의 중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의 삶과 경력을 설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직업 활동의 중단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줄 것이며, 상황이 완화하거나 악화했을 때에도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한 기자재로 작용할 것이다.

2) 학습 콘텐츠(방식) 변화에 대한 필요성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의 학습 및 교육방식을 변화시켰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을 섞어 활용하는 혼합 형태의 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새로운 교육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개발은행(ADB, 2020)). 이에 성인학습 부문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한 학습 플랫폼의 구축은 변화하는 교육현황의 변화에 따르는 흐름이 된다.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국가별 봉쇄로 대규모 원격근무, 업무 자동화 영역 확대가 재평가되는 한편, '업무의 미래(future of work)' 출현 역시 가속화된다. 코로나19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교육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으며,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이 1차 산업혁명 속에서 탄생한 것처럼 향후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경제포럼(WEF), 2020).

2. 유사 프로그램 분석 및 고려해야 할 점

1) 유사 프로그램 분석

① 국내

- 코로나19 대응 NHI(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사례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http://sll.seoul.go.kr/)

② 영국

- 교육부, 임시해고 상태 근로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훈련 제공
- 영국 교육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통
- 영국 근로자 1/4, 코로나19 봉쇄기간 중 새로운 스킬 습득

③ 베트남
-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채널 개통

④ 인도
- 코로나 봉쇄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한 스킬 습득 향상

2) 반영할 점

① 기존에 한국의 평생학습 포털은 평생교육 6진 분류체계에서 인문교양(건강 상식, 기능적 소양, 인문학적 교양),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 향상, 생활문화예술, 레저생활 스포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 외의 영역(직업능력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기초문해교육 부문)의 온라인 및 실시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한다.

② 일방향적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시민들 간 '서로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③ 시민 생활 영역의 축소로 인한 형식, 무형식 학습 공백을 충족하고 이를 통해 개인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을 개선한다. 나아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온라인 교육훈련과 직무 선임자 간 멘토링과 분임제를 운영한다.

3. 실현방안

직업 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 누구나 대상으로, 자신이 활동하던 분야 또는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 상호 피드백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플랫폼 구축을 실천과제의 시작으로 한다.
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형태에서의 개혁을 목표로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을 하고, 기업·사회적 차원에서는 학습 플랫폼을 통한 기술교육, 직업교육, 직무교육 형태로 나아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능력의 향상에도 기여한다.

1) 목표집단

① Target population 직업 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 누구나

② Potential population 온라인 경력개발 학습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2) 학습 플랫폼 구성 카테고리

①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 인문학, 취업/자격증, 외국어, 가족/건강, 취미/교양, 정보/컴퓨터 등

② 사업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개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③ 온라인 직무교육 및 교육훈련 과정
- 15개 주요 직무분야 선정, 직무별 키워드로 추천학습 경로 구성
- 개발단위는 모듈단위이며 상시학습으로 운영
- 학습자가 필요한 부분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소학습단위로 모듈 개발

- 교육기간 최대 20분
- 수강 학점 환산하여 인사고과에 반영(기업 재량)
- 온라인 강의 경력 인증 통해 사내강사로 활동 가능(기업 재량)

④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실시간)
- ex. 교육훈련과정: 직무 선임자 멘토링, 분임제 운영

3)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① 인적자원(교육과정 강사섭외): 강좌 개설 신청을 통해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누구나가 강사가 될 수 있다.

② 물적 자원: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노트북(또는 데스크탑), 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과 음향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한다. (개별)

③ 강의제작료 및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 온라인 강의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플랫폼 운영방법 숙지·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매뉴얼 및 플랫폼 운영 영상을 공유한다.

4) 특징

① 교수자, 학습자간의 경계 없이 누구나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된다.

② 전문 강사가 아닌 SME가 각 분야의 전문 참여자로 활동 가능하다.

③ 일방향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모집한다.

④ 월별 요구분석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충족하는 학습강좌를 개설한다.

5)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

① 기존에 한국의 평생학습 포털은 평생교육 6진 분류체계에서 인문교양, 문화예술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 외의 영역(직업능력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기초문해교육 부문)의 온라인 및 실시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한다.

② 일방향적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시민들 간 '서로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③ 시민 생활 영역의 축소로 인한 형식, 무형식 학습 공백을 충족하고 이를 통해 개인여가활동 및 삶의 질을 개선한다. 나아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온라인 교육훈련과 직무 선임자 간 멘토링과 분임제를 운영한다.

4. 평가 및 기대효과

① 미디어 활용 역량에 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②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기에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③ 온라인 경력개발 성인학습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학습 콘텐츠를 만들고 서로 배우는 평생학습의 본질을 실현한다.

④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력개발을

통한 주체성을 확보한다.
⑤ 코로나19 완화와 극복 이후에도 교육혁신의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며 교육현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문화·관광·체육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서비스-국민
제목	[지역경제골목상권] 드론 활용 우리나라 골목길 가상 여행		

1. 제안배경 및 현황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외는 물론 국내여행 또한 어려워진 상황임.
  예를 들어, 한참 꽃구경, 꽃 축제가 시작될 시기에 군중 운집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꽃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자체를 꺼려하면서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영세 상인이 큰 타격을 입음.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4개 골목상권 업종의 올해 2~3월 중 평균 매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2.8% 급감하고, 평균 순이익은 44.8% 급감함.
- 외출을 자제하고 자의적/타의적으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심각해 코로나 블루(blu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 수준
-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해소하면서도 골목상권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드론 활용 골목길 가상 여행을 제안

2. 제안내용

- 각 지자체와 관련 부처 주도 하에 드론으로 지역의 골목길을 촬영하여 1인칭 시점으로 여행하는 느낌의 영상을 제작 또는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해서 생생한 느낌 전달
- 자연이 어우러진 거리의 풍경을 담거나 소박한 골목길의 구석구석에 자리한 지역의 가게들도 자연스럽게 홍보
- 지자체 유튜브 사이트 등 자체 채널로 배포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도록 함. VR, AR 기술 적용으로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최대한 전달
- 펭수, 도티, 대도서관 등 유명 유튜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흥미진진한 나레이션 삽입
- 골목길에 입점한 업체들과 파트너십 또는 제휴로 방문예약 및 선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방문을 유도, 소비를 촉진. 배달앱과의 연동을 통해 온라인 주문 확대
- 골목상권 선결제 챌린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과 각종 프로그램과도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와 연계

3. 기대효과

- 드론 촬영 영상을 보며 대리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 등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되는 효과
- 외출하지 않고도 생생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기를 부여
- 해외여행객들의 한국방문이 전년대비 40~70% 이상 급감하고 우리국민의 해외여행도 6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직접 방문을 일정부분 대체함으로써 충격 완화

- 위축된 골목상권에 희망을 주고 영세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드론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적 인프라를 활용한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고 확산시킴.

4. 예상되는 이슈와 해결방안

- 드론 촬영으로 인해 생기는 기술적 문제, 소음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는 소관 부처,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당, 해당 골목상인협회 등과 협의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
- 드론 촬영과 영상제작 및 편집, 공유 플랫공유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는 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을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골목상권과 관련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또는 사업의 공익적 목표를 홍보하여 모금활동 통해 마련 가능함. 현재도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성금으로 모인 금액이 818억 이상으로 집계됨.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국민
제목	영화산업(공연계) 살리기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더불어 밀폐된 공간인 영화관을 통해서 개봉을 하는 영화계의 어려움도 타격이 클 것이다. 개봉을 대기하다 개봉조차 하지 못하는 영화 또는 개봉하였으나 영화관의 시설운영불가로 인하여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
나라에서 개봉준비 중인 한국영화를 구매(?)하여 자가격리 중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tv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 특별영화채널을 편성하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는 낮 동안 편성하고 15세 이상 영화들은 주로 밤 시간에 편성하여 영화관을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로써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영화계에 작은 도움이 되면 영화산업 또한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로나로 집에만 머무르는 국민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며 조금 덜 지루하게 보낼 기회가 될 것 같다.
아울러 이탈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조금이나마 잡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방구석 콘서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방에서나마 국내 영화계가 죽어가지 않도록 미약한 생각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두서없지만 적어보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국민
제목	‘코로나 탈출 글로벌 채널 만들기’		

배경

1. 코로나19 사태는 개별국가(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위기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만들고 있는 글로벌 재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범국가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코로나19 감염의 속도는 국가별로 다르며 그에 따라 위험성과 심각성이 상이하게 나타남과 함께 지금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개별국가를 위한 노력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보인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내 확진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범국가적 연대와 노력이 필요하다.
3.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완화됨과 피크닉, 축제의 계절 봄 날씨로 인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에 국민들이 점차 소홀해지며,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놓기는 아직 이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금 위험성에 대한 각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관심을 보이며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야 한다.

세부대안 및 설명

〈정규방송처럼 하나의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Ex. 08-09 Kbs2에서 방송)〉

1. 단순히 각국의 대표가 현재 국가의 상황을 브리핑하는 형태가 아닌 개별국가의 정상들과 의료, 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정해진 시간에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위기상황을 브리핑한다. 이를 듣고 보며 비슷한 상황을 겪은 국가들은 이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전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국가들은 자신의 국가 상황과 환경에 맞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수칙을 고안해 낸다.) - 회의 상황과 내용은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하나의 채널로 방송되어진다.
2. 각 국가들은 국가별로 이동이 일어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질병 및 감염병 관련) 일별로 공유한다. 〈모든 항공, 운항 정보를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사태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인다.〉 〈감염환자가 비행기 혹은 배를 타고 국가별 이동을 할 시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효과

1. 각 국가의 질병, 의료 관련 사람들이 함께 각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브리핑함을 통해 관련 선례 사례가 있는 국가에 조언을 구하고 의료, 예방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이 마련되기에 단순하게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방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상황은 전 세계에 방송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각 국가들이 감염병 예방과 각국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2.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질병 및 감염병 관련 정보를 미리 공유한다면 감염병 환자의 조기치료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정해진 시간에 방송되어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일별로 알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에 노력할 것이다. ('나 하나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의 위험성을 알게 된다. / 하나의 채널을 통해 방송되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국의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4.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속으로 국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긍정적 슬로건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우울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감염병 예방에 큰 영향을 (전 세계적)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울한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건강한 공원 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지금, 확진자 감소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사람들이 안일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 공원으로 나들이 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동인구가 많아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전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심적으로 우울감과 불안함,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려 관리가 어려운 건물 등은 막는 것이 가능하나 야외에서는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을 단순히 막기보다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며 가벼운 산책하며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된다고 하여 '건강한 공원 나들이'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원 입구의 마스크 사용점검과 열감지기 설치입니다. 공원 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온도가 높은 사람과 마스크 미착용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증상자나 열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원을 나와서 김밥 등의 간식을 먹다보면, 그리고 아이들은 불편함과 갑갑함을 느껴 마스크도 풀게 되므로 다음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크닉을 하는 위치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식당이든 공원이든 회사든 모든 장소와 공간속에 단순히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였을 때는 사람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적절히 지켜지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을 때는 '괜찮겠지', 야외에서는 '상관없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넓은 공원에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돗자리를 펼치지만 사람이 많을수록 그 거리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게 될 것이고 거리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원 내 피크닉 장소 마련과 예약제입니다. 두 번째 방안에서 추가된 것으로 공원 내에 일정한 곳에 피크닉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점을 표시한 다음 1시간~2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 피크닉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시간마다 예약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원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공원 잔디밭 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경각심과 안전을 위해 열감지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공원 내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약제까지 실시하게 된다면 거리두기를 실천함과 동시에 건강한 나들이로 인해 코로나19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관광안내소에서 각 지역화폐 선불카드 대여(관광용)		

현재는 각 지역구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카드를 각 지역의 관광안내소에서 국내 관광객들에게 임시 선불카드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 제공(임시 선불카드에도 기존 지역화폐프로세스와 같이 캐쉬백 혜택 등 제공).
본래 지역화폐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면 그 성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국내여행을 장려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거쳐 가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특산물이나 관광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안배경

1.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광객 유입이 적어 각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되었다.
2. 코로나 이후에 사회 정상화된 후,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이 장려되도록 해야 한다.
3. 편의성 때문에, 보통 국내 관광객들이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상점의 이용률이 높다.
4. 여행 전, 국내 관광객들의 각 지역의 관광 홈페이지나 관광안내소의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 이로 인해 지역특산물이나 관광행사 등의 홍보 기회가 부족하다.

내용

1. 미리 온라인으로 각 지역관광 안내 홈페이지에서 임시 지역화폐카드 대여 예약, 그리고 여행 후 다시 관광안내소에 지역화폐 반납
   〈요약〉
   a. 어디에서? 관광안내소
   b. 무엇을? 지역화폐 선불카드 대여
   c. 어떻게? 온라인, 방문예약 절차를 통해
   d. 누구에게? 국내 관광객 대상

2. 온라인 대여 예약 및 세부절차
   a. 각 지역의 관광 안내 홈페이지
      - 지역화폐 선불카드 대여 서식 작성 본인 정보, 선불 충전금액 등 기입
   b. 예약 확인 절차 후 충전금액 송금
   c. 대여일자에 해당 지역 관광안내소 방문하여 지역화폐 선불카드 받음.
   d. 여행 중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게, 시장 등에서 충전된 금액 내 사용(온라인이나 문자로 사용 후 남은 금액 확인 가능, 캐쉬백 서비스 제공)
   e. 여행 후 관광안내소 재방문하여 카드 반납(카드에 남은 금액은 관광안내소 기념품이나 판매 유도, 남은 금액 환불)

3. 방문 대여: 부득이하게 미예약한 관광객에 현장(관광안내소)에서 서식 작성 및 송금 후 카드 대여 가능하도록 함.

기대효과

1. 관광객들의 지역화폐 추가 이용으로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윤이 증대
2. 국내 관광객의 관광안내소 이용률을 높임(카드 대여로 총 2회 방문(대여, 반납)함).
3. 여행 전에 미리 지역관광 안내 홈페이지와 실제 관광안내소로 방문하게 하여 관광 정보수집 가능(정보 예: 여행계획, 지역의 대표 특산물, 관광행사 및 이벤트 등)
4. 지역화폐 대여 서비스를 관광지 스탬프 찍어오기 등 지자체의 추가적인 이벤트와 연계하여

분류	6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캠페인-국민
제목	휴직 항공 승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제안배경

-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인해 휴직하는 승무원들이 많음.
- 승무원들의 경우 외국어에 능통하고, 해외문화에도 익숙한 인재
- 코로나 사태 완화 및 종식 이후의 관광 활성화를 대비하여야 함.
- 기존 주요 관광지의 관광수요 회복과 더불어, 인지도가 낮은 관광지의 활성화도 필요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생활이 보편화되어 SNS, 유튜브 접속 또한 매우 늘어남.

제안내용

- 지역기반 항공사 및 지역 공항과 연계된 휴직 승무원과 함께 지역관광 홍보 동영상을 함께 촬영하고 편집하여 SNS와 유튜브에 소개하는 사업
  (예: 무안국제공항 허브항공사인 제주항공 승무원들과 호남 숨겨진 관광지 소개/전남이 고향인 전국구 승무원들과 함께하는 전남 명소 소개)
- 지자체 관광당국 및 한국관광공사,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국내 주요 관광명소 및 관광업이 발달되지 않은 농어촌 등의 관광명소 발굴 및 홍보영상을 촬영함.
- '무급' 휴직 승무원을 우선대상으로 하며 촬영/편집/외국어 자문 등의 역할을 맡김. 서로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이 함께 출연하여 기존의 항공사 유튜브와 다른 점을 보여줌.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한국 방문 확률이 높은 아시아권 언어를 우선적으로 제작하여 홍보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승무원들의 지원을 프로젝트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지원받고, 프로젝트 수행 후 거주지의 지역화폐를 활동비 및 임금으로 지급함.

공동참여

- 지자체 관광당국 및 한국관광공사, 항공업계
  - 지자체: 주력 관광명소 목록 제안/지역화폐 지급
  - 한국관광공사: 지역별·권역별·테마별 전국 관광명소 목록 제안
- 프로젝트 주관
  - 항공사: 승무원뿐 아니라 휴무가 늘어난 항공사와도 함께 진행하여 승무원 투입절차 상의 및 관련 비용 등을 함께 분담함. 이미 인지도와 구독자수를 다수 확보한 항공사들의 SNS/유튜브 계정과도 함께 연동하여 활성화를 노릴 수 있음.

기대효과

- 무급 휴직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재능기부와 긴급 일자리 창출 및 생활고 해소에도 도움
-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국내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아시아권 맞춤형 영상으로 아시아권의 많은 수요 확대가 기대됨.
- 항공사 또한 취항 재개 이후 항공사 이용객 수요 회복에도 도움이 됨.
- 지역 항공사의 지역사회 관광 활성화와 코로나 위기극복에 대한 공헌 사례가 됨.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국민-캠페인-국민
제목	나의 코로나19 대응 점수는?		

1. 제안배경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방 실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MBTI 성격 유형 테스트, 심리테스트 등과 같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코로나19 예방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결과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뿌듯해하고 지금처럼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점수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 수 있기에 앞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제안내용

예를 들어 테스트 지문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최근 1주일간 대면접촉 모임을 몇 번 가지셨습니까?
   5회 이상 ---------- 0점
   3회 이상 ---------- 1점
   1회 이상 ---------- 2점
   0회 ---------- 3점

2. 최근 1주일간 클럽, 주점, 노래방 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 0점
   없다 ---------- 3점

3. 백화점 등 쇼핑 목적의 쇼핑센터를 몇 번 방문하였습니까?
   5회 이상 ---------- 0점
   3회 이상 ---------- 1점
   1회 이상 ---------- 2점
   0회 ---------- 3점

4. 외출 시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하십니까?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 0점
   외출 시 착용하지만 답답하면 마스크를 자주 벗는다. ------- 1점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 3점

5. 외부 활동 시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시고 있습니까?
   0회 ---------- 0점
   1회 이상 ---------- 1점
   3회 이상 ---------- 2점
   5회 이상 ---------- 3점

질문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수정, 추가하여 다양한 문항의 질문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야 할 것 입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종류의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점수를 매기고 본인의 점수를 안다면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에 비협조적인 일부 국민들에게 재미있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유도하여 스스로의 부족한 점수를 알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계약-국민
제목	영화관을 활용한 대학 강의, 학술/민간행사의 안전한 개최 장려로 극장업계의 자율적 민간회생지원		

〈제안배경〉

- 코로나 사태의 확산과 장기화로 휴무 또는 운영 단축 중인 영화관이 급증함.
- 코로나 사태로 작년 대비 3, 4월 관람객이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됨.
- 관객은 급감한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시설운영비는 그대로여서, 정부의 극장업계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불가피함.
- 같은 영화관 안에서도 상영시간 및 상영 회차 축소로 운영하지 않는 빈 상영관이 늘어남.
- 그러나 동시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의무화,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으로 영화관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인정되고 있음.
- 대학 강의, 특강 등의 학술행사를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집중도 하락, 해킹 우려, 저작권/초상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규모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행사 또한 대학건물 등의 이용 통제 및 반려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
- 이외에도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의 다양한 대학/민간의 학술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 대체, 축소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됨.

〈제안내용〉

이에 휴무 중인 영화관 및 상영관을 활용한 강의/학술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정부에서 보장하고 장려해주는 사업을 제안함.

〈본 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영화관의 경우 공간이 넓고 좌석이 많아, 띄어 앉기와 거리두기가 매우 용이함 - 주로 수평구조로 대면 거리가 가까운 많은 대학 강의실 및 민간행사장과 달리 영화관은 경사구조이므로 코로나 방지에도 매우 유리함.
- 더욱이 기존의 입장확인 인력을 통해 발열 체크, 입장 및 신분확인, 손 소독 등이 모두 가능해 인력 운용에서도 효율적임.
- 또 기존의 예매 및 좌석발권 전산망을 활용해 인원 제한과 기록으로 사전/사후 대처 또한 가능함.
- 영화관 측에서도 이미 방역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독 및 방역업무와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임.
- 더불어 기존에 시사회, 제작발표회 등의 다양한 행사개최 경험, 넓은 스크린과 음향 장비로 다양한 행사개최에 최적의 환경임.

〈정부부처 등의 역할〉

1. 이에 국내 학술행사 등에 있어 영화관 대관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홍보함으로써 각종

행사의 영화관 내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2.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 교육학술행사 유관기관과 대학사회협의회, 극장업계 등이 함께 신청 플랫폼을 만들어
   -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는 학술모임(재단, 연구소/연구회, 동아리) 등의 신청을 받고
   - 본 사업에 영화관 대관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관을 연계시켜줌(시설 정보, 대관료, 이용가능 인원/시간/ 장비, 안전성, 매점 제공 메뉴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신뢰 확보와 신청 활성화에 기여함).
3. 대관 비용의 일정비율을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또는 한시적 이벤트 개최로 대학교, 학술재단 및 연구소들의 참여를 독려함.
   - 주요행사 개최소식 등을 공유함으로써 시민 신뢰 향상
   - 지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도 시설 및 방역상황 공개 점검과 인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함.

〈기타〉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학술행사 대관료 등은 기존의 대관비용 또는 인원 중심 비용에서 일정 부분을 할인하여 "코로나 위기극복 특가"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관신청자와 제공 극장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음.

〈기대효과〉

1.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심한 업종 중 하나인 극장업계의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함.
2. 대관료/시설이용료뿐 아니라, 팝콘 매점 등을 활용한 다과 제공으로 부가수입 확대와 식품 재고에 따른 비용 절감에도 기여함.
3. 극장업계뿐 아니라 국내의 주요 학술행사의 안전하고 무난한 개최를 통해 교육과 학술활동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줄이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함.
4. 정부나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재정지출과 투입 없이도 민간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임.
5.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에 신경 쓰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됨.
6. 향후 기업들의 주주총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로 확대 가능함.
7. 시민들의 모임이 안전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와 폐쇄적인 환경에서의 대유행 예방에도 기여함.
8. 극장업계 무급/유급 휴직자와 해직자의 빠른 복귀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여함.
9. 가을 2차 대유행 등에 따른 우려상황에서 2학기 대학(원) 강의 및 학술행사 개최와 극장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와 대책으로도 크게 활용 가능함.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캠페인-국민
제목	'이래도 운동 안 할 거야?' 생활 속 운동하기 프로젝트		

1. 제안배경과 문제점

코로나 발생 이후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 외출 빈도가 줄어들면서 활동량과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무기력, 우울 등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 운동은 코로나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운동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뉴스나 문체부가 영상을 통해 운동을 장려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책, 집에서 운동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2. 제안내용

2-1. 각 지자체는 국민이 한 달 동안 꾸준히 운동한 것을 인증하면 생필품이나 시장과 연계된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2-2. 각 지자체는 인증할 수 있는 양식과 기준을 만들어 신청서를 홈페이지에 첨부한다. 예)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신청서를 작성한다.

2-3. 각 지자체는 이를 포스터,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2-4. 단, 헬스장,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야외에서 산책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 인정한다. 문체부에서 유튜브에 올린 다양한 운동 영상들을 참고할 것을 장려한다.

2-5. 매월 첫째 주, 지난달 운동 신청서를 각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단, 제출은 대면으로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 동사무소나 관련 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생필품 또는 시장과 연계된 상품권을 지급한다.

[생필품] 쌀, 종량제 봉투, 물 등의 생필품을 지급한다.

[상품권] 특정 사용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3. 기대효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뉴스나 영상은 동기부여는 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이래도 운동 안 할 거야?'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하게 운동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 생필품을 지원함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상품권 지급은 사람들의 온라인 구매를 조금이나마 막고,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시장에도 도움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국민-캠페인-국민
제목	SNS D.I.Y 경진대회		

제안배경

1.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바깥 약속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집에만 있으면 지루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집에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만한 취미생활이 필요하다.

제안목적

1. 요즘 달고나 커피, 꿀 타래 만들기 등 집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드는 요리들이 유행하고 있다. 만드는 것을 요리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명화 그리기, 미니어처 만들기 등 다양한 D.I.Y 취미를 사람들에게 권장한다.
   D.I.Y를 하려면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에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응원할 수 있다.

제안내용

1. 젊은 사람들은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한다. 그렇기에 지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DIY 이벤트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여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2. 홍보는 각 도시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 대구라면 대구광역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충분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 경품은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기대효과

1. DIY 제품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2. 집에서의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외출을 줄일 수 있어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국가차원의 온라인 자기계발 지원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프로젝트		

1. 제안배경 및 문제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침체, 신체적 건강 문제와 비롯하여 무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국민들의 심리·정신적 건강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
- 대학생을 비롯한 직장인 등이 자신이 기존에 계획하였던 2020년 상반기 활동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황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미하게 허비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
  (ex. 교환학생, 해외연수, 대외활동 등의 각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 코로나19 상황은 특성상 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학원가 상권의 경제 또한 침체시키고 있음.

2. 제안내용

국가차원에서 각종 분야의 학원들과 연계하여 온라인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학원상권을 살린다.

〈온라인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구체적 시행방법〉

- 제공방식: 온라인 형태의 강의 제공. 사이트를 개설하여 강사들이 강의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국민들이 자신의 취미와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배울 수 있음.
- 강의 수강료는 국가차원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은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강사들이 촬영한 강의를 제공 전, 동일 분야 강사들 간의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여 무료강의임에도 양질의 강의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
  현재 개발된 온라인 취미계발 앱들의 진행방식(ex. '클래스 101')과 같이, 취미계발 시 필요한 재료나 도구들은 자택으로 키트를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비용 또한 국가가 지원하며,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강좌까지만 키트를 무료로 지원
- 취미 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상제작, 포토샵 및 디자인, 어학공부, 악기강습, DIY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 제공 가능. 관련 분야의 학원가 강사들의 신청을 받아 연계하여 진행함.

3. 기대효과

- 국가적 차원에서 취미활동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우울감과 무기력감 해소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음.
- 나아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이는 국민들에게 자칫하면 무의미하게 허비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계발의 시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무작정 외출을 자제하라는 방침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더욱 무료함과 반발심을 일으켜 오히려 방침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잦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택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
- 온라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관련 학원 상권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는 학원가 경제 또한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음.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정부차원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관광업계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왔다는 평을 받으나 경제적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인 방면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 중 하나는 관광업계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장에 긴급한 경영 상태를 극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의 이익창출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2. 내용

정부차원에서 관광업계, 택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기부형태, 일정금액 이상이 모이면 진행)을 진행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지금 실행해야 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과 기부형이다.

(1) 정부는 관광업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각 사업단체를 기준에 따라 모집하거나 지원 받는다. / 사업에 참여할 택배회사도 모집한다.
(2) 정부가 정한 각 요건(관광사업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한 사업단체에서는 특산품 또는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선정하고 판매가격/원가/손익분기점 등을 기획서로 제출하여 컨펌 받는다(정부에서는 각 사업단체에 서오는 기획서를 확인하고 컨펌을 한다).
(3) 정부에서는 택배회사와 일정 계약을 체결해 각 사업단체를 책임질 택배회사를 선정/배정하여 나눈다.
(4)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고 홍보를 한다. / 앱개발 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다.
(5) 시민들은 참여를 원하는 품목에 체크를 하고 각 품목은 그 기간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판매를 시작한다.
(6) 정부는 주기적(펀딩기간을 고려한 특정기간으로, 예를 들어 한 달)으로 각 펀딩사업 품목을 유지할지, 폐지할지 하나하나 판단하며 각 사업단체의 품목도 그 특정기간마다 모집을 새로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행한다.

3. 기대효과

(1) 코로나19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국민들의 분위기는 크라우드 펀딩과 기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선순환을 이루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부가 홍보되어 기부, 펀딩자체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2) 관광업계에서 잘 팔리기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제품들을 판매할 것이며 이는 기념품의 질을 높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기에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다.

(3) 일정이상 금액(or 인원)이 모여져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 실시되는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하는 것으로 손해를 보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즉 위험부담이 적다.

(4) 정부에서는 택배회사와 연계를 통해 택배비를 낮추고 박리다매를 통해 택배사의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협의를 볼 것이기에 택배업계의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5) 코로나19 이전부터도 부상해왔으나 더욱 발전해나가는 언택트 산업을 관광업계에서도 활성화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다져줄 것이다. 또한 발전하는 사회모습에 맞추어 관광업계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6)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각 사업단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장기적인 경제발전 도모에 도움이 된다.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계약-취약계층
제목	키덜트 문화를 노인들에게도 알려서 새로운 취미활동을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키덜트 관련 사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을 노인복지사업과 연계시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립시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종이접기, 그림그리기와 같은 소소한 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일상생활의 피로를 날리는 복지활동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대면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노인들의 우울감, 정서적 피로감이 나날이 증대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집에서 혼자 무력하게 시간을 주로 보내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노인들과 달리, 젊은 세대들은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하며 현재의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펭수처럼 '키덜트'를 겨냥한 캐릭터 사업, 장난감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서안정도 주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끄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겐 키덜트 문화가 보편화되어 코로나로 지친 현실에 이를 잘 활용하여 집에 있는 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나이 든 노인들에겐 어른들의 장난감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의 노인 세대들의 경우, 의식주가 우선이었기에 취미 문화 자체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노인들에게 '삶의 질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생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에 좋은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노인의 경우, 과거에 비해 건강이 쇠퇴하게 되면 생활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시각·청각의 쇠퇴로 인한 삶의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그나마 온전한 의식이 있다면 이 정도의 불편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나는 치매로 판정받는다면 일상생활 자체를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인지기능 또한 저하되므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의 감각기능의 쇠퇴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러한 신체적 제약이 많은 노인 세대들에게도 레고조립,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키덜트 문화를 알리고 지자체적으로 공급해서 무료한 현실을 극복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키덜트 사업을 하는 영세한 사람들, 업체들도 모색하여 각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서로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정보제공-국민
제목	실내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대여 체계		

문제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 밖을 나가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일컬어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 직접 코로나에 걸리진 않아도 심리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요하는 등 정서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또한 평소에 금전적 문제 등으로 학습이나 취미활동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주변 헬스장, 도서관, 음악학원, 놀이시설 등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아도는 물건들이 많다.

해결방안

코로나 블루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실내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특정 시설 제외하고도 각자의 집에서 쓰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겐 해보고 싶었던 취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집에 있는 시간에 대해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닌 평소 하고 싶었던 분야에 필요한 교육 자료, 물건 등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다. 주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물품 대여 신청을 하고, 많은 신청에는 예약제를 한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의 유료 대여를 통해서 배송비, 소정의 대여비 그리고 물품의 방역 비용을 충당하고 사이 중간 단계에서 방역을 통해 혹시 모를 감염을 억제한다.
주변시설과 사람들의 대여 물품 신청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학생들을 위한 책, 성인들을 위한 취미용 물품 등 다양하게 물품 대여를 한다.

기대효과 및 문제

개인으로는 정서적 안정 및 우울감 감소 그리고 지역으로는 주변의 시설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낸다.

훼손 방지 방법

공급자는 배송 전 사진과 대여자는 사용 전·후 사진 촬영을 통하여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예약자가 있더라도 물품 사용기간 종료 후 물품의 주인 및 시설에 우선하여 거쳐서 실제로 훼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예약자에게 대여해 준다.
파손 우려의 장비나 물건, 사용 유의사항에 대하여 공급자 측에서 우선하여 알려준다.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민간기업-캠페인-국민
제목	‘안녕, 두려움’ TV 프로그램 기획서		

1. 프로그램명: 안녕, 두려움

나의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알게 된 두려움에게 인사한다. 또한 두려움을 나누고 극복한 뒤 두려움에게 건네는 작별인사,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

2. 제작 형식

실내 자연 숲속 컨셉 스튜디오, 최소 출연진 8명은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스튜디오

3. 장르

토크쇼

4. 방송 일시

kbs 2tv(토크쇼 예능 다수 배출 채널), 매주 금요일 밤 11시~12시(1시간 편성)

5. 방송 편수

10화

6. MC

유재석, 홍진영

7. 목표 시청률

2~3%

8. 기획의도 & 방송 형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청자들의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 외출 자제, 감염 불안, 소득 감소로 집단 스트레스를 받는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다. ‘안녕, 두려움’은 토크형 예능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처럼 사연 있는 출연진들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는 내용과 최근 종영한 예능 ‘스탠드 업’처럼 한 사람씩 토크의 주도권을 잡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형식이다. 기존의 토크 예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이 겪은 경험담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토크 주제가 다양했다. 여기서 각자의 이야기를 공통으로 묶어 줄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두려움’이란 키워드로 내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힐링을 받고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프로그램이다. 기성 연예인부터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출연진들(주호민, 이사배 등)로 화제몰이를 노릴 수 있다.

9. 주 시청층

전 국민

10. 주요 내용

1)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는 무엇이 두려울까'.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털어놓는다.
2)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야기(극복 사례): 무의식 속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원인을 찾아 벗어났던 이야기를 공유한다.
3) 이것은 당신에게 두려운가요?: 불확실, 사랑, 자존감, 미래, 실패, 죽음 등 사람마다 두려움의 존재가 다르다. 출연진들 모두에게 이 중 하나의 주제를 던져 이것은 나에게 두려운지 아님 오히려 설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4) 두려움 극복 꿀팁: 각자의 두려움 극복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두려움에 쉽게 압도되는 이들을 도와준다.

11. 제작진

CP: 권용택 / 연출: 오현숙, 손수희, 김형석(안녕하세요 제작진) / 작가: 문은애, 박재은, 박다혜, 이은주(스탠드 업 제작진)

12. 예산

편당 약 7000만원(MC 출연료 1000만원, 보조MC 출연료 700만원, 게스트 출연료 약 500만 원, 그 외 작가료, 스태프, 세트구성 및 기타 비용 2000~2500만원)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캠페인-국민
제목	전국 예술문화업계의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제안배경〉

-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장려를 위해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
- 현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료 등의 할인/무료정책으로 시행 중
-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의 기피 및 기회 부족 심화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때에 일정부분의 수요 회복을 통한 문화예술계의 고사 예방이 필수적

〈제안내용〉

• 개요

- “문화가 있는 날”을 코로나 종식까지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운영함.
- 전국의 영화관, 극장 및 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체험 공간에서 시행(영화, 연극, 뮤지컬/오페라/콘서트 등 공연, 전시회 등)
- “1000원~5000원 할인” 등의 금액제 및 “10%~50% 할인” 등의 비율제로 시행이 가능

〈사업비용〉

-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극장에서 다시 봄” 행사와 같이 지원금은 충분하리라 예상됨.
- 또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우선 할인 시행 후 향후 할인에 따른 금액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차등 지급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봄.

〈기대효과〉

- 현재 저조한 문화예술 이용 수요를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함.
- 주말에 주로 몰리는 이용객들을 평일 및 수요일로 분산시켜 방역 강화 및 거리두기 실질적 준수에 기여하는 효과
- 장기간의 실내생활 및 단절로 인한 “코로나 블루” 등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와 우울감 해소에도 기여해 시민들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코로나 극복에 도움
- 무급휴직, 실직, 취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단절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
- 장기간 휴관 후 재개하는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에도 일정 부분의 이용객 수요를 유치해 줌으로써 경영난 해소 및 적자 경감에 도움
- 사실상 실직, 해직 상태인 예술가들에게도 생존 및 일감 증가의 기회 확대

5 환경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소상공인
제목	Covid-19에 대응해 음식점 메뉴판/각종 지도 등을 Hologram으로		

[제안배경]

음식점의 메뉴판/백화점, 지하철 등의 지도 등의 종이/플라스틱은 환경오염 및 전염병 감염에 취약

[내용]

음식점 메뉴판/각종 지도 등을 Hologram으로 교체하면 각종 혜택 제공
1) 음식점에 에코머니 적립금 혜택
2) 지자체 공사 등의 경영평가에 반영

[기대효과]

환경보호, 전염병 예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기술혁신 도모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보조금-국민
제목	코로나 위기에 따른 빈병보조금 등 자원순환 장려금 한시적 인상		

1. 제안배경

- 코로나 위기 기간 중 전체 업종 중에서도 주점 등이 사회적 지탄과 기피의 대상이 되어 매출이 급감함.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장(카페) 내 다회용기(유리컵 등) 한시적 사용제한, 배달 및 포장주문 증가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 대란 등으로 자원재순환 업체의 부담과 비용 증가
-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생계 피해가 더욱 심각함.

2. 제안내용

-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 수거에 따라 지급하는 빈병보조금 등을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위의 피해업종 및 국민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완화해 준다.
- 빈병뿐 아니라 폐지, 플라스틱 등 자원재순환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에 대하여 자원순환 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신설 제공하도록 함.
- 코로나 기간 중의 한시적 인상과 장려금 지급에 따른 비용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 보조금 금액을 환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충당하도록 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 빈병으로 간접수익을 얻는 주점들의 피해 완화에 도움이 됨.
- 폐지, 플라스틱 수집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빈곤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됨.
- 쓰레기 배출 폭증과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재활용 업계에도 일종의 보조금 기능
- 일회용품 사용 폭증 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에서도 분리수거와 배출, 자원재순환 장려 효과로 사회간접비용의 경감에도 기여함.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아파트 건설시 집콕 생활자들을 위한 홈 가드닝 설치하기 (더불어 미세먼지 방지 효과)		

제안내용

코로나19 이전에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 대부분이 여가 시설이나 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 놀이터와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서 작은 인공연못도 설치한 곳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도 근처 공원이나 놀이터에 나가보면 분수대나 수도시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지금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있고 집콕이 늘고 있으며 식재료만 구입해서 먹는 정도입니다.
현재는 정부재난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대부분 8월 31일까지는 식재료 구입에 걱정이 없지만,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구입보다는 집에서 길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집에서 키우기에는 장소와 공간이 협소하여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저는 저의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다면: 기존의 작은 물놀이 놀이터나 인공연못대신 아파트 단지 한 공간에 입주자들이 집에서 길러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텃밭을 마련하고 한가구당 하나씩 배치를 하며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자동 물뿌리개를 설치하여 시간과 기간을 정해서 물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 아파트 작은 인공연못은 물도 사람도 나오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물 놀이터를 개장해서 물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 생긴다면 경제적인 면이나 공간 사용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 물뿌리개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세먼지 방지 효과도 더불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건설사들의 홍보 효과로 이전의 부대시설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집콕 생활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황과 환경들이 모두 반대로 바뀌어야 하며, 개인주의에서 공동주의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는 것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코로나 경제위기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6 보건복지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취약계층
제목	행복채움냉장고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분들께 행복집밥을 선물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지만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분들은 더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2월부터 무료급식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걱정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쪽방촌 거주민, 노숙인분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50~60대의 장년층이며, 6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나는 뉴스 중 하나의 내용은 쪽방촌에 사시는 장애인2급 할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쌀, 인스턴트, 레토르트 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구호품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조리시설이 없어 조리를 하지 못해 먹지 못하거나, 데우지 못한 채 차갑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양의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지금 힘겨운 시간을 겪고 계신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을 탄 따뜻한 집밥 입니다. 집밥은 인스턴트나 편의점 음식보다는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음속 허기까지 달래줄 것입니다.

행복집밥의 재료는 행복채움냉장고를 통해서 마련합니다. 행복채움냉장고란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시행한 푸드쉐어링 방식의 자발적 기부입니다. 푸드쉐어링이란 공동냉장고에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식재료나 음식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부는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키울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가 모이면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모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반찬과 국을 만들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분들께 전달합니다. 냉장고 재료를 조리해서 전달하면 조리 기구나 시설이 없어도 영양가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렵지 않음에도 개인 욕심으로 가져가는 행복채움냉장고의 비양심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부와 도움을 금전적인 것, 여유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취약계층
제목	학교 급식 시스템을 이용한 경제위기 극복 및 복지 실현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을 납품하는 유통업체, 농가가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무급휴가 노동자 증가, 자영업 매출 감소 등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학교 급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고자 제안합니다.

〈학교 급식 시스템을 이용한 경제위기 극복 및 복지 실현〉
1.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 수를 조사한다.
2. 학교에서는 급식 체계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준비한다.
3. 준비된 도시락은 매일 주민센터 등에 배치한다.
4. 지역 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등의 협조로 방문수령, 배달 등 필요한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한다.

이는 유통업체와 농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를 나가지 않아 매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학교는 모든 마을마다 있는 대표 공공시설이고 대체로 초등, 중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모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고통 속에서 국민들의 지혜와 배려심을 모아 극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조직구축-국민
제목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사업 종합 안내 접수 플랫폼 필요		

1. 제안배경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대책, 경제소득 상실계층 지원사업,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지원금 등을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음.
- 그러나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찾고 접수하기가 힘듦. 이로 인해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홍보나 정보 전달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사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필요함.

2. 내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지역, 직종, 연령, 계층, 주제 등으로 분류해 한눈에 볼 수 있고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넣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접수가 쉽지 않은 만큼 서류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지원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와 유사한 종합 플랫폼은 벌써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대효과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IT 강국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전 세계에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류	3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바우처-취약계층
제목	급식용 식자재 구매를 통한 기부 및 소외계층 도시락 제공		

1. 제안배경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급식용 식자재의 판로가 막히고, 결식아동 및 청소년은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무료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하며 독거노인 역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가정에 식자재 꾸러미를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이러한 재료는 조리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음식을 만들기 어려운 아이나 노인에게 이런 지원시스템은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2. 제안내용

2.1 학교 급식용 식자재의 꾸러미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1개를 구매하면 1개를 기부하는 시스템 또는 해당 판매 수익의 50% 기부하는 시스템 등으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2.2 식자재 판매 기부를 통한 수익금과 미사용 급식예산으로 식자재를 준비하고, 학교 급식실의 영양사와 조리원 인력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 및 조리하여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2.3 도시락을 준비한 학교가 속한 지역 결식아동 및 청소년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3. 기대효과

3.1 결식아동 및 청소년, 독거노인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2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3.3 소비자는 식자재 구입으로 농어민을 돕고, 결식아동 및 청소년,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조직구축-취약계층
제목	기부물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방안		

1. 요약

- 기부물품은 수급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배분되고 있다.
- 수급대상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의 목록을 미리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각자의 특색에 맞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이다.
- 기부물품 수요조사를 위한 전화응대 업무의 감소, 수급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물품 배부 등의 장점이 있다.
- 동사무소 공무원, 수급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고려하여 서로 부담을 줄이고 이득을 늘릴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기획하였다.

2. 현 상황 분석 및 제안사유

- 현재 코로나와 관련하여 많은 물품들이 지원되고 있다. 주로 시청 쪽으로 지원되고, 시청에서 동별 인원을 고려하여 배분해주는 편이다. 시청의 지시에 의거하여 동사무소는 맞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일부는 동사무소로 직접 물품지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동사무소의 자체적 판단에 의거해 물품을 배분한다.
- 수급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등이 있다.
- 지원대상이 많고 한정된 물품을 비정기적으로 나눠주는 한계로 인해, 현재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물품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편이다. 또한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은 지속적으로 기부물품 수급 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전화로 수요를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따라서 대상자의 특색에 맞게 기부물품이 배부되고,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3. 아이디어의 진행방법

1) 정부가 각 시/도별로 기부되는 물품의 목록을 인계받아, 주요 기부물품 목록을 작성한다.
2) 각 도/시/군청은 홈페이지에 기부물품 목록이 안내되는 배너를 만들고, 기부물품 수급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입력해둔다.
   - 데이터는 대상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대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전체 목록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확인 가능하다.
3) 수급 대상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치고, 필요한 주요 기부물품 목록을 미리 선택하도록 한다.
   - 대상자가 선택한 물품은 이를 작성한 본인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확인 가능하다. 공무원은 대상을 분류한 항목별 확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4) 시청은 물품 배부 시 각 동별로 수급 대상자가 어떤 물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를

고려하여 배부한다. 이후 각 동별 담당자는 자기지역 대상자들에게 희망물품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5)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전화 혹은 동사무소 방문으로 희망물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기부물품 선택을 안내 시, '이는 참고사항으로 적용되며 본인의 희망하는 물품과 다르게 배부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안내한다. 또한 '어떠한 기부물품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선택항목을 넣어둔다.
참고: 해당 내용은 정부 발표를 통한 언론보도 외에, 정부의 안내문자로도 대상자들에게 안내한다.

4.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질의문답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1) 주요 기부물품 목록의 수와 종류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기부물품의 종류 및 빈도수를 고려해보아야 하므로 취합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결정하긴 힘들다. 정부 측에서 취합 후에 결정해야 할 듯하다. 다만 동사무소 문의 결과 대부분 필수 생필품과 구급용품 위주로 기부되며 쌀, 라면, 김치, 마스크, 칫솔 등에 치중된다. 이를 참고 시 주요 목록은 20여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기부물품은 지자체별로 관리하는데, 각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요 기부물품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필품 위주로 기부되므로 지역에 무관하게 기부물품의 종류는 비슷하다. 하지만 지역별로 목록을 작성하면 일부 항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목록을 다르게 할 경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가 취합하여 하나의 목록으로만 운영한다.

3) 각 도/시/군청의 배너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제3자가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4) 전화나 방문으로도 희망물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 기존에도 진행하던 방식이므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동사무소에서는 전화를 통해 기부물품 전달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민원인이 방문을 통해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었다.

5) 수급 대상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업무를 증진시키지는 않는가?
기부물품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다. 이를 받아갈 수급자의 데이터를 만들어두고 이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다. 기존에 쓰이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담당 공무원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코로나19 대상자 등 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자를 위해 기부된 물품이 무관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7)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부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기부물품의 수는 기부대상자(기초수급자 등)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언제나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전보다 효율적인 배부를 한다는 것이지, 원하는 대로 물품을 다 구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형평성에 맞는 물품 배부를 위해서이다. 원하는 물품만 배부 시에는 각 수급자별로 받는 물품의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 담당자의 업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공무원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물품, 수급자별로 유사한 금액수준으로 물품이 지원되는지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물건을 배부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 대상자가 희망하는 물품을 사전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면 업무가 감소하지만, 반드시 그 물품을 제공하는 의무사항으로 활용하면 계산이 복잡해서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담당자의 업무가 감소하면 이전보다 빠르고 원활한 배부가 가능해지지만, 업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배부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8) 기부물품을 받지 않는다는 항목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기부여부를 문의하면 아예 기부를 받지 않길 원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9)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불필요하게 배너를 클릭하는 수고를 막기 위해서이다.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5. 기대효과

1) 더 효율적인 배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라면 2박스와 햇반 2박스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라면만 필요한 A씨와 햇반만 필요한 B씨가 모두 라면 1박스, 햇반 1박스씩 받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될 경우라면 항목만 체크한 A씨는 라면 2박스를, 햇반 항목만 체크한 B씨는 햇반 2박스를 제공받는다.
2) 더 빠른 배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물품 배부 시 대상자마다 일일이 희망여부를 묻거나, 이전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했다. 반면, 각자가 어떤 걸 희망하는지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할 경우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3) 지자체의 전화응대 업무가 감소한다. 원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부물품 희망여부를 매번 전화로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 시 대상자에게 한 번에 안내 문자를 돌리고, 이후에 기부물품 희망여부를 선택해두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전화로 물품지원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으면 된다.

4) 코로나 자가격리자 등 일시적인 수급 대상자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지속적으로 수급 받는 대상자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입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더욱 큰 효과가 발생한다.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정보제공-취약계층
제목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한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제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기존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사례를 접수하지만, 카카오톡 채팅창을 이용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속한 제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기존의 내방상담 및 전화를 통한 발굴 제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제보창구 개설을 통해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처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은 물론이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물품이나 후원금 전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도울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공헌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 제보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 ‘코로나19 복지우체통’이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친구 추가를 하면 지역주민 누구나 제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사전 개인정보 동의여부와 인적사항, 위기상황 등을 제보하면 됩니다. 원스톱 코로나19 복지상담뿐만 아니라, 원하는 복지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1대1 복지상담’ 기능은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어 제보하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가정방문 및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공적·민간 연계,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코로나19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복지우체통”을 실행한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하여 1:1 대화 기능과 SNS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작은 관심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지역사회를 잘 아는 주민이 ‘코로나19 복지우체통’을 매개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지역 만들기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바우처-취약계층
제목	독거노인문제 –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자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예상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기관 등이 휴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전염병 발병 시 독거노인의 우울증과 안전, 안부를 묻는 특별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개선방안

현재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센터는 학생 자원봉사자들과 20·30대 등의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 일감을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을 꺼리는 봉사자들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집에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이에 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화봉사 일감을 주는 자원봉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학생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을 연결하여 일주일에 1번 전화를 걸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말벗이 되어 드리는 활동을 실시했으면 한다. 그동안 전화자원봉사는 여러 단체에서 실시하기는 했으나 지금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나서서 한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실시하였음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화 시 해서는 안 되는 말 또는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통화 매뉴얼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통화일지를 만들고 기록할 수 있게 하여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여 고독사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또한 적은 수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수의 독거노인 보살피기 힘든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살필 수 있다 보니 대면 시 생겼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통화일지를 만들어 봉사센터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에 따라 각 노인마다 맞춤형 돌봄을 실시할 수 있어서 봉사센터의 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을 1:1매치하여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통화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안부와 안녕을 보살필 수 있다.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국민
제목	마스크 및 미니 손 소독제 자판기 아이디어 제안		

〈정책 배경〉

마스크 공급 수량이 늘어났음에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약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느라 주요 업무를 여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사용하지 않아 오래된 자판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자판기에 활용성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제안〉 - 마스크/미니 손 소독제 자판기 제안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자판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활용성이 낮은 자판기를 마스크와 미니 손 소독제를 가진 자판기로 교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자판기와 연계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든 후 비콘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의 신상 확인 후 자판기에서 마스크와 미니 손 소독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적마스크 구매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공적 마스크 비축량이 늘게 된다면 따로 어플이 없고 자판기만 있어도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미세먼지를 비롯해 마스크와 미니 손 소독제가 필요한 경우는 많아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자판기를 사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국민
제목	마스크 은행		

이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고, 마스크 공급도 많이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방역당국은 마스크 대란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량을 최대한 비축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개별 가정이나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 여유분들을 '은행에 저금하듯이' 잠시 맡겨둘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해 두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저금한 사람 또한 긴급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은행'에 현재 가지고 있는 마스크 여유분들을 잠시 맡겨 두고, 맡긴 마스크는 현재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코로나19 대유행 등 마스크를 맡겨둔 사람들이 정작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관 및 유통기한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맡겨둔 마스크를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거나 하면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기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대규모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보관할 수 있는 개수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학생
제목	장난감 대여 배달서비스		

제안배경

어린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빌려주고 있으나 차가 없는 사람들은 대여가 어려워 위험감염이 높은 대여소에 찾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완구를 빌리러 가는데, 이 경우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완구를 고를 수 없다.
따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완구를 직접 고르고 이를 배달시켜줄 수 있는 사이트(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을 느꼈다.

내용

1. 완구 대여 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장난감 대여소에 존재하는 완구의 종류 및 완구의 설명을 넣는다.
2. 부모가 이를 보고 원하는 완구를 아이들과 함께 선택한다.
3. 배송지가 입력되면 완구를 직접 가정으로 배송해 준다.
4. 대여가 완료되면 완구를 다시 수거하여 깨끗이 소독한다.

기대효과

1.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장난감의 과소비를 줄여줄 수 있어 가정에는 경제적 안정이 생기며 지나친 쓰레기가 생기지 않아 환경적으로 좋다.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식당 마스크 걸이		

코로나 이후 첨으로 친정 부모님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식사가 나와 밥을 먹는 동안 마스크 두는 곳이 마땅하지 않아 불편하더군요.
곧 아이들도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가서 학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턱에 걸고 먹으면 반찬이 묻을 것이고, 아이들 마스크 걸어두는 곳이나 마스크를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사회적 규제-국민
제목	지병이 있는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 중 진료와 약 처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인의 얘기입니다.
4월 30일에 해외에서 입국하여 5월 14일까지 자가격리 중입니다.
오래된 지병이 있습니다. 4주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중에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음압병실 시설이 있는 병원에만 갈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혹은 직계가족이 대신 가서 대리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도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이 다 떨어져서 복용하지 못한지가 제법 되어가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5월 14일까지 약 없이 지내도 지병이 재발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관계법령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만약 법령상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는 안 되어 있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면 더 이상 도리가 없겠지요. 병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하지만, 현행법상 국내에 직계가족 없이 혼자 사는 특수한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받아오던 진료를 받고, 오래전부터 매일 복용하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원래 받아오던 치료를 중단해야만 한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겠네요.
혹시 현행법 내에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런지요?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 때문에 이러한 오래된 지병의 진료와 약 처방을 못 받게 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의 경우 적어도 대리구매, 화상진료라도 임시로 지원해주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조직구축-취약계층
제목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물품 빅데이터 수요자 연결 시스템으로 필요한 물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방안		

추진배경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는 문화를 넘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기부한 물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안해 냈고,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 때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한국에는 다양한 기부단체와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도 많고 그에 따라 수많은 기부물품 역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면 금전만을 생각하지만 기부는 금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각종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비롯하여 사람의 재능기부도 기부에 포함합니다. 즉 기부는 단순히 금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각종 종류의 재화와 사람의 재능을 발휘한 봉사 역시 기부에 속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기부는 금전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강습 봉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문제지 기부가 필요하기도 하고, 서랍장 기부가 필요로 하기도 하는 등 기부를 받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물품과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물품과 봉사를 기부하는 공급자와 이런 다양한 물품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결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서 특정 종류의 물품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모집을 통해 기부자를 모아서 기부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은 기부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적고, 또한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놓치기도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기부자와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필요로 하고, 또한 기부할 수 있는 각종 종류의 기부물품 및 봉사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기부자와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용

기부물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과 다양한 종류의 봉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부자도 많고,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수료로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도 많습니다. 현재 이 둘을 연결해주는 방법은 사실상 사회적 봉사 기업에서 특정 기간 동안 성금이나 물품을 기탁 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부연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부자와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봉사단체가 기부물품을 기탁 받아서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닌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기부 수요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기부 공급의 종류와 물품 등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특정 재화와 물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빅데이터 연결을 통해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회적 약자인 소녀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피아노와 피아노를 가르쳐 줄 재능봉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 이 학생에게 피아노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한 피아노 강습을 해줄 수 있는 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내가 기부한 물품과 내가 줄 수 있는 봉사 서비스를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연결하여 전달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내가 기부할 물품을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분석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과 가장 적합한 물품과 봉사 서비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기부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기부물품을 유통시키려면 이러한 기부 관련 물품과 봉사 서비스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동시에 관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요자의 필요와 공급자의 공급을 서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빠르게 물품을 유통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즉 피아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피아노를, 의자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자를, 미용실에서 헤어 봉사를 하는 사람은 헤어 서비스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줄 수 있는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품목을 만들어 빅데이터에 넣어 놓고, 또한 그러한 물품과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적합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급 물품과 서비스를 등록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등록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물품과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물건을 가장 빠르게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다.
   종래의 경우에는 기부물품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몰라 방치되거나 필요 없는 물품을 기부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게 되므로 기부물품과 서비스가 방치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이 기부 선정자를 관리하므로 행정력 소요가 줄어든다.
   종래의 경우 기부를 받을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마찰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가장 적합한지를 두고 고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기부 연결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가장 적합한 물건을 가장 합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시비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기부 선정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처럼 사람이 수혜자를 정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수여자를 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혜자를 정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하여 행정력의 소요가 줄어듭니다.

분류	7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캠페인-국민
제목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커뮤니티		

제안배경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꾸준히 늘어 가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되면, 생활수칙에 따라 가능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14일 동안 혼자 생활해야 한다. 또한 외출 금지해야 하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1)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소통이 단절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병과 함께 하는 길은 험난하며, 특히 혼자라면 더욱 고독하고 힘들다.
2)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그들만의 고통을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 받을 필요가 있다. 고통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3) 질병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러한 기록은 또 다음 환자나 격리자에게도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감염병인 이유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용기를 주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안

이미 여러 질병에 대한 환우회가 존재한다. 비슷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지만 감염병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 어렵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와 자가격리자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어플을 만든다.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극복과정을 서로 나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로 공유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분류	7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캠페인-국민
제목	마스크에 마스크 착용 동참 문구나 응원메세지를 새겨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더워진 날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마스크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국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응원 메시지나 마스크 착용 동참 문구를 새기는 것입니다.
마스크에 새겨진 메시지를 보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캠페인-국민
제목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 치료 프로그램		

제안배경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조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일상의 변화 등에 따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단체는 코로나 블루를 막는 심리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은 관련 전문가와 의료인들, 예술치료사 등이 참여하여 심리안정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짜뉴스 모니터링, 대상별 맞춤 콘텐츠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각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분야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심리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취약계층 지원, 도시락 배달, 태블릿 PC 지원 등 물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시민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 지자체가 나서서 시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심리재활, 공동체 의식 회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

내용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은 다양한 분야의 취미, 자기계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앱이다. 클래스 101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거나 강의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노력을 생략하고, 수업과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누적 방문자 수만 85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적게는 만원부터 많게는 월 몇 십 만원을 넘는 강좌도 존재한다. 이에 착안하여 사회적 기업에서 기존에 운영하였던 원데이 클래스,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설한다. 또한 지역 예술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대학생,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청·고용하는 형태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예술가가 사회적 경제 마음치료 프로그램에 크리에이터로 등록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들의 니즈와 수준에 맞는 수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업을 업로드하고, 이후 수업 진행에 따른 지원금과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구성하여 시민과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이익을 보며, 마을 공동체의식과 심리치료, 자기계발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진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수화, 자막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되는 형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가장 핵심에 있는 마음치료 프로그램은 전문심리상담사와 기존 사회복지사가 함께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심리치료 서비스와 달리 1:1 영상통화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모여 심리치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가가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우선적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단순 TV시청, 스마트폰 사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하는 마음치료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원하는 취미와 강좌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 블루를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립되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울증도 질병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해당 사회적 경제 마음치료 플랫폼 시행은 기존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전문심리상담 치료와 달리 지역 내 연계와 소통을 강조했다. 마을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높이고 시민들 간의 유대감을 중심으로 심리치료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원하는 취미를 배우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크리에이터가 되어 재능기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플랫폼 내 주민소통 창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심리치료, 온라인 서비스, 소통 그리고 연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분류	8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취약계층
제목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를 동원한 취약계층 긴급재난물자 공급		

1. 현황 및 문제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나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움.

  * 거동이 불편하여 물자를 직접 수령구매하기 어렵거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등이 없어 대리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

- 이러한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긴급물자를 배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 판정 뒤 복무기관 배치를 받지 못한 채 3년 이상 장기 대기로 2019년에는 11,000명 이상, 2020년에는 17,000명 이상이 자동면제 예정이며 현재까지도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2. 제안내용

- 사회복무 장기대기자*를 긴급물자 배송인력으로 동원해 취약계층에 긴급물자를 직접 배송함으로써 취약계층 수급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뒤 복무기관 배치를 기다리는 대기자

- 사회복무 대기자의 긴급물자 배송업무 동원기간은 사회복무기간으로 인정해 향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해당기간은 제외

3.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긴급물자 수급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 사회복무요원 판정자의 장기 대기 적체현상 감소 및 장기 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활동제약에 따른 불만 감소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조직구축-국민
제목	코로나19 특별 소통 사이트		

'코로나19 특별 소통 사이트' 개설

제안배경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활발하고 빠른 소통이 필요하다.
-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
-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대로 모으고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코로나19 특별 소통 사이트'를 개설한다.

내용

- 다양한 카테고리를 두어 국민 의견을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1. 온라인 상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감을 호소했다. 건강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코로나를 의심하며 불안에 떨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상담내용을 올리고 상담사에게 온라인으로 상담과 관리를 받는다.

2. 정부 정책 의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혜택에 빗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더 나은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등 의견을 자유롭게 개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수립 카테고리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집한다.

기대효과

1. 국민들이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3. 정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바우처-국민
제목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바우처' 서비스 시행		

1. 제안배경

사회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재난·위기상황 속에서 더욱 배제되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이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부를 하며 마스크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마스크 무상 배부는 보통 어르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임산부 등에게 경로당,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을 통해 직접 배부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는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품절 현상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직접 배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비말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이제는 마스크 제작의 증가와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배분을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내용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직접 배부를 대신할 새로운 방안은 바로 '마스크 바우처' 서비스 시행이다.

예를 들어,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처럼 마스크 결제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고려하여 쿠폰이나 카드 형식의 바우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

3. 기대효과

① 바우처의 특성상 포인트 지급부터 비대면으로 실시되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②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대효과는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바우처를 받게 될 취약계층의 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 제공은 정해진 날짜에 그리고 먼 장소(제공받는 장소가 먼 경우)까지 가야했다면 바우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날에 그리고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 갈 수 있어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분류	10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정보제공-국민
제목	생활밀착형 공공 심부름 어플 '코로나 지킴이 Cozy'		

아이디어 제안 동기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심각하게 다가올 사회경제적 파급에 대비하여 지역화폐의 이점을 다각도로 누릴 수 있는 서포트 사업뿐만 아니라 아무리 친한 이웃 간에도 받기만 하다보면 부담이 있다.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자는 취지의 공공생활밀착형 심부름 앱을 통해 국민이 화합하여 돈독해지는 계기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선정하게 되었다.

아이디어 세부 설명

코로나 지킴이 Cozy 코로나 지킴이를 줄여 코기 및 [Cozy] 아늑한, 친밀한, 편리한 단어 뜻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

어플의 특징

1. 은행 또는 카드사와 정책기관이 제휴하여 어플 내 지역화폐를 포인트화 한다.
2. 이용자와 가까운 거리 주민이 집사가 되어 GPS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가까운 이웃이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약국 심부름, 전통시장 심부름, 음식점 포장 심부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저렴한 가격에 심부름을 수행하고 보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 저렴한 이용료에 더불어 기부까지 가능한 일석이조. 정책 수익금 받기 창에 10% 수익 기부 선택 칸 제작. ○○동 이달의 기부왕 랭킹 마련. 랭킹 상위권 3명에게는 이용 쿠폰 증정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제도 활성화

※ 기존 심부름 서비스의 경우
기존 심부름 업체 중 이웃이 배달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지만 기업에 소속된 CS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배달원이다.

1. 대부분 심부름 서비스의 센터가 위치하고 이용자의 거리 할증 및 수수료 20%가 붙기 때문에 이용료에 있어 진입장벽이 있다. 또, 어플 대부분이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서비스 중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폭넓은 심부름은 불가하다.

2. 사소한 심부름의 경우 마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꺼리기도 한다.
   기존 심부름 서비스 악용사례 해결
   - 미성년자 성인인증 악용 방지(술, 담배) → 성인인증 절차 강화
   - 기존 심부름 모 업체의 경우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를 고용하였고, 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름. 심부름 업체는 중계업체이므로 책임을 회피하였음.
     전과자 이용 제한 → 이용자들의 철저한 신원확인 및 어플 이용 금지 강화

가까운 이웃에게 믿고 맡기는 '안전한 심부름'

모든 국민이 이용자이자 배달원이 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이웃주민이 집사가 되길 원하는 바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심부름 서비스의 주 소비층인 1인 가구, 여성만이 아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공적인 어플을 통해 진입장벽(경제적 부담 등)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한다.

제안한 아이디어의 적용방안 및 활용방안

※ 어플의 공공화 시 개선점

1. 전문기관과 상의 후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증대한다(관련 서비스 생활 준칙 안내 등).
2.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손이 빠른 사람 혹은 한가한 사람들이 일을 주로 차지할 수 있으니 하루 심부름 수행 횟수 제한한다.
3. 현금을 주고받는 기존 어플들과 달리 지역화폐를 이용한다.
4. 집사가 이용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가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꼼꼼한 검증과정을 통해 이용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범죄 전과자들은 이용에 제한을 둠.

기대효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큰 폭으로 확산하였으나 주로 식(食)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심부름 서비스의 고용주는 국가이며 근로자이자 소비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인원을 충당하고 그에 따른 보수인 지역화폐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이웃에게 일부 수익금 기부 여부도 선택하게 하여 이용자와 집사 모두가 소소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 이 아이디어 도입 시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소비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소비했을 경우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므로 장기화가 예견된 코로나19 사태에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역화폐는 거래의 용도뿐만이 아닌 주고받는 정으로 생각의 전환이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할 수 있다.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서비스-국민
제목	코로나 블루 극복을 도와주는 챗봇 만들기		

제안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생겨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뜻하는 말로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blue가 합쳐진 것이다.

코로나 블루 진단

아래의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코로나 블루를 의심할 수 있다.
1. 오랜 시간 실내 활동으로 느끼게 되는 답답함
2.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3.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4. 활동제약이 계속되며 느끼게 되는 무력감
5.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과도한 집착
6.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8.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재 상황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 격리자 등에게 심리 지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교육부 Wee센터 등 각 부처와 민간단체에서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6월 3일까지 확진자 1만6871건, 자가격리자 16만 1366건의 상담을 제공했고, 일반인에 대한 상담도 18만9924건 실시됐다. 또 대국민 '마음건강지침'을 배포했고, 의료인 등 대응인력에 대한 소진회복 프로그램 또한 발굴해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6)

문제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상담에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에, 먼저 채팅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좀 더 편하게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내용

코로나19 관련 상담 내용을 수집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챗봇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가장 큰 서비스로는 사람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정보(확진자수, 증상, 검사 관련 등)를 제공하는 챗봇은 꽤 많지만 정신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면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기대효과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우울감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다.
챗봇 서비스 내용을 구축한다면, 전화 등의 사람이 직접 해주는 서비스에 비해 많은 인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블루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7 농림수산

분류	1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보조금-국민
제목	화훼농가를 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국민들의 마음을 꽃으로 살리자!		

1.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 중, 고등학교와 화훼농가

2. 내용

뉴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화훼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도우면서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꽃구경도 못하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들이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가 개학하지 않아서 급식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고, 식재료 또한 구매되지 않고 있으니, 급식비를 대신하여 각 가정에 꽃 또는 작은 화분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연관찰수업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예민해지고 불편한 마음, 집에만 있으면서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에 예쁜 꽃과 싱그러운 식물들로 우리 집에도 작은 봄을 느껴봅시다.

3. 구체방안 정리

1) 구입처: 화훼농가(꽃 또는 식물, 상추, 화분 등)
2)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긴급보육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의 가정은 제외)
3) 횟수: 1주일에 각 아이에게 한 가지 꽃 또는 식물

4. 전달방법

1) 각 가정마다 픽업요일을 나누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식물을 가져간다.
   (예시: 시간을 정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문 앞에 화분을 두면 대면하지 않고 학부모가 가지고 간다.)
2) 택배 이용

5. 비용

아이들에게 지원되었던 급식비를 화훼 구매로 전환한다.

6. 효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화훼농가와 국민들의 마음에 화사한 봄을 선물합니다.

7. 활용

영유아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집에서 식물을 보고 또는 기르며 관찰일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어서 학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수업의 연장으로 연결하여 각 반 아이들마다 기르는 식물들의 상태 변화를 온라인 등으로 업데이트하여 학우들과 선생님들과 소통을 합니다.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캠페인-국민
제목	개학연기에 따른 농민 급식업체 활성화		

◆ 제안배경

개학연기로 인해 학교 급식업체와 계약한 농업이 침체되어 있다. 학교와 계약했지만, 생산한 양을 소진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있는 농업업자들의 괴로움을 보고 제안하게 되었다.

◆ 제안내용

강원도 감자가 한때 실검을 장악했다. 홈페이지 서버는 다운되었고, sns에 감자를 구매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사지 못한 사람도, 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사고 싶어졌다. 그리고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감자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 등이 sns에 많이 올라왔다. 이처럼 여러 채소나 과일 등도 홍보를 하여 지금 당장은 소진해야 하는 물건들의 홍보에 힘썼으면 좋겠다.

◆ 기대효과

개학이 계속 미뤄졌다. 그것도 여러 차례.. 이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희망고문이다. 개학이 4월 6일로 정해졌을 때 제발 미뤄지지 않았으면 바랐다. 그런데 온라인 개학으로 바뀌어 농업계의 희망고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폐기할 부분이라면 싼 가격에 팔아 소비자도 좋고, 농민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계약-농축산업종사자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지역 농수산품 긴급 판매 장터 개설 제안		

공모 내용 요약

이번 코로나19처럼 긴급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경제타격이 많이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자 소비 수요 감소로 감자 값이 폭락해 강원도지사가 직접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수요 부족으로 폐기되어야 할 감자를 싼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온비드에서 수요 부족과 과잉생산 등으로 원래라면 폐기해야 할 지역 농수산품을 품질 보증해주고 단기간동안만 저렴하게 판매해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특히 외식관련 자영업경기 하락하고 전체적인 식품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농가가 봄에 출하하는 농산품 가격이 폭락하여 산지 폐기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농산물은 저온 저장고 등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상품이면서 빨리 팔지 않으면 상품성이 낮아져서 팔수가 없어 긴급히 판매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나 고구마 같은 상품은 저온저장고에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딸기나 키위 등은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한지 몇 주 만에 팔아야 합니다. 못 팔면 폐기하게 됩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이 상대적으로 몇 달 동안 저온저장고에서 오래 보관 가능한 농산물들도 새로 계속 들어오는 농산물 문제 및 지속적으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몇 달도록 처리가 안 되면 결국 산지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요즘 경기불황과 코로나 사태가 겹쳐져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제안하는데 긴급히 수확한지 몇 주내로 팔아야 하는 지역농산물이 가격 폭락으로 못 팔고 산지 폐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온비드에서 전용관을 마련해 품질이 일정 이상임을 보증해주고 몇 주정도 단기간동안 저렴하게 지역농산물을 팔아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농산품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품질을 보증하고, 온비드에서 인터넷 직거래로 일반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이 낮은 걸로 의심되어 구매가 망설여지지만, 온비드가 품질을 보증하므로 일반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방법

온비드에 농산물 전용 상품 판매 게시판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 이를 공지합니다. 만약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하고, 저온저장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농산물 산지 폐기가 예상될 때에는 지방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직거래로 농산품을 단기간 동안만 팔아주는 방법으로 농산물 판매 대행을 합니다.

딸기 같이 저온저장고에 저장해도 수확한지 몇 주 후면 신선도 하락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농산품을 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감자나 고구마 같이 몇 달 이상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어도 보관비용과 저온저장고보관 공간 부족 문제로 산지 폐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기대효과

1. 농산물 가격 폭락시기에 지방 농민들에게 금전적 도움이 된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되는 농산물이 저렴하게라도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면 농민들에게 금전적 도움이 된다.
2. 괜찮은 품질의 저렴한 농산물을 일반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농산물이라고 일반시민들이 의심하여 구매를 자제하게 된다. 하지만 온비드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판매하면 일반시민들이 믿고 안심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농산물을 일반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보조금-농축산업종사자
제목	농업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방안		

- “농업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 농기계 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농번기까지 이어지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감면된 금액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정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첫 번째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민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업소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대여하는 농기계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들을 농업인들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농기계임대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그리고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입니다. 또한 관내 지역별로 주로 임대하는 기종들을 파악하여 가지 전정이 필요한 지역은 전동가위를 주로 임대하고, 과수와 밭 면적이 큰 지역에는 목재파쇄기, 퇴비살 포기, 관리기를 주로 지원하여 논, 밭 면적 크기 및 작목의 다양성에 따라 지역별 임대기종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농기계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사용률이 집중되는 영농철에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실행한다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이 심해 농기계임대료 전액감면과 영농철 특별근무 일정을 앞당기는 등 농업인의 편의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여성친화형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가까운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여성친화형농기계 임대사업 외에도 ▲365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편익 농작업 대행사업,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맞춤형 주말반 농기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임대 농기계의 25%를 여성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만들었거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농기계들이 대부분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들인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데다 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추가로 보충하거나 보급한다면 여성농업인들의 편의확대와 농가수익 증가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 “농업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방안”을 통해 임대 농기계 사용 후 평일 반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주말을 이용해 텃밭을 가꾸거나 부모님 댁 일손을 돕는 이를 위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성을 도모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임대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일손부족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류	7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캠페인-농축산업종사자
제목	결혼식 식권 대신 농산물 꾸러미 캠페인		

[제안배경]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교도소 한 교도관이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또한 그곳에서 다수가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결혼식을 미루거나 하는 예비부부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고 차츰 결혼식을 진행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결혼식에 초대하는 예비부부 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없고, 예식장에서도 식사와 묶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해보았다.

[제안]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초대하는 입장과 참석하는 입장에서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결혼식 참석은 하되, 식사를 하지 않을 하객에게는 농산물 꾸러미를 선물하는 것을 제안한다. 정부에서는 예식장 업체와 연계하여 농산물 꾸러미를 값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부부들은 일정 개수를 식권 대신 계약하고 하객들에게 나눠준다.

[기대효과]

1. 결혼식에 초대하는 예비부부 입장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초대받은 손님들도 식사는 하지 않지만 농산물 꾸러미를 선물 받는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2. 다수와 섞여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3. 농산물 꾸러미를 결혼식에 적극 활용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계약-국민
제목	아무나 하는 팜 플렉서!!		

농가 일손부족 긱 이코노미(Gig economy)로 해결

제안배경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농촌 일손 돕기 봉사인력으로 그 어려움을 메워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농촌의 인력은 부족하다.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의 일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긱 이코노미를 활용해 보도록 하자.

내용

농가에서 원하는 시간만 정하면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농가의 일에 지원하여 단기간 하는 아르바이트로 성별,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하여 농가일손을 메우도록 하자.
그것을 매개하는 역할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규직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부족한 사람이든 학비가 부족한 학생이든 지원자의 자격은 상관없이 농가에서 제시한 일의 하루 양을 채우면 일당을 받는 팜 플렉서를 양성하자. 팜 플렉서는 자신이 일한 농가에서 점수를 매겨 다음 농가 일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든, 아니면 농가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든, 농가 일에 관심을 일단 가져야 농가 일손 돕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직종의 직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직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시행 예시) 쿠팡플렉스

8 산업경제

분류	1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지역화폐와 연계된 지역 배달앱을 만들어 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 1위가 독일 회사로 넘어갔음.
2.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략 이익금의 30%를 배달앱 사용회사에 지불하고 있음(4월 4일 mbc 보도 참조).
3.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달의 경우는 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이익의 많은 부분을 수고한 지역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1. 음식 배달은 거의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앱을 지역화폐(강원상품권, 강릉페이 등)와 연계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지역 배달앱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음.
2. 인터넷에서 현재 사용하는 배달앱 1위 회사의 수수료 때문에 불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3. 외국 기업으로 전환된 시기와 현재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현 상황에서 지역 배달앱을 개발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지역 배달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4. 지역화폐는 지역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야 해당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활용에도 도움이 됨.

기대효과

1. 지역 경기 활성화
2. 지역화폐 활용성이 넓어져서 생기는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전환
3. 이익금의 30% 정도의 수수료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게 됨.
4.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 앞으로의 사회는 지역자치도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음.
5. 어떤 지역에서도 시행되지 않은 지역 배달앱을 만들어서 현재 배달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소상공인 알림 어플 및 드라이브 스루		

의식주 및 기타 기본 생활을 위한 소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를 위해 제시합니다.

- 소상공인 알림 어플(기존 강릉페이 어플리케이션의 추가 게시판)
  음식, 옷, 소모품, 전자기기 등등 소상공인들 판매제품의 재고(재고가 아니어도 무방) 희망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입니다.
  판매자(소상공인)들은 재고정리와 판매를 늘리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의식주, 생필품, 기타 소모품 등을 살 수 있어 쌍방의 이득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와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시청(혹은 구청)이 주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강릉의 경우는 '강릉페이'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홍보 및 지역화폐로 구매까지 하는 방안입니다.
-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시청(혹 구청) 소관의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대운동장 주차장(강릉의 경우 종합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사전 물품 신청 및 판매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물품수령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나아간다면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소상공인
제목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 배달료 및 포장자재 지원		

□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업체 방문 주문 대신 포장 및 배달이 급증하고 있음.
- 소상공인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배달료 및 포장재 관련 지출 증가도 심각한 위협요인임.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및 포장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 코로나19로 특별히 고통 받는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배달료 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로 지출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 –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출전표 및 배달 업체와의 거래증빙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방지
- 외식 외의 소상공인 대상 식료품 포장재 지원 – 배달 및 방문포장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소상공인에게 식료품 포장재 지원 – 음식 종류별, 식당 업종별로 자주 사용되는 포장재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량구매 후 식당마다 배분하여 원가 절감 유도

□ 기대효과

- 매출 감소에 포장재/배달료 등 부가비용 증가로 이중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고통 절감
- 소상공인의 원가를 절감하여 소상공인의 폐업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원가 감소에 따라 배달음식의 가격 인하와 품질 증가를 유도하여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위안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규제완화-국민
제목	『코로나19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와 기업경쟁력 제고		

1. 제안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 특히, 일상적인 국민생활의 마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장기간에 펼쳐질 경기침체와 실업, 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발생 현황(4.5. 00시 기준): 확진자 10,237명 / 사망자 183명
  * 해외 발생 현황(4.5. 09시 기준): 확진자 1,163,559명 / 사망자 63,759명
- 이로 인해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경제(산업) 분야의 중심축인 기업들도 매출액 감소와 유동성 부족, 경쟁력 하락 등에 대비할 실효성 높고 적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에 직접적인 역할을 제공할 산업분야(특히 제조업과 바이오산업)들과 국민생활에 놓여있는 규제 탓에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경제·생산활동에 여러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있음.
-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활용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산업과 기업 활동이라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2. 제안내용

『코로나19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코로나19의 종식 전까지 해당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에 속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검사와 확인만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도록 함.

- 코로나19 관련 산업: 해당 기업에 한해 특별제도를 적용
  - 제조업: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장비, 음압병상 및 선별진료소 설치 등에 사용되는 설비나 제품 등을 생산
  - 바이오산업(제약):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키트 개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기나 기타 약품 생산, 원격진료 시행 등
- 규제내용 및 규제완화 사항
  - 연장근로 허용: 마스크 생산, 신약 개발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연장
  - 제약 관련 인허가 및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임상시험과 관련해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선되고 있는 부분 이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품에 한해 특별 인허가 절차와 시험기간 단축을 시행.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제품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연속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특별 원격진료 제공: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코호트격리 등의 사례에 한해 신속한 진단과 환자 관리,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한 원격진료를 허용
- 이외의 산업에서도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규제가 있다면, 『코로나19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규제를 면제

• 행정사항

- 『코로나19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고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조직 구성: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별 공무원(행정인력)이 파견되는 TF 형태의 한시적 행정기관 설립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및 지역주민의 생활, 기업경제활동의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과 규제사항을 발굴할 역할을 부여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제고

3. 기대효과

- 『코로나19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감염자와 감염 우려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보호기제 등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기여함.
-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기업과 산업분야에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이바지함.
- 코로나19 극복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향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 위험·전염병 위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규제완화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아 코로나19 이후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분위기가 형성될 것임. 현재 이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할 기회로도 작용되어 향후 더 발전적인 규제개선 제도 수립과 규제로 인한 사회 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국민들과 지역사회 내에 확산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시장 딜리버리 오더 어플리케이션		

제안배경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 간 접촉을 꺼려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입원도 사라져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고안한 것이 고객이 앱으로 주문을 하면 비대면으로 제품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 간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배달 대행도 가능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

고객이 앱으로 주문을 하면 가게에 놓아져 있는 물건을 테이크아웃 해가는 방법입니다.
테이크아웃 해가는 물건은 음식뿐 아니라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모든 업체가 등록 가능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집 앞으로 배달도 가능합니다.

① 목적

1. COVID-19 확산을 억제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2. 침체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

② 방법

- 점주
  1. 업체용 오더 어플리케이션을 마켓을 통해 설치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합니다.
  3. 설치된 어플에 메뉴의 사진과 가격을 입력합니다.
  4. 고객의 요청사항에 따라 배달주문인지 테이크아웃인지 확인합니다.
  5. 제품의 포장이 다 되고 배달기사가 문 앞에 왔다는 신호를 앱을 통하여 보내면 직원이 문 앞에 제품을 놔둡니다.
  6. 배달기사가 문 앞에 놓인 제품을 가져갑니다.
- 고객
  1. 고객용 오더 어플리케이션을 마켓을 통해 설치합니다.
  2.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합니다.
  3.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메뉴를 정하여 주문을 합니다.
  4-1. 테이크아웃 요청 시 가게 앞에 포장되어 놓아져 있는 제품을 가져갑니다.
  4-2. 배달 요청 시 배달기사분이 문 앞에 제품을 놓고 앱을 통해서 알림이 오면 문 앞에 놓아져 있는 제품을 가지러 갑니다.

- 배달기사
  1.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2. 매장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배달 확인 버튼을 누르고 매장 앞에 도착합니다.
  3. 매장 앞에 도착하면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착했다는 신호를 앱을 통하여 매장에 전달합니다.
  4, 매장에서 직원이 배달할 제품을 매장 앞에 두고 가면 즉시 배달기사가 그 물품을 가져갑니다.
  5. 제품을 매장에서 고객의 문 앞으로 배달합니다.
  6. 배달 후 앱으로 제품을 문 앞에 놔두었다는 알림 버튼을 눌러 고객에게 제품이 도착하였다는 것을 알립니다.

③ 기대효과
  1. 기존 배달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값비싼 수수료에 판매자와 고객 모두 불편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진 어플을 이용한다면 판매자는 광고 수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걱정을 덜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기존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고객이 직접 제품을 테이크아웃해갈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3. 음식뿐 아니라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전염병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단점
  1.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하여 매장을 찾을 때 많은 손님이 붐빈다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⑤ 단점 보완
  1. 고객이 앱으로 주문한 제품을 가게 밖에 놔두고 직원이 안내하여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품이 나온다면 앱으로 알려줍니다. 고객이 직접 가게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품이 나왔을 때 차에서 대기하다 매장으로 와서 찾아가므로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다. 제품을 사방이 탁 트인 밖에 위치하고 직접적인 접촉 없이 곧바로 요청한 제품을 찾아가기 때문에 순환이 빨라 고객이 많이 찾아온다 하여도 감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사실상 직접 찾으러 오는 손님보다 배달주문을 하는 손님이 많기에 많은 오더가 들어오더라도 붐비지 않습니다.

분류	2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청년층과 연계한 지역상권/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ㅇ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문객이 급감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나 유통 대기업의 경우 배달서비스와 온라인 판매 호조로 영업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매출 감소로 임대료를 내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같은 시기 청년층의 경우 경기침체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창업을 위한 지원책도 연기 또는 지연되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 방문객을 무한히 늘릴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달,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도입이 필요하나 기존 사업자들은 온라인 판매, 쇼핑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청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전통시장 상품을 지역 내 배달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ㅇ 성공사례

- 최근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 농가를 살리기 위해 산지에서 폐기 처리되고 있는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기관 및 조합 등도 지역특산품 등 상품 판매를 위해 네이버 등 기존 온라인 쇼핑채널과 연계한 유통채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동네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ㅇ 주요내용

- 접근 방안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무료로 입점 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네이버, 시럽 등 기존 플랫폼에 입점 시키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두 방법 모두 입점은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일괄로 처리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 입점 업체들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 거주 청년들에게 그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며, 업체 섭외, 상품등록, 판촉 등을 청년들이 담당하고, 배달 업체(배달대행업체-부릉 등)를 통해 판매업체에서 주문자까지 배송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청년들은 해당 업체의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수수료로 받게 되고, 결제는 지역화폐, 만나서 현금결제, 카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청년층은 무점포, 무자본으로 창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동네가게들의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할인 효과-현재 10%)를 찾게 될 것입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품질에 관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보내는 경우 품질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품질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무료 반품을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층이 담당 MD의 개념으로 해당 매장을 직접 관리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퇴출시킬 수 있는 권리는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시장, 업체 등이 소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점 수수료는 없다고 하나, 물건 판매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상생지원예산 등을 활용하여 초기 수수료를 보전한다면, 가입자 확보와 채널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접근하고 있으며, 올해 그 성장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온라인 판매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아직도 동네에는 배달되지 않는 맛집, 채소, 과일 등 가게, 분식집 등이 많습니다. 그들도 온라인 판매는 효과적인 매출 증대 수단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익숙하지 않고, 수수료 이슈도 있으며 광고 홍보 등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이 나서서 해결한다면 잊혀져가는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류	2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서비스-국민
제목	지역특산물 판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국적 지역별 특산품 통합시스템		

강원도지사님의 감자 판매와 같은 소식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접속자들로 서버가 다운되고 순식간에 판매가 매번 종료되어 본인도 결국 10여 번의 시도 끝에 구입해보지는 못했다.
이런 지역특산물이 큰 인기를 얻은 것은 대략 첫째, 저렴한 가격(너무 저렴했지..), 둘째, 택배시스템, 셋째, 간단한 웹서핑으로 간편한 구입 가능.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 감자와 같은 저렴한 직거래 정보가 개인적으로 너무 늦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특산품들, 특히 농어촌, 산촌의 판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 산발적이고 단기간이며 모든 대중에게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청도지역의 미나리와 한우, 버섯 조합으로 몇 세트를 대구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으로 판매했는데.... 청도인인 나도 행사가 끝난 후 기사로 알게 되었다. 너무나 접근성과 홍보가 약하다. 작은 지자체들의 힘으로 이런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안한다~~~~~@@@@
전국 지역특산품의 정보와 홍보를 하나의 매체에서 관리하고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특산품의 판매제품을 만들어 판다면 유통마진을 줄이고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지자체는 자기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하다. 그 정보를 하나의 채널에 각자의 특산물을 연결하여 홍보, 판매하는 전략이다.
예로.... 전국지도가 있다.
거기서 동해에 클릭을 하면 그 지역의 현재 판매 가능한 특산물이 뜬다.
청도지역을 클릭하면 현시점의 특산물인 버섯, 미나리, 딸기 등이 뜬다. 거기에 미나리를 또 클릭하면 미나리와 연계된 다양한 등록된 판매상품들이 뜨고 주문할 수 있다(미나리, 미나리+한우+버섯, 딸기).
이렇게 지자체는 각 시즌별 판매상품들을 농가와 사전 협의하여 다양하게 판매상품들을 만들어 홍보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전달하고 배송한다.
여기서 택배사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저렴한 단가, 지원정책 등을 마련한다.
전국의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가 지자체의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농가에 수익을 주고 소비자들은 유통마진이 최소화된 좋은 상품을 집에서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다른 위기상황 때에도 내수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분류	2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지역 주도의 공공배달서비스정책		

제안배경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람들의 외출이 자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어 힘들어지고 여러 분야에서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외출이 자제되어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배달 어플을 지원하지 않는 시장, 슈퍼 등의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어플의 수수료 비용 등으로 공공배달 어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배달 어플을 만들었고, 경기도에서도 자체 배달 어플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내용

배달 어플과의 협력 또는 배달 어플을 만듭니다. 시단위 또는 구, 동 단위로 배달범위를 지정합니다. 배달범위 내에서 활동할 배달원을 모집합니다. 오토바이가 없어도 됩니다. 자가용, 자전거 가능. 시청 또는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신분증을 기관에 맡기고 배달을 시작한 뒤 끝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배달원은 온도를 측정하고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결제방법에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돕습니다.
배달 앱에서는 배달되는 가게를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문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범위일 경우 접수받고, 범위 밖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됩니다.
(주문내용: 예)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배달비는 모두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비용은 최대한 적게, 배달비는 모두 배달원에게 지급됩니다.)

기대효과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도울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이 지원되지 않았던 가게들을 지원함으로써 가게 매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등의 초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전거나 자가용이면 충분합니다.
외출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방역활동을 도웁니다. 배달대행 회사나 어플 회사를 통하지 않아 중복비용을 줄입니다.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규제완화-민간기업
제목	군 정기공수를 활용한 저비용 항공사 생존 지원 방안		

1. 제안배경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각국의 국경 통제 강화와 항공 운송의 감소는 항공업계의 침체를 불러오고 있으며, 특히 국외 노선 비중이 높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이러한 추세에 의해 다수의 기체들을 주기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구조조정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형 항공사들과 달리 B737과 A320의 단거리 소형 기체 위주의 LCC들은 비교적 좁은 시장과 낮은 자본 규모로 인해 어려움이 훨씬 큰 상태로 볼 수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LCC에 보다 초점을 두어 경제적 피해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내용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LCC의 국군 정기공수 서비스 참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1) LCC의 국군 정기공수 서비스 참여 허용

현재 군에서는 현역장병과 군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대구, 김해, 수원, 제주 등 주요 공군기지 간에 수송기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여 군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한 승객과 물자를 운송하는 정기공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저비용 항공사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한시적으로 참여하여 업무위탁 형식으로 이용객 및 보안등급이 낮은 일부 화물의 운송을 대행한다면, 이는 침체 상태에 있는 항공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군기지의 다수가 지방공항과 활주로 및 주요 시설을 공유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지방공항의 비중이 높은 LCC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운영방식은 평시에는 LCC 소속의 민항기가 운항되다가 기상 불량이나 위기상황에는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 업무에 따른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정비 업무는 항공사에서 담당하되, 급유와 수화물 운송 등은 군에서 맡는 형식으로 지원업무를 분담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저비용 항공사들은 군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기존 항공기의 가동률 증가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함으로써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항공사의 기존 승무원 및 정비인력의 활용을 통해 항공 부문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군 역시 민항기 이용을 통해 1) 주력 수송기인 C-130이 프로펠러 날개 특성에 따라 비교적 소음이 큰 점을 보완하여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 감소, 2) 수송기 대비 높은 탑승감에 따른 이용객의 만족도 증가, 3) 수송기의 임무 부담 감소 및 훈련 - 중량 화물 운송·해외 운송 등 타 임무에서의 활용 증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분류	2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사회적 규제-소상공인
제목	군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조기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최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매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특히 외출과 모임이 없어지면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 복지포인트는 조기 지급을 요청합니다.
군인 복지포인트는 군인에게 지급되어 해당 연도 1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매분기마다 지급되는 포인트 1년분을 조기 지급하고 1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6월까지로 단축한다면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마중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류	3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빅데이터로 최적경로를 구성한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 전용 실시간 무(無)노선 택배 차량 운영		

제안배경

현재 코로나 확진자 중 집에 있어야 하는 격리자들은 긴급의료용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중증환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물품 구매 택배 배달을 통해 긴급히 의료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문제는 택배기사들도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환자와 비간접적으로 근거리에 다가가게 되니 불안하고 그 택배기사와 접촉하는 다른 택배 주문 고객들도 혹시 모를 감염위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물론 택배기사와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서로 의도치 않게 근거리에서 접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택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택배기사들에게 매일 방역복 같은 것을 지급하고 모든 택배 차량을 매일 소독하면서 택배 배달을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택배 배달 시간이 늦어지고 택배 배달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됩니다. 택배기사를 거부하고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택배 배달에 문제가 생기면 현재 대한민국이 국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고심한 결과 첫 번째로 몸이 불편한 코로나 자가격리 환자들에게 현재 택배시스템 수준의 빠르고 정확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두 번째로 택배기사들이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 택배기사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안함을 제거해야 하며, 세 번째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로 생필품과 긴급의료용품을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맞게 설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자가격리자 거주 지역을 빅데이터화하여 최적 배송경로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수정·구성하고 이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긴급의료용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전용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 차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환자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사실상 택배 배송으로 생필품과 긴급의료용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배기사들도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과 비간접적으로 근거리에 다가가 접촉하게 되니 불안하고 그 택배기사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도, 특히 다른 택배 주문 고객들도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노출될까봐 불안해합니다. 물론 택배 기사와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서로 의도치 않게 집 앞에서 접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택배 업체에서 매일 택배 배달 차량을 꼼꼼히 방역 소독할 수도 없고, 택배기사에게 매일 새로운 방역복을 입히고 택배 배달을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택배 배달하기도 불편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매일 소독과 방역작업을 하다보면 택배 배송에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므로 전국적인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기고 택배비용이 추가되어 전 국민이 불편함과 경제적 비용으로 고통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 중증 자가격리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택배 배달을 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부로 외출이 금지되어 있기에 생필품과 긴급의료용품은 거의 며칠단위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에게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하고 불안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과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감염 위험과 불안감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만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전용 택배 차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로 실시간 최적 배송경로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택배 차량이 이동하는 배송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설명하자면 자가격리자 혹은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는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 위치한 누가 현재 확진자고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실시간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격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격리자 데이터를 실시간 운용해서 택배 배송 지시를 내리는 것이니까요. 혹시 모를 부정수급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 격리자들을 대상으로만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차량을 국가에서 각 지역별로 택배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합니다(자가격리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에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물품을 대리 구매하여 자가격리자 전용 택배 배송 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해주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택배 차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 국가에서 코로나 격리자 전용 택배 배달 차량의 전문적인 방역과 소독을 매일 하고, 코로나 격리자 전용 배달 택배기사에게 매일 새로운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지급하고 코로나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선구적인 예방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코로나 격리자의 정확한 거주지 위치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배송경로를 구성하여 배달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각 지역마다 새로 담당인원을 구성하여 코로나 격리자 전용 택배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택배기사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택배 배달의 경우 택배기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일정구역을 순회하면서 배달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코로나 격리자 전용 택배 배달의 경우는 기존 택배 배달보다 택배기사가 한 명당 담당하는 지역은 넓어지면서, 배달 숫자는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택배 배송지마다 이동간격이 기존보다 먼 편입니다. 그러니 기존 택배보다 배달 한 건당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걸립니다. 당연히 국가적 위기에서 감염격리자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상 목적 택배 차량이니 어느 정도 보조금은 지원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추가 비용과 너무 지체되는 시간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배송시간이 기존의 택배보다 오래도록 지연되는 것은 중증 자가격리자에게 치명적일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행 수준의 일반적인 빠른 택배 배송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택배처럼 일정경로를 매일 순회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가격리자 거주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동적으로 교통 이동경로를 택배기사에게 제공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자들 위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교통상황과 배송에 걸리는 시간, 배송지마다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배송경로를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파악하여 택배기사에게 실시간 어디를 통해서 어느 주소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택배 물건을 배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도착지 위치 지정을 하면 그에 따라 시스템에서 주요 갈림길에 도착하면, 이동지시를 실시간으로 해주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위성 GPS를 통한 미터 단위 초정밀 최적 경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최적 배송 경로 구성은 현재 존재하는 교통시스템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비슷하게 있는 것을 변형해서 활용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들려야 할 경유지 정보가 많고, 도착지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여러 곳의 도착지들을 파악하여 최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단경로를 실시간으로 구성하여 이 정보를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기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변형해서 적용만 하는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기술적 사항에서 문제되는 게 없을 겁니다).

1. 자가격리자에게 기존 택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한 물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해줄 수 있다.
2. 기존의 보통 택배기사와 다른 일반 택배 고객들의 감염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따라서 택배기사로부터 2차, 3차 감염위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없앨 수 있다.
3. 특정 택배 차량과 특정 택배기사만 매일 소독과 방역 관리를 하게 됨으로서, 전수적으로 모든 택배 차량과 모든 택배기사의 소독과 방역관리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소독과 방역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사회적인 비용 절감이 된다.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조세지출-국민
제목	소비심리 증가를 위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위축된 소비심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류세, 개별소비세 감면과 같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선례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재난기본금을 지급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되어지나, 그 인원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가 소비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구가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때문에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서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소비를 하면 바로 체감이 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생각해봅니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 다양한 계층의 인원들이 그동안 구입하고 싶었던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하려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공장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휴직 중인 기업에 고용 유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를 통해 소득세를 다시 걷어 들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합니다. 많이 사고 적게 사고의 차이가 있을 뿐, 작게는 식자재부터 외부로 장을 보기 힘들거나 자가격리로 인해 배달음식을 먹게 되는 인원은 지금 가장 힘든 요식업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요식업은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무너지는 가게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생길 것입니다.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에 구입하자라는 생각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진행한 소비로 인해 전체적인 사회의 사이클이 소비 → 생산 필요 → 인력 필요 →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급여 지급을 통한 소득세 발생 → 휴업에서 현업으로 돌아왔음으로 다시 소비가 가능.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지역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소비를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해야 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발생해야 만들어 낼 수 있고, 만들어 낼 것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을 해야 세수를 걷을 수 있습니다.
소비심리를 올리기 위해서 사각지대의 모든 인원을 감싸주기 위해서는 부가세 면제가 필요합니다.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국민
제목	각 지역별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용한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현황

1. 코로나19 사태 전, 많은 지역에서 대표 특산물(농수산물, 꽃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얻고 있었음(한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을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면 많은 지역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옴).

[직접효과]
ex. 영양군, 산나물축제
1.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은 관광으로 내수관광 및 경제 활성화 효과(지역 상점 활성화(숙박, 교통, 관광기념품, 입장수입 등))
2. 농·어민 소득 증가(농수산물) 등
3.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농수산물 구입 가능 등등

[간접효과]
1. 지역별 승수효과, 고용효과, 세수효과, 지역개발효과
2.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관련 모든 행사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ex. 고창-청보리밭(대한민국 대표 경관축제), 정선군-곤드레나물 축제, 흑산도-홍어축제, 구리 유채꽃 축제 등)
3.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착한 소비자운동'에 동참

   * 착한소비자운동은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업체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는 운동

   ex. ①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업무추진비와 임직원 식대 등 비용을 평소 이용하던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결제 진행
   ② 이마트 등 대형마트, 코로나 사태 여파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의 1년 치 물량을 사들여 싼 가격으로 판촉행사(출처: 서울이코노미뉴스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96, http://www.seouleconews.com)

○ 제안 요지

- 코로나 사태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지역축제 취소와 급식 중단, 소비 부진 같은 코로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많은 기업, 단체 및 개인들이 그들을 돕긴 하지만 이는 일부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착한소비자운동'을 알지 못함.
- 더불어 일부 지역은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방안 마련하지만(지역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상설장터 운영 및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시행), 홍보 효과 미비 및 통일성 부족으로 복잡

○ 구체적 제안내용

1. 많은 기업 및 소비자들이 '착한소비자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통일된 플랫폼 만들기 (ex. 동일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 지역특산 농수산물 판매 시행)
2. 현재 각 지역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용한 피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연계(서울(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 경기(고양페이, 부천페이), 인천(e-음카드), 대전, 경남 등 기존 지역화폐시스템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 각 모바일 화폐에는 기존 e-쇼핑몰이 있습니다. 이곳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농수산물을 홍보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및 지역화폐 모바일에 '봉사 혹은 기부' 칸을 만들어 피해 농민들 혹은 소상공인에게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재난기부금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지원금을 나보다 힘든 다른 누군가에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단돈 1,000원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지역별 일정금액을 설정하고(ex. 100,000만원), 그 금액 이상을 기부를 했을 때, 나라에서는 세액공제 및 해당 지역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그 지역 대표 농수산물을 작게나마 보내주는 시스템(현재 문정부 "고향사랑기부제" 및 일본, 고향기부제 참고해 아이디어 얻음)

○ 개선 기대효과

1. 현재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피해지역 농수산물을 통일성을 가지고 판매하면 훨씬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해지기에 참여 및 소비효과 증대
2. 판매하는 지역도 각 지역별 플랫폼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에 편의성 증대 및 관리용이
3. '맛남의 광장'도 지역특산물 및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동 지역화폐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만들면 훨씬 증대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 생각함.
4. 현 문정권의 국정과제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산위기인데, 이를 잘 연동시키면 실행 가능 및 많은 국민들, 농수산인 및 소상공인에게도 코로나19 극복위기에 도움
   (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3011009&wlogtag3=naver)

분류	4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조세지출-국민
제목	코로나 기간 중 소비활동 적극 참여시 연말정산 시 혜택 적용		

배경

소비심리 수축 - 매년 연말정산 후 과세부담

내용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소비자에게 연말정산 시 일정한도의 혜택을 줌 -혜택이 적용되는 월(즉,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월)을 한정하여, 그 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는 세금 혜택을 주도록 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 - 특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 소상공인 위주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좋음.

기대효과

소비심리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 기여 - 소비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 - 연말 이후에도 경제활동 격려 효과

분류	4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국민
제목	마켓컬리의 로컬화 (더 구체적인 '동네 속 가게' 딜리버리 계획안)		

제안배경 및 문제점

1.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판매나 시장 딜리버리, 지역화폐 배달앱 개발 등 결이 비슷한 제안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네 속 소상공인들의 삶에 일일이 침투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다.
2.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지도 앱을 통해 마스크 수량 확인이 굉장히 용이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협조만 한다면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 마트들도 커넥션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안목적

1.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달, 택배가 특화된 나라에서 채소, 육류를 비롯한 식재료, 생필품을 '동네 속 가게'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2. '마켓컬리', '쿠팡 프레시'가 표방하는 시스템은 철저히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슷한 품질의 야채를 사러 귀찮은 발걸음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3. 하지만 세상은 아직 트렌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색한 어르신 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매장에 방문해 면대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늘 봐왔던 익숙함 덕분에 동네 속 소상공인들도 존재함인데, 비상시국인 만큼 이들도 새로운 시장에 적극 투입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1.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B마트처럼 식재료, 생필품 딜리버리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한다.

1-1. 홍보에 쓰이는 예산, 그 파급력을 고려해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 같으면 이미 널리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과의 협조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2. 공적 마스크 배부 및 재고를 확인하는 네트워크가 전국 모든 약국에서 이루어졌듯, 전국 모든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급에 준하는 중·대형마트 제외. 편의점 제외)가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배달원은 요새 트렌드인 자전거 배달, 킥보드 배달, 우버이츠 같은 시스템을 고려하여 전문배달원이 아닌 시민이 자투리 시간을 내어 일을 할 수 있다.
4. 대형 거래처에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나 판매자 입장에서나 마냥 '효율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당연히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인건비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

기대효과

1. '긴급재난지원금'이 요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 '마켓컬리의 로컬화' 아이디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각도로 재난 지원을 비롯한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해오며, '외출을 자제하고, 생필품을 주문해서 받기'까지는 기존의 소비자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되는 것은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동네 속 소상공인이다. 집에서 가장 가깝고, 늘 찾아가던 슈퍼에서의 배달받는 것이 핵심이다.
3. 전국에 수많은 가게들을 어떻게 케어하나, 이미 공적 마스크 배부를 통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다. 정부의 추진력과 이미 상용화된 딜리버리 시스템을 잘 조합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계약-국민
제목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및 금융지원 원스톱서비스!		

제안배경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들 대부분 심각한 경영자금난을 겪고 있음.
-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신청자가 몰려 상담과 신청접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
-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걱정 없이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경영애로자금 대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애로상담 및 현장컨설팅을 진행하자는 것이 주요내용

-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및 금융지원 원스톱서비스!
  - 이동식천막 및 이동식차량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찾아 영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관련 대출상담과 지원신청을 위한 서류를 현장접수
  - “영세 소상공인 협약대출”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대출”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대출상담과 지원 신청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게 됨.
  -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상담과 비용도 지원하고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예를 들어 지역의 주요시장과 번화가 상권 등 소상공인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을 위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상담소 및 금융지원 원스톱서비스를 대구, 구미, 안동, 김천, 포항, 경주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계획
  -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휴일에도 운영하여 편의성을 높임.
  -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발급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전년도 연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업소
  -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과 무도장, 휴·폐업 사업장 등은 제외
  - 시급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정책개선 체감도를 향상

기대효과

- 기동력을 갖춘 이동식 차량으로 지역의 주요 시장과 번화가 상권 등 소상공인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을 순회하며 경영애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지원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해 대출시기 쏠림 현상과 특정 시기에 자금이 고갈

되는 문제를 해소함.

-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통해 대출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반응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소상공인 살리기 맞춤형 지원시책과 지원시설, 자금규모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영여건 개선
- 지자체와 지역은행들이 협업하여 지역기업과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실질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하게 됨.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국민-캠페인-소상공인
제목	떴다, 셀럽! 우리 동네 상권을 유명인이 추천합니다		

식당이나 쇼핑몰 등 연예인이나 영화감독, 유튜버,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유명한 공인들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들리면 보통 그 명성을 입고 인기가 치솟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곳이니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만큼 믿음이 가기도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연예인들이 동네 상권을 SNS 상에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방문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 수공업자나 디자이너의 개인 작품이라거나 맛있는 동네 배달음식점 소개 등 주로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상권 위주로 용기를 북돋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유명 셀럽들이 좋은 마음에서 고액의 광고비 없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SNS 홍보를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연예계나 각종 협회에 직접 봉사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신기로 유명해진 구두처럼, 이런 아름다운 사례가 늘어난다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연예인 스스로에게도 미담으로 남아 윈윈일 것 같습니다.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조세지출-국민
제목	이장, 통장 수당 일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현황]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장·통장은 현재 총 9만5198명임.
- 이장·통장은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제안내용]

이장·통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수당 30만원 중 10만원을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10만원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시 연간 지역 소비금액: 1,142억 원 (=95,198명 × @100,000원 × 12개월)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소비 증진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국민
제목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료 한시적 인하 정책 추진		

1. 제안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급휴직 → 무급휴직 → 실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대처로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가 관리되고 있지만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계층은 중위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자 등은 기존 지원정책에 더해 지자체, 국가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음으로써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은 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근로자 등은 실직 등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각종 재난지원금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자가 더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위 계층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실천방안

- 토지주택공사, 자치단체공사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중위 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부과되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참고자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5월 3개월간 특별재난지역은 소득 하위 50%, 나머지 지역은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초과 가구부터 중위소득 일정기준 이하 가구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해 준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위한 자산, 소득 조사를 실시하니 그 자료를 활용하여 즉시 실행이 가능하고 사후 자산 및 소득이 늘어난 계층에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환수하도록 한다.

3.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계층의 임대료 인하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실질적 증대 효과
-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소비로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 촉진 가능
- 기초수급자 등 최하위 계층에 비해 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형평성 강화

분류	5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계약-국민
제목	지역 우수/신생기업 공공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안배경〉

1.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행/관광/숙박/요식업 등의 분야뿐 아니라, 관광산업 및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농어촌지역 등 지방경제가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음.
2. 신생기업이지만,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필수 육성산업 분야이거나 우수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시급함.
3. 지역기업이라는 특성(중소규모/인지도 저조) 등으로 인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음.
4. 지금까지의 코로나 모금 및 지원은 취약계층과 민간단체가 주요 대상이었음.
5. 전국 지자체가 잉여농수산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큰 호응을 받은 것처럼, 우수 기업 긴급 후원금 모금 또한 성공적이라 기대됨(강원도의 감자/아스파라거스 판매, 포항시의 횟감 판매 등).

〈내용〉

지역 우수/신생기업 공공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제안함.

1.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산업분야/신생 기업 등 정부의 우선 지원 배제대상/사회적 기업/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주요기업들을
2. 각 지자체가 추천하고 보증하여
3.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 누구나 후원할 수 있는
4.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함
5. 각 기업 프로필, 비전, 위기상황, 극복방안(자구책), 도지사/시장/군수 등의 후원 독려 영상 및 보증을 플랫폼에 소개함
6. 단순 후원금 기부부터 각 기업의 자구책으로 마련된 특가상품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함. 우수 후원자에 대하여 기업 생산품(기념품) 등 사은품과 지자체, 정부 감사증(감사패) 전달, 홍보 이벤트 및 추첨 행사를 통한 상품 증정도 가능(상품은 지원 대상 기업의 생산품으로 가능)

〈주의사항〉

- 지역 정치인과 연관된 기업을 배제하여 비리 논란을 차단함.
- 지역 의회 또는 지역 상공회의소 등의 승인을 거침으로써 지자체장 독단으로 인한 폐해나 부정사례를 원천 차단함.
- 최근 10년간 범죄 연루 및 의혹이 없는 기업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검증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함.

〈공동사업주체〉

전국 지자체/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지역 상공회의소/기존의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미디어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하여 제반 비용 및 절차를 분담하고 홍보 등을 함께 함.

〈기대효과〉

1. “플라이강원” 등 신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우선지원에서 배제되었으나, 지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꼭 필수적인 우수기업들의 활로를 마련함.
2.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방 기업들의 홍보효과도 함께 거두어 기업의 홍보 비용 경감과 잠재적 소비자 확보에 도움.
3. 기업의 비전 및 건실한 경영 등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여 경영위기 해소에 기여
4. 지역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지자체장이 함께 공헌하여 극복함.
5. 국민들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우수기업들의 생존과 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향유함.
6. 기존의 코로나 대응 성금 모금과 농수산물의 특가판매의 폭발적 인기를 근거로 하여, 두 가지 장점이 혼합된 본 아이디어에도 많은 호응이 따르리라 기대됨.

분류	5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국민
제목	주요 대도시권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확대 시행(방역강화/비용경감)		

〈제안배경〉

- 감염예방을 위해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자택근무/출퇴근 유연제 등이 장려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여전히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고 있음.
- 지하철, 버스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 출퇴근 시간 혼잡은 그대로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승객이 줄어든 만큼 대부분의 대중교통 또한 운행횟수를 줄임으로써 차량 내 밀집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짐.
-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감소한 만큼 생계를 위해 출퇴근이 필수적인 직장인, 사회소외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음.

〈내용〉

이에 "주요 대도시권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세부내용〉

- 현재 서울 및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부분 시행 중인 첫차~6:30까지의 조조할인제를 확대하여
- 매일 출퇴근 인구가 상당한 전국의 주요 광역/도시생활권(부산,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 시간 또한 첫차~7:00 등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함(각 도시의 생활패턴, 직장인들의 혼잡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목적〉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직장인들의 집중시간을 줄임으로써, 여유로운 출퇴근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 방역 강화와 직장인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방안〉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거나, 지하철의 경우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지하철 모두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조할인제 추가 도입에 따른 투입비용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음.

〈기대효과〉

-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적절한 대응이면서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장기간의 코로나 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정책이다.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인들 및 사회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 지자체들 또한 기존에 마련된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큰 부담이 없는 경제적 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 운수업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 자차 이용 증가, 재택근무 등으로 급감한 이용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상 손해를 - 방역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위험하다고 보는 기피 이미지를 극복하고, - 조조할인제 확대를 통한 이용객 확보와 보조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
-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막차 1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기존의 운행횟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편익은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임.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전통시장, 공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배달시스템 도입)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지양,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생김 -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기존에도 사용이 줄고 있던 전통시장의 경우 이용자가 매우 급감하였다. 하지만 배달 업체의 경우 지금 상황에 더 활성화가 되었다.
- 학교 온라인 개학에 의한 농가에 타격이 크다.
- 코로나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제안내용

-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농가 및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준다.
- 시스템은 사람들이 보기 쉽게 품목을 보여주고 그에 맞는 상권을 안내하여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배달해 주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예상 - 결제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더 넓은 이용자를 확보한다.
- 배달을 직접 고용형태로 진행 혹은 배달 대행업체 이용

기대효과

- 지역농가와 소상공인을 도와 각 지역의 내수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결제방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후에도 사용 가능
- 배달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생김

홍보방안

- 시스템 가입 시 소정의 포인트를 주어 이용자들의 관심 유도
- 그 달의 구매왕, 반짝 세일 등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참여 활성화. 그 외에 SNS, 지자체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현수막, 포스터 등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정보제공-소상공인
제목	우리 동네 상권지원 방안		

※ 우리 동네 재난기금 사용처 스티커 제작 및 배부

1. 제안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 도, 시 지자체에서 재난기금을 지원해줘서 신용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재난기금이 신용카드사 별로 사용처가 다르고 지역화폐 사용처라고 나와 있는 곳도 직접 가보면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아직도 사용되는 곳/사용 안 되는 곳으로 나뉘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네를 벗어나 멀리 사용이 된다는 마트나 음식점까지 찾아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재난기금 사용이 현재 동네에서 거의 사용이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안내용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재난기금 사용처 스티커'를 제작하고 가게에 배포하여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한다.

3. 기대효과

3개월 안에 사용되어야 하는 재난기금을 각 동네에서 다 소비될 수 있게 지역주민이 함께 알리고 적극 동참한다면 어려운 소상공인의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축된 경제 소비 심리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분류	5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캠페인-소상공인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조기사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이벤트 실시		

1. 제안배경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소비 촉진으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 중앙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비를 하여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실업자 등의 증가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급격히 감소하였기에 하루 빨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정상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지원금의 조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실행방안

5.4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을 받는 일반 국민들의 조기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급일로부터 보름 또는 한 달 이내(기간은 다르게 정할 수 있음)에 일정비율(50% 또는 100%) 이상을 조기 소비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상품권 또는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재충전시켜 주도록 한다. 온누리 상품권 지급, 지급액의 5% 재충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 재난지원금의 목적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조기사용 유도로 국내 경기 회복 속도 상승

분류	6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국민
제목	지역 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의 한시적 사용처 확대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그 사용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역 페이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새롭게 유입되는 사용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과 업종을 제한하여 발급하는 지역화폐들은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 없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좋고, 지자체는 지역경제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지역 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보면, 정작 내가 자주 가는 우리 동네 업체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지역, 업체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들의 경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당장 생계가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력을 소비할 수 없기에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회원가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지역화폐/상품권 활용이 예정된 현 시기에 일시적으로라도 모든 소상공인/소형 시장에 해당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골목상권 및 영세한 소상공인 활력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서울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여 순항 중인 가운데 사용자들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하는 비중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이용자들은 편의점, 대형시장 등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업체들로만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혜택을 봐야하는 지역 내 업체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문제입니다.

2-1. 적용방안

제로페이와 모바일 상품권 등 사용처 제한을 일시적으로나마 포지티브(Positive) 방식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지역 내 소상공인(지역 내 소규모 시장, 상점, 점포 등)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 등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체크페이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이 아닌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권한을 오픈해주고, 사용자들에게는 모든 골목상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2. 결제처리

지역 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역화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간편결제 앱 또는 지역화폐 앱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사업자등록번호 인증) 후 바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일반 이용자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상인들의 모바일 앱 화면을 스캔하고, 해당 QR코드를 통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지불처리가 완료되도록 구축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도 현재 주어진 시스템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빠른 시간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지역 내 소외된 업체,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역화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등 복잡한 결제방식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업체에게 우편 등으로 QR코드를 배부할 필요 없이 이용자-공급자 간 핸드폰 인증만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제방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인증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 혜택으로 인한 자금 순환으로 보다 높은 정책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해당 결제방식을 통해 향상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페이, 상품권 등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식당을 빌려주세요. 도시락을 만들겠습니다.		

제안배경

식당의 빈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자.
현재 임대료 감면 등의 착한 임대인운동 등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은 줄어들고 있다.
손님이 없는 식당을 살리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용

식당은 주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은 8시~2시 주방을 활용하고, 저녁식사는 보통 6~10시정도면 마감을 한다. 그럼 10시~8시까지는 주방은 비어있게 된다. 이 비어있는 주방을 지자체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자.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비어있는 식당 주방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아침을 제공하도록 하자.
지자체는 식당 임대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시락을 만들 업체를 선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자.

기대효과

식당은 임대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의 식당 위생 상태를 스스로 공개해 식당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자체 대여 식당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당을 홍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저렴한 가격에 주방을 대여하여 취약계층의 도시락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고,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락을 공급받아 배고픔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지역 전통시장 중앙부분 고객 공용 카페 설치		

1. 목적

코로나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 전통시장을 많은 사람이 오기 위해 전통 시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전통시장 내부에 확보하여 종래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내부에 올 수 있게 유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2. 개요 및 설명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용 불편에 관한 개선사항과 그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서 얻는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통시장의 가장 나쁜 특징은 빽빽한 케이지 닭장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상인들이 빽빽하게 있고, 좁은 통로를 다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도 계속 쉴 곳 없이 걸어가면서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어디 앉아서 쉴 곳이나 이야기 나눌 장소 없이 계속 걸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쇼핑만 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야외에 2층 테라스 같은 곳에 의자와 선반을 설치하여 쇼핑하는 도중에 고객들이 쉴 수 있고, 지인들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느 데에나 있습니다. 동시에 마트 안에 음식점도 있으므로 쇼핑 도중에 먹고 마시면서 휴식을 나누며 지인들과 즐겁게 수다를 나누며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쇼핑도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전통시장과 달리 넓고 조용한 환경에서 종류별로 분류된 상품을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차이점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따라할 수 없는 것과 따라할 수 있는 것,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고 대형마트를 따라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대형마트는 없는 강점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특징인 좁은 통로에 빽빽한 케이지 닭장처럼 상인들과 가게들이 있어 산만하고 시끄럽고 어디서 어느 상품을 사야하는지 헷갈리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많고 각자가 자신의 가게에 영업하는 곳이고 한정된 공간을 구획하여 나눠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변할 수 없는 고유의 본질 가치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양한 가게가 존재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본질적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만 하는 곳이 아니라 휴식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음식과 음료 그리고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돼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휴식이 가능하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전통시장 중앙부분 내부에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의외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단지 좁은 가게들이 빽빽이 차있어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중앙부분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고객 공용 휴식장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마트처럼 넓은 휴식공간은 확보 못합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좀 있다면 전통시장 내부에 하나가 아닌 몇 개의 소규모 고객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전통시장 내부 중앙 부분 몇 곳(2~3곳)에 소규모 고객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 고객들이 휴식하고 먹고 마시고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게 몇 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의 휴식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소규모 기자재와 청소 관리 등은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뿐만 아니라 가벼운 먹거리와 마실거리 등도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상점의 음식과 음료 등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전이나 닭강정, 떡, 주스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한곳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 전통시장 여러 가게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통시장 가게들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고객들이 어떤 가게가 마음에 들고 어떤 가게 음식이 맛이 있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각의 날마다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전통시장 고유의 매력으로 자리 잡고 독특한 전통시장 문화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획일화된 음식, 획일화된 규격으로 매일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날마다 가게별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내놓아서 팔면 고객들은 비슷해보여도 날마다 다른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되므로 그 다양성과 독특함에 반해 더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대형마트만 가졌던 장점인 휴식공간까지 제공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다니면서도 휴식공간에서 지인들끼리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전통시장 금전적 소득 입장에서도 고객들이 시장을 돌아보고 바로 가는 것보다 오래 체류하며 이것, 저것 먹고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만큼 전통시장 내에 쓰는 돈이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휴식 공간 설치로 인해 한명이 전통시장에 오게 되면 담소를 나누기 위해 지인들을 부르게 되고, 더 편리해진 전통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므로 실질적인 고객 증가를 이끌어내고, 이는 전통시장 수익 증가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상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누군가 전통시장에 물건을 사러 와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잠시 중앙에 존재하는 휴식장소 카페에서 쉬며 수제 커피와 수제 음식을 사먹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친구들을 부르면, 친구들 여러 명이 와서 함께 휴식장소 카페에서 이것저것 수제 음식과 수제 음료들을 먹고 마시다가 이왕 온 김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 물품들을 구매하며 장을 보게 됩니다. 또한 휴식장소 등의 부재로 전통시장에서 쇼핑 내내 계속 걷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대형마트를 이용했던 고객들도 대형마트 대신에 더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각 가게마다 다양한 음식과 음료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기존보다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여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목표

위 아이디어 전통시장 중앙부분 고객 공용 카페 설치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3-1. 전통시장 내에서 휴식장소와 먹거리 제공 장소로 고객들의 이용만족도가 증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 쇼핑하는 내내 앉을 데도 없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했기에 여성들과 노인들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에 휴식장소가 카페 형태로 제공된다면 쇼핑 도중에 앉아서 쉬면서 쇼핑을 할 수 있기에 편하고 만족할겁니다.

3-2. 전통시장 내에 고객수가 증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중앙부분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을 겸용하는 카페를 설치하여 시장에서 만든 수제 음식과 수제 음료를 가게별로 종류별로 제공하고 고객은 쇼핑 도중에 쉬면서 중간 중간 휴식장소에 들러 먹고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음료를 즐기게 됩니다. 또한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쇼핑하게 됩니다. 전통시장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장소가 없어서 가질 않았던 사람들도 전통시장에 가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으로 인해 전통시장에 사람들은 기존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4. 기대효과

전통시장 내에서 휴식장소와 먹거리 제공 장소로 고객들의 이용만족도가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 쇼핑하는 내내 앉을 데도 없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했기에 여성들과 노인들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에 휴식장소가 카페 형태로 제공된다면 쇼핑 도중에 앉아서 쉬면서 쇼핑을 할 수 있기에 편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고객 수 증가와 상품 판매 증가로 상인들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먹고 마시게 되는 음식물의 판매와 동시에 특 휴식 장소에서 오게 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함께 쇼핑을 하면서 사게 되는 물건들로 상품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캠페인-국민
제목	이모티콘 공모전 = 사회적 거리 유지 + 희망찬 안부 + 예술인 활동 격려		

배경

-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음.
- 사회적 거리 유지를 격려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교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추후 경제활동 등 악영향 예상
- 비교적 따분하고 재미없는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기엔 발송/수신인 모두 부담이 있음.
- 예술인들의 개인작품 전시회 등 제한으로 활동 저조, 격려 필요

내용

- 코로나 기간 중 사람들끼리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 코로나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격려하는 긍정적 내용의 이모티콘으로 개성 있는 작품활동을 격려
- 공모기간 중 민간 공개 및 투표를 시행하여 예술인을 격려함과 동시에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재미를 제공
- 수상자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런칭과 동시에 소정의 상금 제공
- 관련부처 친구 추가하여 코로나 확산방지 소식을 적극적으로 접하고자 하는 민간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 기간제 무료 제공

효과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사람들 간 그나마 밝은 이미지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 딱딱한 문자보다 훨씬 부드러워 잠시나마 웃을 수 있음.
- 사회적 거리 유지기간에도 교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경제활동에 지장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함.
- 예술인들의 활동 격려
- 관련부처 친구추가 유도 등등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국민
제목	온라인 지역 축제, 장터 개최		

제안배경

신종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예정됐던 축제들의 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산물 제철 축제인 '논산 딸기 축제',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등 여러 지역 행사들이 전면 취소되었다.
또한 최근 이태원 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기지개를 폈던 지역사회 여러 움직임들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이에 지역 축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삼척에서도 유채꽃 축제에 장미 축제까지 취소되는 등 이달 계획된 강원도 내 문화행사 70개 가운데 50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문제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경제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규모일 텐데 축제, 지역 장터들이 취소됨에 따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매출 타격을 입고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실내 밀집 환경에서 대면 접촉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지역 축제 취소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제안

이러한 분위기에서 코로나19는 '언택트'라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다. 언택트(untact)란, 접촉(contact)'이란 단어에 부정을 의미하는 'un'을 붙여서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는 신조어다.
소비자가 제공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비접촉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언택트 소비를 제대로 앞당겨주었다.
이에 다양한 축제 내 장터 등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대효과

1)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위축되었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온라인 축제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언택트 기업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적극 이용한다면 축제를 개최하는 개최자와 축제에 참여하는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온라인 세상은 장소, 시간,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다. 온라인 세상에는 오직 개인을 위한 평등한 정보와 본래의 역할과 서비스가 제공될 뿐이다. 이러한 곳에서 소비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언택트 문화를 이용한다면, 4차 산업 혁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분류	8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민간기업-계약-소상공인
제목	코로나 Option (니캉 내캉 한 배를 탔다 아이가?)		

제안배경

코로나19가 조용해지는 줄 알았지만 최근 또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는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들의 행동은 모두 서로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같을 시에 어떠한 행동을 망설임 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Stock Option이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그들이 한 방향으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

정보경제학의 "주인-대리인 문제" 모델에 빗대어 코로나 Option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은 소상공인이고 대리인은 소비자입니다. 주인, 즉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행동을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질 좋은 재료를 쓰고 요식업의 경우 양을 더 많이 준다고 한들 소비자는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같은 편으로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와 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인 Stock Option에 착안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어플, 즉 옵션 시장을 만듭니다.
2. 어플에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가게 사정에 맞게 옵션을 올립니다.
   (ex) 이번 달 지역 내(북구, ○○동) 매출액 몇 위 안에 들어갈 시 1주간(n주간) 회원님들께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3. 소비자들은 각 가게의 옵션을 보고 자신이 회원이 될 가게를 선정합니다.
   - 선정비용은 무료로 해야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이 선정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단, 무제한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5곳(n곳)'과 같이 제한을 두어 소비자들이 그 중 자신이 가장 원하는 5곳을 선택하게 합니다. 무제한으로 선택하게 둔다면 경쟁과 희소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4. 어플을 통해 지역별 그리고 일정기간(매달 혹은 매주) 매출액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대리인이던 소비자들은 각 가게의 매출을 보며 "자신의" 가게가 옵션에 제시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소비합니다.

6. 기간을 무한정 할 수 없으므로 매달(또는 n주) 후 매출액 순위, 회원 등록 등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초기화합니다. 매주 로또를 추첨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7. 소비자들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신이 원하는 곳의 코로나 Option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시장의 경쟁을 부추기고,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입장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2. 재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어플 제작비용과 관리비용 외에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경쟁하므로 지역화폐와 같은 막대한 재원의 부담이 적습니다.
3. 시장의 원리에 입각합니다.
   소상공인은 위의 어플에서 서로 경쟁하며 옵션을 내걸어야 하고 소비자들은 옵션 중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규제완화-국민
제목	VR 네트워크 강화 및 체계적 드론 운영 시스템 확대		

1. 문제 제기

코로나로 인하여 마주하고 있는 불편함은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함으로 발생함에서 기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는 직접대면을 축소시키고, 그에 따른 임시대책으로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택배 문 앞에 놓고 가기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회의와 온라인 강의 등은 실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단방향 통신의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택배 또한 직접대면은 없으나 택배기사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책

제한된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들이 갈급한 것은 단순한 모니터상의 정보 교환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써의 정보 또는 감정 교류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 대 사람으로써의 교류에 있어서 코로나의 전파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술을 응용/발전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1) VR/AR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
   - VR/AR은 온라인상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고 모션을 인식하여 운영하는 VR 챗과 같은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응용한다면 교육, 회의와 같은 분야에서 화상회의를 넘어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만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드론 운영 시스템 확대
   - 현재 개인이 드론을 장거리로 날리거나 높이 날리는 것은 항공법에 위배되어 제한되어 있다. 정해진 구역에서만 날려야 하며, 지역의 경우는 그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항공법에 위배된다고 드론산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항공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드론의 높이와 범위를 제한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작은 소포나 농산물 등은 충분히 드론이 배달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드론 피자배달과 같은 산업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습니다.
   - 드론 산업의 구체적인 확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1) 항공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드론의 높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2)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드론의 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드론끼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 높이고도의 채널을 규격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드론에게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4) 드론의 배터리를 고려한다면 지나친 장거리비행과 정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위한 배터리 충전 및 무선신호 리피터 등의 기지국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단위로 지자체가 나서서 시행한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5) 드론 조종 면허를 통한 고용 및 활용 체제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드론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비용이 비싸며, 난이도가 높다. 고급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드론 조종 면허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VR + 드론 약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VR산업의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펼쳐지고, 드론 조종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일반인들이 드론 조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각 드론이 가진 VR에게 캐릭터 또는 실제 자신의 영상을 입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골목시장' 어플		

▣ 제안배경 및 문제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영세자 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비계층의 소비활성화를 의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소비계층들은 가까운 접근성 그리고 간단히 소비가 가능한 편의점을 많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착안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골목시장, 즉 골목상권들을 어떻게 하면 편의점처럼 쉽고 빠르게 소비가 가능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 우리가 자주 애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앱과 새벽 배송이 가능한 '마켓컬리' 등을 떠올려 이와 접목시켜 골목시장, 즉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 내용

- 골목 시장들의 판매 상품 내역을 매일 업로드, 수량과 내역을 꼼꼼히 업로드 할 것
- 배달과 접목시켜 적정금액 이상이 넘어서면 배달이 가능하게 함.
- 가능하다면 새벽 배송도 고려해볼 것
  → 즉 집에서 시키는 시장과 같은 개념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기기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어플 내에서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대화가 가능한 대화창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연락이 가능하게 하여 재고 확인과 배달서비스가 가능하게 합니다.
- 어플 내에서 쿠폰 등 구체적인 금액 이상이 되면 할인이 가능하거나 첫 구매 시 할인, 또는 어플 가입 시 할인이 가능하게 한다면 소비의 활성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이번 기회의 이 어플의 활성화를 통해 계속하여 죽어가는 지역 상권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본래 정부가 의도하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민간기업-규제강화-국민
제목	쿠팡, 마켓컬리 물류업계의 코로나19 확산 해결 방안		

제안배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패턴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구매로 변화하면서 관련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 물동량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상품 구매 이용률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쿠팡, SSG, 위메프 등 온라인 커머스는 이례 없는 특수를 맞이하며, 물류센터 과부하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의 작업자 대거 감염은 환기가 되지 않는 물류창고에서 장시간 밀집한 상태로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조명하였다.

제안내용: 뉴노멀 시대에 맞춘 물류 환경 개선

1. 물류 작업 환경 개선

1-1. 작업구간 개선

국내 물류창고의 작업과 관리는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작업자가 각자의 작업구간에서 상품을 직접 담는 방식으로 근무 시 밀집도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회사는 ICT 정보통신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에서는 물류 자동화 기술 도입 및 장비 구매 시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하여 기업의 물류 자동화를 지원한다. 인구 집약적인 작업 방식을 개선하여 감염병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다.

1-2. 배송 환경 개선

작업자 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쿠팡과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배송기사가 겸하여 담당하고 있는 상품의 상차 업무를 체계화하여 상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한다. 고객들에게 배송을 실시하는 기사와 물류회사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배송 시 마스크 착용을 규정하여 감염을 예방한다.

2. 물류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2-1. 물류창고 건축 관련 규제 강화

환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기 중 비말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물류창고 신규 건축 허가 시 환기시설 설치 여부 검토를 법제화하고,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안전관리 감독을 파견하여 환기시설의 설치 여부를 기반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2-2. 작업복에 대한 규제 강화

부천의 쿠팡 물류창고의 경우 작업자들이 작업복과 작업모자 등을 돌려가며 사용한 점이 확산을 키웠다. 작업자가 고정되지 않은 물류업계의 특성 상, 사용한 작업복에 대해 일일방역을 실시하여 작업복에 의한 확산을 방지한다.

2-3. 작업자 정규직화

부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작업자가 작업복을 돌려가며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작업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역학 조사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물류업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일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물류회사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 효과

1. 인구밀도가 높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한다.
2. 배송 환경 개선을 통해 배송기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3. 환기시설을 통해 비말을 통한 감염을 방지한다.
4. 작업복을 일일 방역하여 작업복을 통한 감염을 방지한다.
5. 일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랜선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1. 제안배경

1)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2) 코로나19로 매년 예정되어 있던 지역축제의 취소에 따른 특산품 판로 마련
3) 비대면 접촉에 따른 랜선라이프의 새로운 온라인 문화 확산

2. 내용

1) 코로나19로 인하여 랜선라이프라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SNS, 화상 플랫폼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핸드폰으로 필요한 것을 간단하게 주문하고 배송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매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장이나 식당 등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경제 침체의 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쌓여 우후죽순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여기에다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들이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을 홍보하는 동시에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수천에서 수억에 다다른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름은 물론 가을축제까지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소상공인, 농민들은 또 한 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2) 이에 랜선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유튜브, 블로그, 각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경품 이벤트 등을 활용한 지역축제 알리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축제 기간 동안에는 지역축제와 연관 지어 유튜브를 통한 요즘 대세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 및 지역문화단체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지역축제에 걸 맞는 방구석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제기간 동안 미션을 수행한 시민들에게 체험키트 및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축제 계획 단계에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과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축제기간 동안 시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야 한다.
축제기간이 아닐 때보다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시·도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판매가를 결정하고 공동구매 방식 등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자에게는 행사 참여를 통한 매출 증가,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고 질 좋은 상품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판매한 상품은 드라이브스루 또는 택배를 통해 소비자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지역축제가 끝난 후에도 개발된 판매 플랫폼은 계속 관리·유지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3. 기대효과

1) 랜선을 통한 지역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료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2)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 판로 마련 및 매출 증가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계약-소상공인
제목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점 밀키트(meal kit)		

〈아이템의 궁극적인 목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 (음식점) 활성화

〈PEST analysis〉

- Political analysis 정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Economic analysis 경제: 지역주민들의 소비 감소로 인한 골목상권 약화
- Social analysis 사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함 추구 '편리미엄'
- Technological analysis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재고 파악, 어플을 통한 예약 구매 시스템

〈아이템 개발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비 감소로 인해 골목상권이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지역 음식점의 피해는 여전하다. 음식점의 메뉴를 밀키트로 만들어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면 소비자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아이템의 차별성〉

① 음식점에 가지 않고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 음식점 밀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실제 음식점에서 어떤 재료와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했는지 체험해볼 수 있다.

〈밀키트 시장 분석〉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8년 200억 원에서 지난해 40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과 외식 트렌드의 변화로 밀키트 시장이 더욱 급성장할 것이며, 2024년에는 70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밀키트의 핵심 수요층은 요리 실력은 미흡하지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20~30대 소비자이다. 하지만, 마이셰프의 경우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요리를 잘하는 50~60대 또한 충분히 밀키트의 주요 소비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밀키트를 판매한다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김정환 기자, 「코로나 사태의 최대 수혜자 밀키트, 이유 있는 성장」, 『세계일보』, 2020.05.11,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11514189?OutUrl=naver)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고객이 원하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외식을 꺼리고 있다. 배달음식도 불편한

상황이다. 기존의 장사가 잘 되던 곳은 여전히 손님이 많지만, 동네의 음식점은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식점의 손해를 막으면서 고객들이 음식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고객들의 문제 (니즈) 해결방법]
가깝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곳, 즉 편의점에서 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것이다. 대신,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맞게 밀키트로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구매해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기대효과]
실제 동네의 음식점 메뉴로 밀키트를 만들기 때문에 식당 업주들의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외식을 하거나 배달시키지 않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공하는 가치와 혜택]
편의점에서 동네 음식점의 메뉴로 만들어진 밀키트를 구매하면 음료를 증정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실용적인 제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고객의 소비를 유도한다.

[전략 및 아이디어]
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점 메뉴로 밀키트를 만들며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모습과 백종원 대표가 솔루션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점 밀키트를 홍보한다.
② 소상공인의 음식점 밀키트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명시하기 위해 자체 로고를 디자인하여 부착한다.
③ 오프라인 음식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QR코드를 부착한다.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소상공인
제목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제안배경

COVID-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는 경제 침체기를 불러왔다. 전 세계 국가 그리고 지역적으로 경제 침체기가 왔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컸다. 정부는 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금 등을 통해 도왔다. 하지만 지원정책이나 지원금에 대해 신청 및 이용방법을 정확히 몰라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꽤 존재했다고 한다. 더불어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국가에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소상공인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타깃

소상공인

▶ 정책의 필요성

현재 소상공인들은 정부나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정책과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의 점포를 발전시키려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강헌수. (201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173~182.」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문제는 「1. 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2. 자구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3. 실천 의지가 낮다. 4. 추진력이나 자금력에 한계가 있다. 5. 여전히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 등이 있다고 한다.
이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선·하규수. (2019). 전통시장 상인의 역량과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5), 105~113.」에 따르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상인교육 경험'을 0회, 1~2회 수강한 사람의 비율은 약 60%가 이상이다. 이 외의 다양한 조사결과에서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본인의 점포가 환경의 영향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직접 찾아내고 정부나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이 현 정책에 의존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권을 더 발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정책의 목표

①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현재 지역사회와 본인의 점포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혜택 이용방법을 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② 거리를 살린다.
- 점포별 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주위 점포들과 협력한다.
- 소상공인 집중 분포 거리를 발전시킨다.

▶ 해결방안

1)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점포 운영
지역사회, 리더십, 스피치, 소비자 심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 및 트렌드 조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고객층을 타깃으로 하여 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2)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금융·경제
상권 육성 전문가(PM)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요를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들(해당 연도 지원 사업 개요, 사업 세부내용, 상권조사방법론 등)과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점포를 운영하며 필요한 금융 및 경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해당 교육 프로그램들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생업에 초점을 맞추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기에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몇 개월 이상 이수했을 시 소상공인 대출에서 혜택을 준다는 등과 같은 교육 이수 시의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금융 및 경제 파트의 교육은 지역의 은행들 혹은 지역 내 금융·경제를 전공하는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협력한다면 서로 연령층에 대해 알 수 있는 효과가 생겨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트렌드 또한 이해하고 대학생들(젊은 연령층)도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기대효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번 상황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와도 함께 협력하여 현재 필요한 것에 대해 같이 논의하여 지원 정책이나 비용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지속된다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나 대형 기업들에 의해 작아지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류	10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규제완화-국민
제목	교통운수업계 코로나 대응 아이디어		

제안배경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여객, 교통 수요 부진의 장기화
-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수요 회복의 어려움
- 집단감염의 위험이 계속 이어지는 장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우려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멀미, 답답함 등으로 교통수단 이용 기피 증가
- 교통운수업과 연계된 터미널, 휴게소 등의 영업 적자 증가
- 자차 이용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로 환경오염, 운수업계 적자 해결 방안 필요

제안내용

1. 항공, 버스, 철도, 선박 안에서의 마스크 판매/구입 허가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교통운수업계의 터미널 및 교통수단 내에서 마스크 판매 허가
   -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하면서도, 개수 제한은 면제하여 여행객들의 편의 및 방역 강화
   - 가격은 같되, 개수 제한은 없거나 최대 5~10개 정도로
   - 특수 환경이므로 일정부분의 수수료도 징수하여 교통운수업계의 운수업계의 간접적 수익 창출로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2. 버스업계 휴게소 정차횟수 증대
   - 노선별 휴게소 정차횟수를 증대함.
   - 휴게소 무정차 노선 → 1회 정차 / 1회 정차 노선 → 2회 정차
   - 버스 내의 환기 횟수 증대를 통한 밀폐공간 내의 코로나 확산 방지
   - 버스 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 해소를 통해 장시간 올바른 착용이 가능하도록 함.
   - 휴게소 이용 횟수 증가를 통한 소비 촉진 및 증대

3. 온누리 상품권의 휴게소/터미널 이용 한시적 허가
   - 전통시장에 유예된 온누리 상품권을 휴게소 및 터미널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시기에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함.
   - 여행 및 소비 촉진 장려 효과
   - 향후 오프라인 창구에서의 버스/여객선 티켓 발권 또한 검토 후 확대 제안

기대효과

- 집단감염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여행관광 운수업계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함.
- 여행관광 등 여행자의 마스크 사용 환경 개선으로 방역 강화 및 위생 준수 지원

- 해외 출국자 및 출장객, 여행객 등 장기간 이동자의 마스크 구입환경 개선으로 편리 증대와 방역 강화
- 기존의 운수업에서의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적자 경감에 기여
- 마스크 착용 승차에 대한 답답함, 두려움, 멀미 등에 대한 우려와 기피 해소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의 여행관광 수요 유도에 기여

9 고용노동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서비스-학생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대학생 취업		

〈배경〉

1.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중세상업) 경영 문제로 실직 및 취업인구에 대한 문제
2.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비대면 수업 연장
3.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 빈 원룸
4. 강릉 전입인구 증가(강릉시 인구 증가 방안)

〈전개〉

- 코로나19의 종식이 9월이면 끝난다는 가정 하에, 강릉시 대학(강릉 원주, 가톨릭, 영동, 폴리텍 등) 4학년 2학기 학생 취업연계인턴 실시(4학년 2학기 취업연계로 인턴을 실시, 인턴기간 중 4대 보험을 보장해주면, 대학의 "취업으로 인한 공결처리" 요청 가능. 이 경우 학생이 취업으로 학교 수강을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취업으로 출석을 인정)
- 해당 학생들의 인턴경험과 기업(중세상인)의 인력난 해소(이 경우,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단 같은 곳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시청 차원에서 주관 확대 및 홍보 그리고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할 시, 기업의 재정 및 지원 가능여부 검토)
- 대학생 중 비강릉권이 다수임(서울, 경기, 인천 재학생 多 - 강릉의 정착화를 하고 싶으나, 기업정보 및 취업자리가 부족하여 취업포기(취업의 방법을 몰라 포기하고 있는 학생 많음) - 코스모스 졸업(8월) 학생들은 원룸 1년의 선세를 제공하고, 강릉에서 공부 및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음, 즉, 졸업을 하여도 원룸으로 묶여있어 강릉에 정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강릉을 떠나 고향으로 혹은 서울로 떠나는 경우가 많음.
  ≫ 해당 공고를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만 공지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됨. 보통 대상자들이 젊은 20대층이므로 다양한 홍보 전개
  (ex. 1. 강릉페이 어플에 홍보쪽 활용, 2. 페이스북(강릉시 대신 전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강릉 파워 인스타그램 - "강릉여고생 유투버"), 잡코리아 등)
  ≫ 굳이 위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홍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 보임. 지금 적고 있는 이 사이트 "코로나19 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도 강릉시청을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접하고 힘든 경우임.
  ≫ 본인도 30대지만, 주위사람들도 잘 몰라 전파 중. 취지와 상금을 부각하여 sns 활용한 홍보가 필요해 보임.

〈기대효과〉

1. 고용 증가, 취업률 제고
2. 강릉시 인구 증가(강릉으로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학생들의 정착 효과 - 대학, 한달살기 등)
3. 대학의 취업률 제고로 인한 위상 제고 기대

분류	3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보조금-학생
제목	대학생 긴급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아르바이트 제도 마련		

1. 제안배경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및 위험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온라인 개강을 점차 연장시키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주관할 수 없는 대학교들조차 대면수업이 아닌 사이버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대학교는 타 고등교육기관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곳곳에서 대학교 개강 시즌에 맞추어 기숙사 및 자취를 준비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모의 지원이 당연한 아동 및 10대들에 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버강의가 점자 연장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등록금에 대한 해결을 아르바이트로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교의 경우, 대학가에만 들어서도 여러 음식점 및 카페들이 위치해 있는 만큼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절충지가 되었지만, 현재 당장 외출하기도 우려가 큰 상황에 접근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 더욱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조차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매출 감소로 아르바이트를 잃게 되는 실정까지 와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값을 제공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으로 인해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투입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비해 비교적 나이가 젊고 그만큼 열정이 있을 대학생들을 접목시키는 방법이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현재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대상 아르바이트 확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내용

현재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수요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대학생들이 전문가와 함께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전문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비 및 기타 자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전문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효과를 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활동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의한 면접 및 관련 전공 등으로 꼼꼼히 검토 후 서비스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우선으로는 이미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 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인원을 투입시킵니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미리 한 후 그에 따른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인한 임금 대비 효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요는 현 코로나19 실정으로 볼 때,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긴급돌봄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수요를 위한 공급이 아닌 한층 더 엄격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대효과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지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있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제공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보조적인 과정을 직접 다루지 않게 됨으로써 더욱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적인 활동들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류	4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보조금-학생
제목	코로나19 청년정책 지원확대 방안		

○ 제안 요지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실업률 역대 사상 최고치
- 청년 실업률 중에선 특히 관광업계 취업 준비생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여행, 호텔, 항공, 관광, 해외취업 및 MICE업 등).
- 관광 관련 직무 재직 중인 근로자도 무급휴가 장기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
- 특히 MICE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정부 주력산업 중 하나 MICE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국내외 관광객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식당, 숙박, 교통, 인근 상점 등) 및 국제 성장 효과 큼.

○ 정책 현황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 실업률 개선을 위해 현재

1.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예비교육 변화(기존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현재 집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 계획서 변화(월간 미리 작성한 취업계획서 작성 시 인정 → 코로나로 인한 계획 취소 시 온라인 강의로 대체 가능)
   - 참여 텀 없애기(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청년은 6개월 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가능 → 바로 신청 가능으로 바꿈)

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청년을 1, 2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하며 유형별 혜택이 다름.
   - 취성패는 청년이 구직활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단계 상담이 끝나면 2단계 희망 직종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후 3단계 마무리 단계 돌입(면접 준비, 구직 알선 등)

○ 문제점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을, 만 18세~34세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생에 1번 신청 가능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즉, "졸업 후 2년 이내"로 인한 명시로 인하여, 대외활동 및 아르바이트, 인턴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해온 "졸업 2년(18년도 이후 졸업자)"이 지난 취업준비생 청년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포함).

2. 취업성공패키지
   - 취성패는 청년의 취업성공을 위해 희망직종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으로 1유형은 무료, 2유형은 자가 부담을 80% 줄여 취준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관광업계(항공, 호텔, MICE 및

여행사 등 모든 관광 직종) 취준생은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적음.

- 특히 MICE 는 정부가 인정한 국가주력산업이지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극히 드물며, 모든 관광업계 희망직종은 어학(영어 및 제2외국어)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어학관련 교육은 제공하지 않음. 그 이유는 어학프로그램 제공이 취업에 직접적 영향이 없어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함.
  → 그러나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종은 취업 시 TOEIC등 어학성적표 제공을 필수적으로 명시
- 이로 인해 관광업계 희망 취준생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없음. 때문에 대부분 이들을 2단계 교육프로그램을 건너뛰고 3단계 면접 및 마무리 단계로 진행됨. 혹은 관광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1유형은 무료이기에 부담 없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지만, 2유형은 정부지원 70%~80%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부담액이 30만원~70만원이기에 집안이 어려운 학생은 교육 이수가 부담스러워 이를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함.
  → 관광업계 취준생들은 결국 3단계가 끝나면 원하는 직무교육을 듣지 못하고 마무리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시작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득활동이기에 취업으로 정부는 이를 취업으로 간주함.
  코로나19 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취성패의 큰 문제점이기도 함. (현재, 2단계 교육이수에는 컴퓨터활용 자격증 같은 사무 자격증 교육활동이 50% 이상은 차지함. 그러나 이는 관광업계에는 취업 도움이 되지 않음)
  즉, 관광업계 관련 많은 취성패를 이수하는 취준생들은 아무런 교육 혜택도 못 받고 이수 완료가 되며, 이를 진행하는 1유형 고용노동부, 2유형 민간 취업 알선업체는 서류상 자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함.

○ 해결방안

1.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실업률 해소를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기준에 "졸업 2년 이내"를 제거하여, 현재 코로나 타격으로 장기 미취업이 이어지는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에 1번 지원이기에, 중복지원 및 남용 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함).
2.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교육을 어학 프로그램 제공(토익강좌, 어학 응시료 혹은 정부지정 어학학원 연계) 등을 통하여 관광업계 취업 및 실업생 뿐만 아니라 모든 취준생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한 업종에 치우친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업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확대
3.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건너 뛰어 취준생을 위해 정부는 예외적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 업종에 필요한 자격증, 어학 및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은 2유형으로 하였어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무급 혹은 실업을 당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 1유형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유형변경이 되도록

정부 승인 허가 진행(현재는 2유형으로 신청하면 중간에 건강보험료가 바뀌어도, 1유형으로 재신청 제한)

○ **기대효과**

1.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준비생 및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
2. 실용적인 지원혜택 확대로 인한 취업률 상승
3. 현재, 관광업계 취업 활동 취준생들은 그 사각지대에 벗어나 많은 혜택으로 인하여 숨통 트임.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보조금-학생
제목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교육업계 종사자들의 코로나19로 생긴 돌봄 공백 해소		

1. 제안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중이다. (예: 계약직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학습지 교사 등)
- 이들 모두 실력이 있고 최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어 특히 교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 도구도 준비가 잘 되어있고, 교육 프로그램 또한 여건에 맞추어 일부 수정만 하면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무리 없이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교사들 또한 코로나19로 예고 없이 준비도 못한 채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2. 제안내용

- 따라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교사들 또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가 안정기로 들어서면 이들 또한 일자리를 다시 구하거나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그때 코로나19 돌봄 공백 해소 차원의 교육활동을 했던 자 중 성실하게 임한 자에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예: 교사를 채용할 때 - 코로나19 돌봄 공백 해소 차원의 교육 활동을 했던 자에게 큰 가산점을 준다.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때 - 코로나19 돌봄 공백 해소 차원의 교육 활동을 했던 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준다(각 직장 내 제정 상황에 따라).)
- 활동 방법은 실시간 유튜브 등을 활용한 무료 온라인 수업이나 동의하의 가정방문이 있다.
- 교사와 아이들 및 부모들과의 연결을 위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평가 가능한 앱을 도입한다(앱 사용이 힘들 경우 각 시청이나 구청과 협력하여 사이트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기대효과

- 일자리를 잃었던 교사들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직장에 복귀했을 때 도움이 된다.
-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실시간 유튜브 등 인터넷과 가정 방문을 통해 1:1 맞춤형으로 질 좋은 강의와 이전에 실제 교육 활동으로 이행되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손쉽게 들을 수 있다.
-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웠던 부모들 또한 걱정과 고민을 덜 수 있다.

4.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앱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앱이 시행이 안 된다면 시청과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 가정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장비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다.
- 가정방문 시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 따라서 발생하는 소정의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서비스-청년
제목	코로나로 인한 직업 박람회 취소를 청년 주말 직업 상담 제도로 해결		

1. 현황과 문제점

코로나로 인해 대형 직업 상담 박람회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 대 개인으로서 직업 상담을 해줄 새로운 통로가 필요하고 대량의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예전부터 직업 상담제도는 늘 있었습니다. 다만 부족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지역의 직업 상담 제도를 한국에도 적용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과 적성 그리고 선배들의 노하우와 조언 등을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상담 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각 직업별로 현직에서 20~30년 넘게 근무한 전문인력들이 주말 등의 휴일을 이용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시에서 비용을 지급받고 주말 휴일에 직업 관련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직업별로 현직 전문가마다 종류와 파트가 나누어져서,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수입,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가?' 등을 여러 사람 혹은 개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무엇보다 본받아야 할 것은 상담 신청이 자유롭고 주말 휴일에는 언제든지 예약한 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직 전문인력들이 청년들에게 직업 관련 상담을 잘 해주지도 않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다수를 상대로 직업 관련 강좌 형태로 상담을 하니 제대로 상담이 안 되고, 묻기도 곤란하여 그냥 양쪽 다 시간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미국 방식을 적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화상채팅 혹은 의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직종별 현직 근무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언제라도 주말 기간 동안 직업 상담을 신청하여 청년들에게 직업 상담을 일대일로 해주는 정책을 실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직종별 현직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주말 동안 시간을 내어 상담료를 국가에서 받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부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특정 기간 동안 교대로 상담을 해주면 간단하게 현직 근무자들이 상담 제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현직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일하고 싶은 직종에 관한 정보와 장단점 등의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직업 선택과 향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 제도가 있지만, 찾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비정기적으로 직업 박람회 등에서만 상담이 되고, 두 번째가 관련 이익집단에서 파견된 사람이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자면, 비정기적으로 채용 박람회 등에서만 일대일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대기인수가 많아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10분이면 상담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상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등학생,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제도는 직업 상담이 아니라, 거의 외부 강사 단체 강의로 흘러가고, 한사람, 한사람들이 일일이 발언하고 물어볼 수가 없는지라, 강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 사실상 원하는 직종에

있는 경험 있는 현직 근무자들과의 상담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주위에 이와 관련된 인맥의 소개로 가끔 상담을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두 번째 큰 문제는 이익 단체에 관련된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종에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 그대로 관련된 직종으로 사람들을 끌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일종의 영업사원으로 자신의 직종을 강제적으로 홍보하게 되어, 장점만을 부각하여 순진한 청년들을 끌어들여 앞길을 망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단계"일 것입니다. 모든 직종은 장단점이 있고, 욕을 먹는 부분도 분명 어느 직업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알려주고,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주관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좋든 나쁘든, 정확한 정보가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채용박람회에서나 특정 직종 직업 상담사는 부적합한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단체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 현직 근무자가 상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직종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서 수당을 받아 상담을 해주므로, 양심적으로 자신의 객관적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고용노동부 혹은 산업안전부 관련 산하 지역 기업들하고 연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에서 실행하면 언제라도 간단히 실행 가능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것은 상담을 해줄 관련 직종의 현직 근무자와 주말에 상담시간을 정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내의 예약 시스템이 전부입니다. 물론 상담비로 국가에서 현직 근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당연히 지불해야 겠지만, 이미 직업 상담 관련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따로 마련을 해두고 있고, 사실상 이런 상담 요청이 적어서 다른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또한 애초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 부업삼아 그리고 멘토 삼아 이런 상담 업무를 주말에 교대로 맡아서 하는 것이 때문에 예산 소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 가능 횟수는 사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안되고, 초과하면 일정금액을 개별 상담료로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과잉 상담으로 인한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대효과

① 언제라도 원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 관련 상담을 청년들이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오직 채용 박람회나 대학 외부 강사 초청 등으로 비정기적으로만 직업 상담이 가능했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비정기적인 일정 제약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인터넷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이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업 상담을 받는 것이 이익집단에게 고용된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대표적으로 "다단계"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 없이 사실상 상담자들이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여 순진한 청년 혹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에 저질 일자리 혹은 노동법에 어긋난 일자리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 실행하는 현직 근무자 상담제도는 국가에서 돈을 받고 특정 이익단체에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대로 청년 혹은 청년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직종의 장단점과 전망 등을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어 자신의 직업 선택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③ 적은 예산으로도 일대일로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
종래에는 청년 혹은 청년들이 일대일로 해당 직종 전문가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직업 상담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청년들이 관련 직종에서 이러한 인맥을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일대일로 인터넷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세하게 현직 근무자들이 직업 상담을 해주므로, 자세하고 세밀한 상담이 가능하다. 종래의 직업 상담은 채용 박람회에서 10분 만에 간단히 끝나거나 강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외부 강사가 말하는 형태로만 진행되기에 상담하는 사람과 상담을 받는 사람 간에 의사소통 부재의 문제가 있었지만, 일대일 상담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개별 맞춤 직업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 상담 인력이 아닌 현직 직종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상담을 주말동안 교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줄 때만 상담료를 국가에서 지급해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 상담 인력이 아니더라도 자기 직종에서는 누구보다 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직업 상담을 해주는 것이기에 상담의 질적 수준도 높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조세지출-학생
제목	이번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더 힘들어진 분들에게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제안합니다.		

[제안배경]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특수한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확장되었다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인력고용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며 많은 사람들은 무급휴가 및 급여 인하, 권고사직 등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연장급여를 준다면 그분들도 이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용]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소득이 여전히 없는 분들이나 자산이 정말 적은 분들에 한해 실업급여 특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란 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상황에 대해 재취업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기준보다 적게라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실업급여 연장에서는 또한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조건)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자산
- 기존 직종 분야
- 재취업 분야

이러한 조건들을 검토하면서 힘든 분들에게 다시 특별연장급여를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현재 많은 이들이 힘들지만, 특히 기존에도 힘들었던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직되신 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녹여들려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더라도 이런 금전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자들이 이번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잘 준비된 상태로 다시 재취업을 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	6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보조금-취약계층
제목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 근로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근로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들이 생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있긴 하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근로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 및 경북 등 코로나 위험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근로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근처 및 주변 근로지 이동이 쉽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할 수 없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수용하여 국가근로학생들을 아예 뽑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그러므로 온라인 및 재택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개선방안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기업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채택하였는데, 서류 정리 및 엑셀파일 제작 등은 아직도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으로 이러한 업무를 받아 저소득층이 국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됨. 또한 대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중고교 학생들과 방과후 멘토링을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저하된 수업의 질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락 및 각종 포장 아르바이트 또한 재택에서 가능하기에 다양한 가능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아르바이트 및 근로는 지자체와 협력기관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저소득층들이 비대면 근로를 통해 국가근로를 계속할 수 있고, 또한 포장 업종이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채용이 필요했으나 채용을 못했던 기관 및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생활비를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들 또한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류	7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계약-취약계층
제목	일자리 개선 아이디어, 지하철 노인 택배 시스템 이용 개선 아이디어		

기획 취지

지하철 노인 택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하철 노인 택배는 2005년쯤 처음 도입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탑승에서 착안해 만들어졌고요. 일반 퀵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배송받기를 원하는 수요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노인 구직자들이 만나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택배 업무를 경험해본 노인들에 따르면 지하철 노인 택배 한 달 수입은 30만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1건당 거리에 따라 5천 원~2만 원 정도를 받지만 왕복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5건도 배달하기가 쉽지 않고, 30~40%의 수수료와 교통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택배 종사자들은 하루 4~5건 정도 배송을 담당하고 기본 운임은 6000~7000원, 시외 배송은 1만 원 이상에서 대개 하루 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데, 이 중 30%의 수수료를 택배업체에 납부합니다. 약 2만원의 일당을 받는 셈이고 지하철 택배원들은 주로 '운동 겸 용돈벌이'로 이 일을 시작하지만 낮은 수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프고 서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지하철 노인 택배의 일자리 질을 올릴 필요가 있고, 실제 서울시 내에서 짐을 옮기는 고객들이 좀 더 물건을 전해주는 접근성에 있어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이런 택배 시스템 개선을 나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내용

지하철 노인 택배의 문제점은 낮은 임금에 있습니다. 일단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개수가 하루에 5~6개에 불과하고 운임료의 30%를 택배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대량으로 작은 물건을 모아서 운반해야 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지하철 내에 이렇게 작은 물건을 대량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작은 물건을 대량으로 모아 한 번에 작은 물건을 큰 캐리어 여행 가방 등에 벌크로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하철 내에 운반 보관 장소를 만든 다음, 작은 규모의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 일정 수준이 되면 큰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한 번에 대량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량의 물건을 한 번에 옮기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하루에 옮길 수 있는 물건의 량이 5-6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물건을 옮기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운송을 해야 했다면, 제 아이디어 개선점은 10개의 물건을 큰 캐리어 가방에 담아 운송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안 되었던 이유는 작은 규모의 물건을 대량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과 일반 지하철 개인 이용객들이 물건을 배송 위탁할 장소가 지하철 역사 안에 없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택배의 배송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사설 택배 업체들이 일부 퀵 물량을 재하청하여 주는 것이 고작이기에 물량 확보가 적었고, 또한 비정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 역사 안에 일반 지하철 이용

고객들의 물건을 배송해줄 수 있는 택배 물품 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과 일반 개인고객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택배 배송을 맡길 수 있는 택배 접수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지하철 역사 안에 개인 택배를 위탁받는 물품 보관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지하철 고객의 개인 물건을 택배를 받는 접수처를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하철 이용 고객들은 개인물품을 일일이 전달하려 지하철을 안타도 되니 시간과 비용·노력면에서 이득이고, 지하철 노인 택배기사들은 많은 양의 운반물들을 확보해 한 번에 운송함으로서 기존보다 10배 이상 되는 물품을 나를 수 있어서 수익도 그에 맞게 증가할겁니다. 즉 지하철 이용고객들은 자신의 짐을 일일이 운반하지 않아서 좋고, 지하철 노인 택배기사들은 많은 물품을 한 번에 운송함으로서 종래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많은 양의 택배를 여행용 캐리어 가방 같은데 한 번에 최소 10~20개 정도를 묶어서 운반하는 것이므로 주로 소량의 가벼운 물품만 배송 위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기껏 해야 꽃바구니나 가벼운 물품하나 정도를 운송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애초에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은 지하철을 이용해 배송할 수가 없죠. 그렇듯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볍고 부피가 작은 물품만을 대상으로 배송 위탁을 개인 지하철 고객에게 요청 받아 물품을 배송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기존의 지하철 노인 택배기사 분들의 노고에 따른 수입이 훨씬 증대된다.
   작은 부피의 물건을 한번에 10~20개 정도를 큰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아 물품을 배송하므로, 한 번에 하나씩 물품을 배송하는 것보다 한번 배송하는데 있어 얻는 수익이 최소 10배 이상 증대된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저 수입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지하철 노인 택배기사님들이 충분한 노고에 맞는 근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2. 개인 지하철을 이용해 짐을 옮기려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지하철에서 작은 짐 하나 급하게 옮기고자 지하철을 타면 시간 낭비와 돈 낭비가 상당히 든다. 하지만 급하게 맡길 데도 없고 퀵 배송 서비스는 내가 퀵 장소까지 찾아가야 하니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 급하면 그냥 내가 직접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물품을 갖다 줘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 어디에나 가까이 있는 지하철 역사 안에 이러한 소량물품 위탁 배송을 해주는 접수처가 있다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서 간단히 배송을 지하철 노인 택배기사 분들에게 맡기면 되므로, 지하철을 이용해 급히 짐을 옮길 필요가 없어져 지하철을 이용해 짐을 옮기려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3.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미 택배 배송 수요는 많고 계속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노인 택배도 그런 이유로 생겨났지만,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지금까지는 택배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실현되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노인 택배기사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지하철 노인 택배기사 분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동시에 그분들이 공급할 수 있는 수량 이상의 택배 배송 물량도 증대되어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주는 노인 일자리가 증가되고, 지하철 택배 이용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ps) 개인적으로 공모전에 수상되지 못하더라도 이 제안은 꼭 실현됐으면 합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문제는 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꼭 진행되어야 할 중점 과제입니다. 탑골 공원 같은데서 노인 분들이 할 일 없이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평생 일정강도 수준의 일을 해야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자체적인 경제적 효용성이 충분히 있어서 자생적으로 유지되어 관리되는 그리고 확장되는 일자리 사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여, 제가 위에 적은 노인 지하철 택배 배송 시스템 개선안을 서울시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지급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단순 보조급으로 유지되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의 바탕 아래 유지되는 일자리 말입니다. 물론 개인 소비자들도 편익을 충분히 얻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바탕 아래 두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아이디어가 실현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 지하철 택배 이용 소비자들도 더 큰 편익을 얻으면서요.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분류	8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계약-취약계층
제목	코로나19 실업 및 자영업자 지원		

누구나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일정한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일거리 및 소득 상실은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그동안 지역생활에서 인력 부족으로 행하지 못했던 묵은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항상 지정하여 쓰고 있는 인력이 아닌 소득 감소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 복지의 사각에 있어서 어떤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 소득은 없지만 직업 및 사업을 버리지 못하고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중산층, 코로나의 장기 여파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 이들이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나라에서 지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이 직접 나가서 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1. 바닷가 청소하기

지금 제주의 바닷가에는 해양오염의 주범인 쓰레기가 있고 괭생이모자반이 해안가를 덮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이면 제주의 휴가 성수기가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없는 휴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자원으로써만이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바닷가 지킴이뿐만 아니라 여러 제주도민이 쉬운 지원 절차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계를 유지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내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동네에서 묵은 일 찾기

오래된 공공시설의 시설정비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고장 난 시설들에 대한 수선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항상 쓰는 지정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를 바꿔가면서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혈연·지연·익숙한 것을 찾다가는 지금 같은 시기를 버틸 수 없습니다. 힘든 짐은 나눠들을 수 있도록 여러 업체들에게 골고루 일을 맡기었으면 합니다.

3. 관광자원을 만들어라

지금처럼 답답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여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숨은 제주의 명소를 찾아 관광자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4. 공공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쉬운 안내

공공의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지원절차가 필요하며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소득자의 무조건적인 세금 살포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쁨과 그에 합당한 대가,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종 지원의 혜택에서 벗어난 중산층이 생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류	9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지방정부-서비스-민간기업
제목	코로나로 맞은 도시패션제조업의 위기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제품 생산 일감의 제공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1. 제안배경

- 코로나로 인해 도시패션제조업 생산자들의 위기 심각
- 숙련기술로 60~70년대 한국경제성장의 실주역인 봉제 노동자들이 지금은 패션제조업(의류, 가방, 핸드백 등) 생산자들임.
- 패션제조업 종사자들은 제조업임에도 관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하청 납품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임.
-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
  1) 재난지원금 등의 직접 지원금, 2) 금융 융자, 3) 코로나 이후의 산업 정책(5G, AI 등)에 대한 투자, 4) 공공근로 등의 단기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의 일자리 유지를 통한 위기극복에서 제조업 분야의 종사들의 체감 어려움.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0~50년의 업종 이력을 가진 숙련기술자로 사업이 끊겨 전업을 하면 전문기술(손기술)이 단절될 것이고, 전업을 하려 하더라도 고령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업종 이전이 어려우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령자, 실업, 전문기술 사장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큼

2. 제안내용

- 정부가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 제공 방식을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되, 그 일은 정부의 국정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재를 연결하는 것임. 즉, 대국민 서비스의 현물 공급을 전제로 하는 일감을 공급하자는 것임.
- 제안사례
  1) 수제화 제조업 생산자 부문
  내용) 장애인 구두(국민건강보험 연계) 제작 공급
  -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적음.
  현황) 지체장애인 1,267,000명(한국장애인개발원)
  - 이용률 8.8%로 극히 적음(논문-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효과) 장애인의 보호 장구 이용률 확대 및 패션이용도 체감 높이기(장애인 패션을 신다)
  - 국민건강보험료 연계
  - 청년 뉴딜일자리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 의류 제조업 생산자 부문
  내용 ①) 임산부 및 신생아 유아복 제작 발주 – 출산장려용품으로 공급
  현황) 2016년(406,000명), 2017년(357,000명), 2018년(326,000명)
  총 1,089,000명 × 상하 2벌
  효과) 출산장려물품 공급 서비스
  내용 ②) 어르신 내복 제작 발주 – 그린뉴딜 성장(여름, 겨울용)의 대처 의류 공급

현황) 65세 7,685,000명 × 상하 2벌 × 2세트
효과) 어르신 방한 내복 제공을 통한 그린뉴딜 효과

3) 가방 제조업 생산자 부문
내용 ①) 어르신 지지대 겸용 가방 제작 발주 – 어르신에게 공급
현황) 65세 7,685,000명 × 1세트
효과) 어르신 보행 지원을 통한 건강 운동 및 장바구니 기능을 통한 그린뉴딜 효과
내용 ②) 임산부, 장애인 맞춤형 가방 제작 발주 – 임산부 및 장애인에게 공급(기저귀 가방, 휠체어 전용 가방 등)
현황) 2016년(406,000명), 2017년(357,000명), 2018년(326,000명)
총 1,089,000명
기대효과) 임산부 및 장애인 생활 지원

- '대구'를 중심으로 원부자재 공급 구축
  – 기후 위기를 화두로 가죽류가 아닌 새로운 소재 개발과 연계

3. 추진 주체와 역할

- 중앙정부: 공공근로의 혁신형 프로그램으로 개발
- 지방정부: 출산, 보육, 고령자의 예산에 대한 물품 구매 방식으로의 전환 배정
- 도시패션제조업 제작업체: 제품 디자인 및 제작, 납품

4. 기대효과

- 대기업 등의 브랜드 업체를 통해 제작할 경우, vendor 어베를 통한 하청의 재하청을 통해 가격 상승과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생산 업체에는 정책 파급력이 낮으나, 생산자들에게 직접 생산과 납품을 주문할 시에는 적정한 가격, 최고의 품질 그리고 제조업 당사자들과 청년들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의 경험과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시민들은 코로나 국난 극복의 한 사례로 국내 패션 제조업의 생산자들에게 일감 제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상호 부조 정신의 복원을 통한 국난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함.

10 재정

분류	1주차 희망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조세지출-국민
제목	분납 이자 감면 요청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세금은 감면 혹은 납부연기 대상이 되지만(ex. 공유재산법 등), 기타 세금(ex.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은 전혀 감면 혹은 납부 연기 대상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분기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변상금이나 점용료는 금액이 수백~수천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시납이 어려워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또 이에 관련된 분납이자를 내야 됩니다. 분납이자는 금액이 클 경우 수 십만원이 붙을 때도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 게 아니고 내려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 분납을 하고자 해도 이자 때문에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올 한해만이라도 분납 이자 감면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분류	4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중앙정부-캠페인-국민
제목	굿굿즈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활성화 제안		

1. 제안배경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며, 국무총리도 2020. 4. 22.(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기부 활성화 방안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정도로 보이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부자들이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개선방안

첫째로, 기부가 어려운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기부자들에게 연대감과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수준의 굿굿즈*를 기부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굿굿즈(Good Goods)란, 수익의 일부가 선행에 쓰이는 상품을 가리키는 말이며, 기부 단체에서 후원자에게 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이에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배지
  - (개요) 배지는 전통적인 굿굿즈의 대표적 예로서 양복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사례) 사랑의 열매에서 기부자에게 배지 지급 중입니다(관련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131260).
- 고무팔찌
  - (개요) 고무팔찌는 활용도가 높은 굿굿즈로서 최근에 많은 곳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존사례) UN난민기구에서 기부자에게 고무팔찌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의 제안으로 진행된 기부에서도 고무팔찌를 지급하여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관련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DSZGS7I).
- 스티커
  - (개요) 스티커는 저렴한 굿굿즈로서 여행용 캐리어, 노트북 등 다양한 곳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용) 이모티콘
  - (개요) 기부자에게 카카오톡 및 라인 등의 이모티콘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 (기존사례) 카카오는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수익금 일부를 청각장애아동 교육비에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기부티콘(Give-ticon)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재정

(관련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0626077).

둘째, 기부증서와 기부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증서
  - (개요)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하는 방안입니다.
  - (기존사례) 대부분의 기부단체에서는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택이나 사업장에 게시할 수 있도록 상장과 비슷한 디자인의 기부증서를 발급하면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부사실증명서
  - (개요) 정부24와 같이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통해 기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에서 이를 제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유도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존사례) 수능 수험생이 응시표를 제시하는 경우 각종 상점에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위 방안을 통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국난 극복을 위한 연대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류	5주차 우수제안	공급방식	지방정부-규제강화-국민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내고향 기부		

추진배경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3개월에서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
3. 정부에서는 상위 30% 이상인 가정에서는 재기부를 권유하고 있으며, 부총리 등 많은 사람이 기부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문제점

1. 기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어디에 기부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2. 기부를 하고 싶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기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3. 지역화폐의 경우 물건으로 구매 후 기부가 가능하다.

제안사항

1.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형 고향납세제도를 권유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의 문제로 잘 사는 지자체(수도권)가 반대하고 있다.
2. 일본에서는 고향납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3. 이에 이번 기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내고향 기부를 제안한다.

세부 추진사항

(제1안)

1. 수도권에 사는 타향민(지역 출신) 중 미처 사용하지 못했거나, 기부를 원하는 지역화폐를 고향에 기부한다.
2. 기부된 지역화폐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기부한 지역에 지급한다.
3. 기부 받은 현금은 지역 예산에 충원하여 긴급지원재원 부족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한다.

(제2안)

1. 지자체는 필요물품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기재한다.
2. 타향민(지역 출신)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역화폐로 구매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다.
3. 지자체는 필요물품을 보급하고 충원된 물품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

기대효과

1. 정책적으로 쟁점이 많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일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2. 긴급지원자금에 대한 지자체간 불균형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3. 내 고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타향민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연스러운 연계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국민 우수·희망 아이디어 사례집

발 행 일 2021년 1월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홈페이지 www.krila.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 2275. 6894

I S B N 978-89-7865-228-5 93350